아름다운 영토

E美지

2019 가을호 VOL. 13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 2019-08-26 오전 10:45:57

E美지
아름다운 영토

2019 가을호 VOL. 13

발행인 및 편집인 | 방귀희
제호 | 석창우
발행처 |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발행일 | 2019년 8월 30일
등록번호 | 금천-바00028(2016. 07. 02.)
주소 | (08504)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지식산업센터 B동 2506-2호
전화 | 02-861-8848 **팩스** | 02-861-8849
이메일 | klah1990@daum.net
홈페이지 | www.emiji.net
제작판매 | 연인M&B(02-455-3987)
인쇄인 | 이기현 (주)현문자현

편집자문위원
김숙희(연극/아이들극장 예술감독)
김종회(문학/문학평론가)
김희정(공연/상명대학교 예술문화산업대학 교수)
문경태(법무법인 세종 고문, 사회복지정책)
유진상(미술/계원예술대학교 융합예술과 교수, 미술평론가)
정무성(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 문화복지)
제임스전(무용/한국체육대학교 생활무용학과 교수, 발레)

편집위원
강원래(방송/꿍따리유랑단 단장)
강남국(문학/활짝웃는독서회 회장, 수필가)
김예지(음악/숙명여자대학교 강사, 피아니스트)
김용성(영미문학/삼육대학교 영어영문학부 교수)
김용우(무용/휠체어 무용가)
석창우(미술/수묵크로키)
정승재(법학/장안대학교 행정법률과 교수, 소설가)

편집운영위원
위원장 곽대석(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김헌식(대중문화/문화평론가)
이성모(연극/LSM 대표)
정은현(음악/TOOL MUSIC 대표)
함의영(출판/피치마켓 대표)
김현일(미술/디스에이블드 대표)

편집부
차희정(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외래교수)
정현우(방송작가, 시인)
김세령(본 협회 실장)

최부암(PHOTO)

장애인 인터넷신문 〈에이블뉴스〉와 MOU로 『E美지』 콘텐츠는 에이블뉴스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가: 12,000원/1년 정기구독료 40,000원/단체 1년 구독료 100,000원(3권)
신한은행: 140-011-408445(예금주: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ISSN 2508-4984

* 『E美지』 발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장애인문화예술 대중화를 위한 장애인문학 진흥사업"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시행됩니다.
*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 내용의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아름다운 영토

E美지

2019 가을호 VOL. 13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3 2019-08-26 오전 10:45:58

CONTENTS

2019 가을호 VOL. 13

사진작가 최부암(섹션 사진)

010 초대석
이미 장애예술인후원고용제도를 실천하고 있는
와이즈와이어즈 박성호 사장

바람이 분다

010 초대석 이미 장애예술인후원고용제도를 실천하고 있는 와이즈와이어즈 박성호 사장
020 4월의 사과 사회 지도층이 미~쳤어
023 STUDY 장애인예술 일자리 가능하다 _ 방귀희
037 스페셜 | 장애인 전문 방송인 _ KBS 장웅 아나운서
044 별에서 온 詩 낙엽 _ 주치명 / Fallen Leaves _ Ju Chi-myeong
046 이미지 특종 로보캅 아빠 손잡고 신부 입장

048 중계석

049 신간 | 김종선 「택시 의정부데스까」 이대우 「아침」
김율도 「그대에게 가는 의미」 강남국 「삶을 나르는 시」
이계옥 「엄마의 눈」 한국시인연대 229인 「한강의 묵시」
김 민 「유리구슬마다 꿈으로 서다」 진형곤 「당신 내 아버지의 이름 곁으로」
053 공연 | 배범준 〈첼로 독주회〉
드림위드앙상블 〈제4회 정기연주회〉
최 준 〈적벽가〉 발표회
전시 | (사)빛된소리글로벌예술협회 〈고요 속의 대화〉
한국장애인서예협회 〈대한민국장애인서예대전〉
제1회 오티즘엑스포
054 행사 | 한국서예대전 대상 수상한 이봉화 작가
제4회 이음가요제 성료
미스 휠체어 USA 델프의 아름다움
미국 토니상 여우조연상 휠체어뮤지컬 배우 알리 수상
여성장애인 만화가 이해경,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장 취임
장애예술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
제2회 이원형어워드 수상자 물감화가 김재호
박양우 장관 '장애예술인 전용 공연장 2022년 건립 추진'
2019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개최

CONTENTS

2019 가을호 VOL.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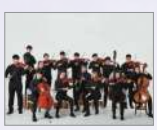
066 문학
일행시로 긴 여운을 주는
김민 시인

081 미술
구필화가
김영수 이야기

099 음악
왼손 피아니스트
이훈

106 대중예술
유럽을 놀라게 한
휠체어무용가 김정훈

반하다



066 문학 일행시로 긴 여운을 주는 김민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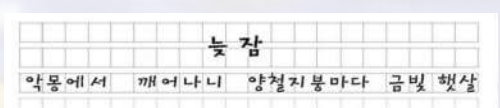
081 미술 구필화가 김영수 이야기

099 음악 왼손 피아니스트 이훈

106 대중예술 유럽을 놀라게 한 휠체어무용가 김정훈

115 장애인문화예술단체
11년 동안 삼성화재에서 지원하여 '뽀꼬아뽀꼬'에서 '비바챔버앙상블'로

125 갤러리
소울음 화가 故최진섭



E美지

CONTENTS

2019 가을호 VOL. 13

165 피플
척수장애인복지 선봉에 선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구근회 회장

변화하다

142 아트 프렌즈 WHY? 왜? 스스로에게 묻다!_ 규재맘
152 A_CULTURE 봉준호 감독의 역동적인 약자에 대한 감수성은 왜 _ 김헌식
158 장애인 인식개선 카툰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_ 강윤민

159 인문학으로 보는 장애인
159 등이 굽은 정승 허조
163 언어장애를 가진 최고의 정치웅변가 데모스테네스

165 피플
165 척수장애인복지 선봉에 선_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구근회 회장

173 캐릭터로 말한다 광고 천재 이제석은 왜 장애인에게 관심을 가졌을까?
178 노차돌의 사랑법 사랑이란
180 삶을 나르는 詩 나태주 〈풀꽃〉 _ 강남국
182 콘텐츠 모집 『E美지』는 독자와 함께 만드는 매거진입니다!
183 〈누구?!시리즈100〉 프로젝트
184 〈장애예술인수첩〉

E美지

읽을 때는 아름다운 영토 이미지라고 하시면 됩니다. 줄여서 이미지라고 해도 좋습니다.
영어 image는 머리 속에 떠오르는 관념의 형상으로 인식을 형성하는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바로 이 장애인 하면 떠오르는 불편한 이미지에서 발생하였기에 장애인 인식개선의 강력한 도구가 될 장애인예술 잡지 이름을 이미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글, 영어, 한문을 조합하여 차이와 특성으로 다양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예술이 되겠다는 장애인예술의 각오를 담은 것인데, 창간 2주년을 맞아 제호를 석창우 화백 작품으로 바꾸면서 영문 소문자를 대문자로 하고, 美 자에서 예술의 확장성을 약속하였고, 색의 변화 대신 통일된 금박의 화려함에 빨간 획으로 강렬한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BEING ART

장애인예술의 의미와 가치를 표현하기 위하여 각 나라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일본에서는 Able Art(가능성의 예술), 영국에서는 Unlimited Art(한계가 없는 예술)
독일에서는 유크레아(EUCREA)라고 하여 유럽 전체를 포함하여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VSA(Very Special Arts)로 매우 특별한 예술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장애인예술을 Being Art
존재의 예술로 칭하고 Being Art를 통해 A_Culture를 형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 A_Culture의 A는 able, access, ace를 뜻함.

회원 가입

E美지 아름다운 영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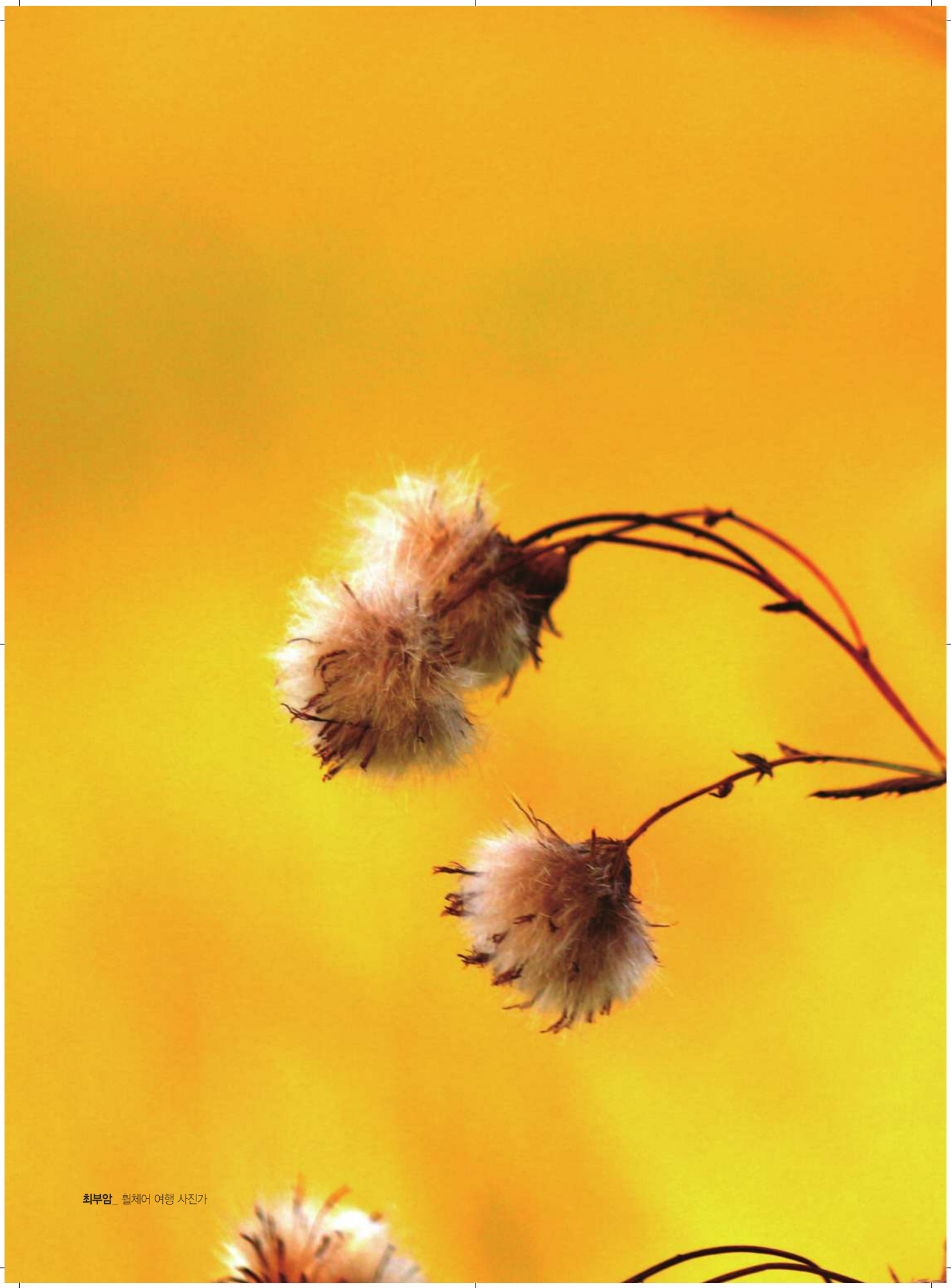
• 회원 유형: 1년 구독 회원 □ 단체회원 □ 평생회원 □

– 1년 구독 회원: 회비 40,000원, 단체 구독 회원: 회비 100,000원(3권)

– 평생 회원: 회비 300,000원

신한은행 140–011–408445(예금주: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회비 입금 후 전화를 걸어 주시면 바로 회원 가입이 됩니다. (Tel: 02–861–8848)



최부암_ 휠체어 여행 사진가

첫 번째

바람이 분다

『E美지』의 첫 번째 목표인 장애인예술의 대중화를 위해
장애인예술의 바람이 일기를 희망합니다.

E美지
아름다운 영토

Photo by 최부암 **〈가을연가(시흥)〉**

초대석

이미 장애예술인후원고용제도를 실천하고 있는

와이즈와이어즈 박성호 사장

장애예술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 관련 기관 사람들을 만나 의논을 하니 이번에는 장애예술인 일자리 사례를 모아 오라는 것이었다. 기업에서 장애인예술단체의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 사례는 있지만 장애예술인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을까 싶어 자신이 없었지만 해 오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서 부지런히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 사례를 찾기 시작하였다.

그러다 '바로 이거야!' 하는 사례를 찾았다. 장애예술인을 고용 형태로 후원하고 있는 회사를 발견한 것이다. 너무 반가워서 바로 인터뷰 요청을 하였고, 인터뷰가 여의치 않으면 자료만 주셔도 된다고 한껏 자세를 낮추었다. 검색을 해 보니 장애인을 후원하는 일인데도 기사화된 것이 없었고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사업에 대한 사진 한 장이 올라와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인터뷰를 거절당할 것이란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포기할 무렵 전화가 왔다. 사장님과의 인터뷰로 결정을 하였다는 것이었다. 마음이 변하기 전에 서둘러 인터뷰 날짜를 잡고 회사를 방문하였다. 회사 안으로 들어가서 회사 밖으로 나올 때까지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세상에 이런 곳이 있구나 싶어 계속 놀랐다.

방송작가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인터뷰를 했지만 이토록 선함, 기쁨과 감동을 주는 사람을 만나는 일은 거의 없었다. 특히 우리의 목표와 딱 들어맞는 기업을 만난 것은 장애예술인후원고용제도의 청신호이다. 인터뷰와 동석한 분은 와이즈와이어즈 박성호 사장, 김완수 상무, 담당자 홍구표 과장이었다.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1 2019-08-26 오전 10:47:11

장애예술인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펴고 있는 회사는 최초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였는지.

우리 회사는 2003년에 설립되었다. 10년이 지나자 직원 수가 많이 늘었다. 우리 회사도 장애인의무고용이 적용되는 규모로 성장한 것이다. 당연히 그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장애인고용을 실천하려고 했지만 우리 회사는 각종 소프트웨어 제품을 검수하는 업무라서 매우 전문적인 기술을 요한다. 업무 자체가 특수하다 보니 해당 업무에 맞는 장애인 근로자를 찾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근로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지 않았을 때 정부에 지불해야 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 회사의 미션이 나눔인데 벌금을 내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애인을 고용할 방법을 찾다가 장애인 분들이 자기 일을 하면서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장애인화가 고용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2013년 11월부터 '한마음 일자리'를 신설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와이즈와이어즈는 장애인미술 화가와 사회를 연결하는 보다 좋은 세상 만들기 운동을 통해 고용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소문을 듣고 홈페이지를 꼼꼼히 조사해 보고, 관련 기사도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하였다. 기업의 사회공헌은 홍보가 주 목적 아닌가.

우리는 장애인고용의무를 실천하고 있을 뿐이라서 홍보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지금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2 2019-08-26 오전 10:47:19

『E美지』 인터뷰에 응한 것은 『E美지』에 좋은 작가 분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다고 해서 오히려 우리가 도움을 받을 것이 많기 때문이다.

회사가 원하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어렵듯이 좋은 작가를 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장애예술인을 고용한 형태라고 들었다.

작가를 선정하는 방법은 이메일로 작가와 작품을 소개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형식의 문건을 받아서 검토를 하는데 작가 인지도가 아닌 예술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12명의 장애인미술 작가와 함께 일을 했는데, 작가는 매달 10호 이상의 작품을 회사에 납품하고 회사와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며 회사는 작가에게 매월 활동비와 재료비 그리고 액자비를 지원한다. 매월 지급되는 내용은 개인에게만 공유되는 사항이다.

계약 기간은 1년이고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담당 과장에게 12명 사내 장애인미술 화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리를 해 보니 성비율은 남성 7명, 여성 5명으로 남성이 많았고, 연령대별로 2~30대 2명, 4~50대와 60대 이상이 각각 5명으로 나이가 많은 편이었다.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 8명, 청각장애 2명, 발달장애 1명, 뇌병변장애 1명으로 역시 지체장애가 앞도적으로 많았다. 장르별로는 서양화 10명, 동양화 1명,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3 2019-08-26 오전 10:47:26

조각 1명으로 「장애예술인수첩」에 나타난 장애예술인 특징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으로 선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마운 것은 계약기간이 2년인 경우가 12명 가운데 10명으로 계약을 한번 더 연장을 할 정도로 회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장애예술인 후원 사업의 결실이라면.

한마음 일자리를 외부에 알리지는 않았지만 우리 직원들에게는 모든 과정을 사내 메신저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어떤 작가와 새로 계약을 했고, 그 작가의 작품은 어떤 것이고 하는 것을 자세히 소개한다. 직원들이 '좋아요'를 눌러 자기 뜻을 표한다.

우리 회사의 벽에 걸린 그림은 모두 우리 사내 장애인미술 화가 작품이다. 2015년부터 회사 달력도 그분들 작품으로 제작하고 있다. 직원은 물론 외부 거래처에 선물하는데 반응이 아주 좋다. 직원들 축하 선물, 외부 감사 선물 모두 사내 장애인미술 화가 작품으로 하고 있다.

2015년 4월에는 사내 장애인미술 화가 작품들을 모아서 인사동에 있는 갤러리(가나인사아트센터)에서 전시회를 열어 작품을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무엇보다 사내 장애인미술 화가로 지원을 받은 후 작품 활동이 왕성해져서 수상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낀다.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4 2019-08-26 오전 10:47:34

와이즈와이어즈(WW)는 소프트웨어 테스트 전문기업인데 혹시 장애인 직원이 있는지.

현재 직원이 370여 명이다. 5급장애를 가진 직원이 한두 명 일하고 있지만 사내 장애인미술 화가 분들까지 합하면 그보다 훨씬 많다.

회사 비전이 '성공을 함께 나누는 기업'인데 장애인도 포함된 것 같다. 특히 어떤 분들과 성공을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고객이 성공해야 회사가 성공하고 회사가 성공해야 나눔을 통해 사회 공헌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우리 회사는 국내외 소프트웨어 제품의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테스트 전문 엔지니어 300여 명을 보유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전자, 통신, 전자상거래, 금융, 의료, 자동차, 정부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어서 품질 테스트 외에 품질 관리, 품질 컨설팅 등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우리 회사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재계약율이 99% 이상이다.

설립 이후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일터(GPTW INSTITUTE 주관)에 다섯 번이나 선정되었다는 것이 큰 자랑거리이다.

성공은 기업이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함께한 구성원과 나누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성공의 나눔이 넘쳐나서 사회 환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목표이다.

하지만 그것은 향후 방향이고 지난 4월에 회사를 강남에서 성동구로 이전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있는 지역사회부터 살펴보려고 한다. 우리 지역 한부모 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움 속에 있는 청소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지정기탁 후원)을 계획하고 있다.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5 2019-08-26 오전 10:47:43

여성친화기업이라는 것도 눈에 띄었다. 여성 직원의 어떤 점에 신경을 써서 다가가고 있는지 궁금하다.

여성 직원이 40% 정도인데 우리 업무가 여성의 꼼꼼함이 큰 장점이 된다. 출산과 육아휴직에 고민을 하지 않고 아주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도록 회사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휴직 후 복직이 불안하지 않도록 휴직 기간에도 근무할 때처럼 생일과 결혼기념일 선물을 보내고 복직 몇 개월 전부터 복직에 필요한 절차를 의논해서 회사가 자신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복직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친화라는 것이 여성 직원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남성 직원도 똑같이 육아휴직을 당당히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자녀가 3명이어서 3번 출산과 육아 휴직을 한 경우도 있을 정도로 우리 회사는 출산을 장려하고 있어서 여성친화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다른 기업들은 힘들다고 하는데 WW는 일자리창출 확대로 올 초에 대한민국SW기업경쟁력대상을 수상하였다. 일자리 확대의 비결은.

매년 수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꾸준히 일자리가 확대되었기 때문인데 기업을 하다 보면 어려운 시기가 있기 마련이지만 회사가 어려워도 기업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경영 철학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테스트 업무 단가는 낮추지 않는다. 그래야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회사 직원들은 회사가 어려워져도 일자리를 잃을 것이란 불안감이 없다. 그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6 2019-08-26 오전 10:47:50

시기에는 재교육을 시켜서 새로운 기술을 익히며 더 고급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황금알을 낳은 거위 효과를 믿고 있고 또 실제로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업무에 최선을 다한 것이 우리 회사의 평판을 유지하며 신뢰를 쌓게 하였고 그것이 지속 성장의 결과로 이어졌다.

그리고 당장 업무 능력보다는 업무 능력을 키워서 회사에 필요한 인재를 만들어 가는 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이다. 그래서 일자리가 가장 취약한 취준생들을 고용하여 꾸준히 성장시키고 있다.

박 사장님은 2006년 부사장에서 10년 만에 사장으로 승진을 하신 노력형 CEO란 생각이 든다. 선배로서 청년들에게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위해 어떤 조언을 해 주겠는가.

이 분야에서 일한 지 25년이 되었다.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13년 전 지분을 갖고 이사로 입사를 했다. 빠른 성공이 아닌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가는 발전을 선택하고 사람의 중요성을 알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직장 생활의 노하우이다.

계획을 시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애예술인들에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계신데 미술 이외의 다른 장르로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우리가 미술로 시작한 것은 결과물이 바로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이었다. 고용은 근로를 의미하는데 다른 장르는 어떻게 결과물을 측정해야 할지 막연하였다. 우리도 장르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고민해 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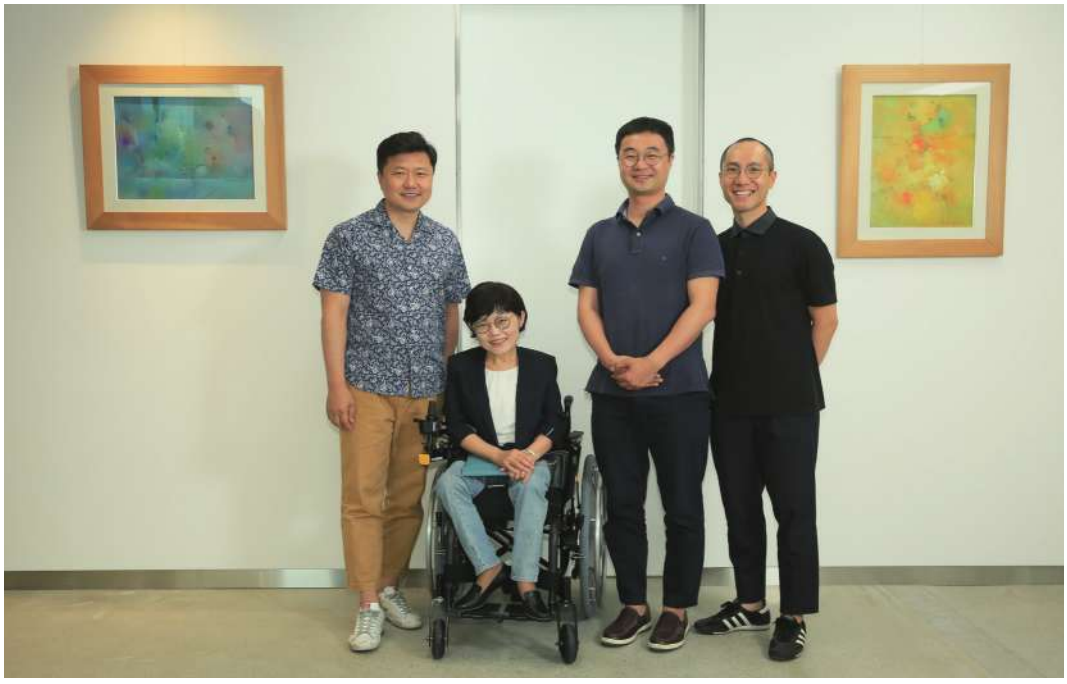
WW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장애인 메세나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기업에서 벤치마킹한다면.

우리 회사의 '한마음 일자리'가 장애인 메세나 활동이고 장애예술인후원고용제도 1호 기업이라고 하니 얼떨떨하다. 우리는 그저 필요에 의해서 방법을 고민하며 새롭다면 새로울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실천하고 있을 뿐이다.

장애예술인들을 지원하는 기업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고용 형태가 아니어서 우리가 모델 사례가 됐다는 것으로 큰 보람을 느낀다.

우리 회사는 나눔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벤치마킹은 대환영이다. 사실 우리도 완전히 정착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 보완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7 2019-08-26 오전 10:47:50



장애예술인들은 장애예술인후원고용제도를 원하고 있다. 장애인의무고용율을 지키지 않아서 내는 고용부담금을 장애예술인에게 후원하면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기업과 장애예술인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런 제도가 시행된다면 WW는 적극 참여할 것 같다.

1회성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고용계약서를 쓰고 있는 것이다. 현재는 계약 기간이 1년인데 보다 많은 작가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이다.

장애예술인후원고용제도가 마련된다면 장애예술인고용이 안정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장애예술인들에게 더 도움이 될 테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우리로서는 제도가 마련되면 한마음 일자리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상식적인 일이 되는 것뿐이다.

장애예술인 지원 사업을 계속하려면 기업에 부담이 가지 않아야 할 텐데 염려되는 점은.

계약이 종료된 후 각자의 사정을 말씀하시지만 모두 다 수용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 부담 때문에 생기는 막연한 염려를 먼저 하기보다는 진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선한 의도를 갖고 있으면 그 결과도 선하다고 생각한다.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8 2019-08-26 오전 10:47:58

앞으로의 계획은.

회사는 늘 도전을 받는다. 고객의 안전을 우선 생각한다는 기업의 가치가 어려운 고비를 슬기롭게 넘기게 하는 힘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치를 이어 가는 것이 계획이다.

2011년에는 일본과 중국에 2017년에는 싱가포르, 베트남, 2018년에는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해외 진출을 조금씩 확장시키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은 의무이자 권리이다. 우리도 그동안 연탄 나르기, 김장, 요양원 청소와 식사 봉사 등 지속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소위 '보다 좋은 세상 만들기 운동'인데 진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보다 좋은 세상이 되어야 모두가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글 **방귀희**/사진 **이재훈**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9 2019-08-26 오전 10:48:06

4월의 사과

사회 지도층이 미~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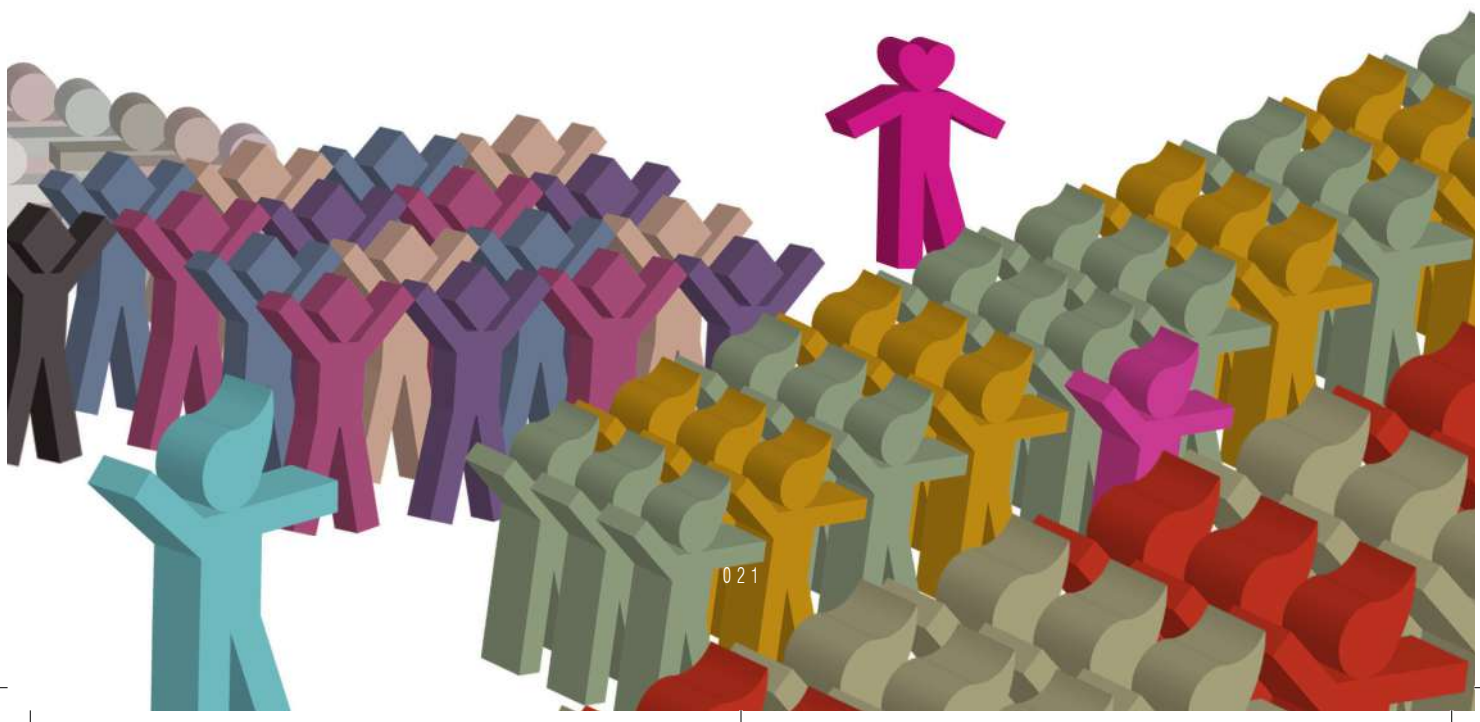
자신을 닮은 사람을 세 번 만나면 죽는다는 괴담으로 소설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작가 아야츠지 유키토는 얼굴이 닮은 것으로 설정하였지만 요즘 우리 사회 현상을 보면 생각이 닮은 사람들을 만나면 폭망하는 것 같다. 착한 아이였는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비행청소년이 되었다고 하는 부모들 하소연은 익히 많이 들었었는데, 모범생으로 잘 성장하여 사회 지도층이 된 사람들이 행하는 사회적 비행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비행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한다. 자기들 눈높이에는 맞는데 국민 눈높이가 낮아서 억울한 지탄을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해석이 가능한데 그것은 넌센스다. 국민 눈높이에 안 맞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과 도덕성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위반한 명백한 탈선이다. 권력에 도취되어 판단이 흐려져서 이익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20 2019-08-26 오전 10:48:09

선진국에서 사회 지도층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며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데 우리나라의 사회 지도층은 왜 저런 일까지 했을까 싶을 정도로 구차하고 한심한 모습을 보여 주어 존경은커녕 '너도 똑같은 족속이구나.' 하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사람을 믿지 않고 무조건 불신하게 되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인성(人性) 도플갱어 괴담이 퍼지고 있는 것이다.

서로 닮은 사람끼리 모여 편을 짜서 상대를 공격하는 사회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다름 아닌 장애인이다. 장애인은 자신들과 전혀 닮지 않은 이질적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편에서도 끼워 주질 않는다. 장애인의 날을 만들어 놓고 365일 가운데 하루만 장애인 편인 척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며 장애인 포용사회를 부르짖으니 장애인들이 정부의 장애인복지 정책에 불만이 많은 것이다.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 소외계층이 우리 사회에 포용되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지도층이 변해야 한다. 어떻게 변해야 할까? 우선 사회 지도자가 되려면 정직해야 한다. 공자는 윗사람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정직을 꼽았다. 정직해야 아랫 사람들이 복종을 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듯이 정직은 리더십의 근간이 된다. 그리고 사회 지도자는 불교의 자비심이 있어야 한다. 어려운 사람의 고통을 제거해 주고 기쁨을 주는 최고의 인간 사랑이 바로 자비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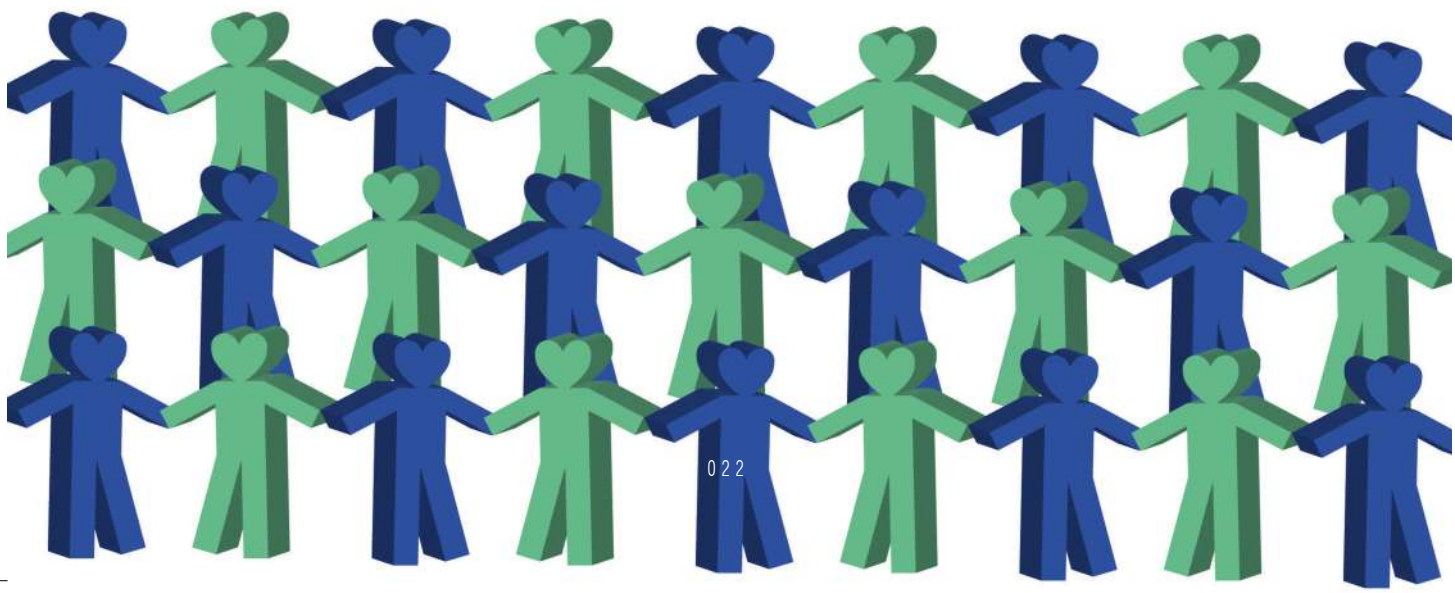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21 2019-08-26 오전 10:48:13

재해가 발생하면 달려가서 위로해 주며 재해 복구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의례적이어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업무상 또는 보여 주기 위한 이벤트로 여겨진다. 진심이라면 재해 현장에서 단 하루라도 자원 활동을 하며 현장의 소리에 귀기울여서 현실적인 수습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잠시 머물다 가서는 몇 푼 안 되는 보상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배신감이 생기는 것이다.

부와 권력 그리고 명성을 가지면 사회 지도층이 되어 더 많은 부와 더 무서운 권력을 휘두르기 때문에 사회 지도층이 부도덕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사회 지도층은 다 똑같다는 인성(人性) 도플갱어 괴담이 더 확산되기 전에 사회 지도자들이 하루속히 국민과 진심으로 공감하며 진짜 지도자가 되기를 바란다.

글 **방귀희**/일러스트 **김형태**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22 2019-08-26 오전 10:48:16

STUDY

장애인예술 일자리 가능하다

방 귀 희(숭실사이버대학교 방송문예창작학과 특임교수)

1. 시작하며

지난해 「장애예술인수첩」을 제작한 것은 장애예술인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 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니 예술 활동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1만 장애예술인의 요구이다. 그래서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에서는 2019년 목표를 장애예술인 일자리 창출로 세우고 장애예술인후원고용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예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장애예술인의 예술 활동이 노동으로 인정되는 국내외 사례를 가져오라는 새로운 과제를 받았다.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소문을 하고 작은 단서라도 얻으면 전화로 확인하고 직접 만나기도 하면서 15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2. 장애인예술 일자리 사례

1. 기업 형태

1) 한마음 일자리

• 운영주체: 주식회사 와이즈와이어즈(박성호 사장)는 소프트웨어 테스트 전문기업으로 현재 직원이 370여 명이다. 2013년 11월부터 '한마음 일자리'를 신설하여 장애인화가를 고용하는 형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23 2019-08-26 오전 10:48:17

식으로 장애인의무고용율을 이행하고 있다.

• 운영방식: 작가를 선정하는 방법은 이메일로 작가와 작품을 소개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형식의 문건을 받아서 검토를 하는데 작가 인지도가 아닌 예술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화가들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12명의 장애인미술 작가와 함께 일을 했는데, 작가는 매달 10호 이상의 작품을 회사에 납품하고 회사와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며 회사는 작가에게 매월 활동비와 재료비 그리고 액자비를 지원한다. 작가에게 매월 지급되는 내용은 개인에게만 공유되는 사항이다. 계약 기간은 1년이고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 일자리 효과: 12명 사내 장애인미술 화가를 분석하면 성비율은 남성 7명, 여성 5명으로 남성이 많았고, 연령대별로 2~30대 2명, 4~50대와 60대 이상이 각각 5명으로 나이가 많은 편이었다.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 8명, 청각장애 2명, 발달장애 1명, 뇌병변장애 1명으로 역시 지체장애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장르별로는 서양화 10명, 동양화 1명, 조각 1명으로 「장애인예술수첩」에 나타난 장애예술인 특징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으로 선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계약기간이 2년인 경우가 12명 가운데 10명으로 계약을 한번 더 연장을 할 정도로 회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2) 국민드림예술단

• 운영주체: 국민일보가 올 4월 언론사상 최초로 발달장애인 중심의 국민드림예술단(정창교 단장/국민일보 인천지역본부장)을 창단하였다.

• 운영방식: 가장 취업이 어려운 발달장애청년 예술인 5명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지난 4월 16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고용증진협약을 맺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자폐성 발달장애예술인 백승희(비올라), 김유경(바이올린), 박상현(플루트), 유은지(첼로), 박진현(색소폰)으로 국민드림앙상블을 구성하여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단원들은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며 월급을 받고 있다.

예술강사가 주 2회 지도해 주고 있는데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직업창출을 위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24 2019-08-26 오전 10:48:17

해 예술강사를 지원하는 등 지속가능한 협력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 일자리 효과: 국민드림예술단은 국민일보 행사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공연 활동을 펼치게 된다.

3) 주식회사 디스에이블드

• 운영주체: 발달장애예술인 전문에이전시 역할을 하기 위해 2016년 장애인예술을 지식 기반으로 하는 소셜벤처기업으로 디스에이블드(김현일 대표)를 창업하고 2017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자생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 장애예술인들 5명을 고용하였다.

• 운영방식: 예술성을 인정받은 정상급 발달장애예술인을 포함하여 총 35명의 작가가 소속되어 활동 중이다. 자체 생산, R&D상품을 통해 발달장애인예술인들의 작품이 녹아 있는 상품을 판매하여 수익의 30%는 작가들에게 돌아가도록 하여 지속적인 예술 활동의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다.

핸드폰케이스와 보조배터리, USB, 파우치, 골프공, 자체 개발 상품 등에 발달장애인 예술인 작품을 입힌 상품을 제작하여 사용자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작가들의 작품을 느낄 수 있다.

• 일자리 효과: 판매 수익의 30%가 발달장애인예술인에게로 지급되고 있고, 작품수가 3천점이어서 판매량에 따라 일자리 효과가 발생한다.

2. 사회적 기업 형태

1) 사회적협동조합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

• 운영주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시각장애인 연주자들은 악보를 보지 못해 월급을 주는 관현악단에 들어갈 수 없었기에 시각장애 음악인들로 구성된 세계 유일의 오케스트라인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이상재 단장)를 2007년에 결성하여 활동하다가 2014년도에 문화부 사회적협동조합 1호로 법인을 받았다.

• 운영방식: 국고인 정부보조금으로 장애인 단원 12명에게 매월 훈련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25 2019-08-26 오전 10:48:17

• 일자리 효과: 현재 시각장애인 12명과 비장애인 8명 모두 20명이 활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400여 회에 이르는 공연을 해 왔다. 레퍼토리도 200곡 이상 확보하여 무대 성격에 따라 다양한 연주가 가능하다.

2) 사회적협동조합 드림위드앙상블

• 운영주체: 국내 최초 발달장애청소년들로 구성된 클라리넷 앙상블로 발달장애인을 전문 연주자로 성장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한다.

하트하트오케스트라 소속 하트클라리넷앙상블로 수년간 활동하다가 독립하여 드림위드앙상블(이옥주 이사장)로 2015년 문화부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받았다.

• 운영방식: 하루 5시간 연습을 하는 것이 근무 조건으로 발달장애음악인 9명에게는 월급이 지급된다.

• 일자리 효과: 전문 연주 활동으로 직업재활의 터전을 마련하고 각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 출연료와 강사료를 받고 있다.

3) 사회적협동조합 얼쑤

• 운영주체: 공연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2014년 발달장애전통문화예술단을 임의단체로 창단했고, 얼쑤(이창숙 대표)로 개명하여 2017년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받은 후, 2018년 12월 부처형 고용노동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았다.

• 운영방식: 얼쑤의 발달장애인 단원은 총 18명인데 그 가운데 6명을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고용되지 않은 단원들은 다른 직장을 다니며 공연에만 참석하거나, 특정한 날에만 연습에 참석한다.

얼쑤에 고용된 발달장애인들은 사물놀이, 난타, 민요, 탈춤, 마당극 등의 공연을 성공적으로 올리기 위해 연습하고, 공연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다. 공연으로 수익금을 창출하여 얼쑤를 운영한다.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26 2019-08-26 오전 10:48:17

• 일자리 효과: 얼쑤는 한 달 기준 평균 4회의 공연을 하고 있다. 주로 요양원과 학교에서 공연을 한다.

4) 사회적기업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 운영주체: 장애인에게 문화예술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여 장애인예술인으로 육성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 2008년에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배은주 단장)을 창단하여 2011년 서울형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 운영방식: 월 일정 급여를 받는 단원은 5명이다.

• 일자리 효과: 공연이 많아서 단원들이 공연을 통해 출연료를 받고 있다.

5) 예비사회적기업 스페셜아트

• 운영주체: 발달장애인의 예술성 발굴 및 창작자 육성을 통한 자립 지원을 위해 2015년 설립된 스페셜아트(김민정 대표)는 장애인이 주체적인 창작자로서 성장할 수 있게 작가 매니지먼트와 전시 기획에 주력하고 있다.

• 운영방식: 모 은행 지주회사에서 발달장애화가 10명을 고용해서 작가에게 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 일자리 효과: 월급을 받기 때문에 일자리 효과가 있다.

6)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뉴딘파스텔 골프존파스텔합창단

• 운영주체: 골프존뉴딘그룹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설립한 계열사 (주)뉴딘파스텔(한태정 대표이사)에서 음악에 열정이 있는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고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자 2017년 12월 국내 최초로 장애인 직업합창단을 창단하고 2018년 4월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아 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장애인표준사업장 334개 가운데 유일한 예술업종의 장애인표준사업장이다.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27 2019-08-26 오전 10:48:17

• 운영방식: 골프존파스텔합창단은 현재 지체, 발달, 정신장애 등 다양한 장애 유형의 단원 14명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내고 있다. 합창단 단원 중 솔로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강상민 단원과 윤용준 단원은 성악을 전공한 인재이다.

단원들은 지휘자와 반주자의 지도를 받으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연습하는 것이 근무이다.

• 일자리 효과: 합창단이기 때문에 단원 수에 제한 없이 확장이 가능하고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연습을 통해 합창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어서 일자리 확대가 수월하다.

3. 산하 예술팀(단)

1) 다소니챔버오케스트라

• 운영주체: 광명시장애인종합복지관(김수은 관장)에서 예술 분야 장애청년 고용시장 확대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직업의식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8년 앤젤챔버오케스트라를 창단하여 활동하다가 2011년 다소니챔버오케스트라단으로 명칭 변경하고 다소니예술단을 창단하였다. 2013년 다소니챔버오케스트라 '복지일자리' 사업을 시작하였고, 2017년 다소니챔버오케스트라 '행복나눔 일자리' 사업으로 변경한 후, 2018년 다소니챔버오케스트라 '광명장애청년챔버오케스트라' 일자리 사업으로 변경하였다.

2018년 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으로 신청하여 2019년 광명시비로 지원을 받고 있다.

• 운영방식: 관내 등록 장애인 중 오케스트라 1악기 연주 가능자로 직업 활동을 목적으로 복지관에서 제시하는 업무 수행이 가능한 18세 이상 35세 미만의 청년장애인 15명(발달장애와 시각장애)이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악기 구성은 바이올린 7명, 비올라 1명, 첼로 2명, 클라리넷 2명, 색소폰, 드럼, 피아노 각 1명이다.

주 20시간 탄력근무제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시간제) 임금에 준한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1시간당 통상임금은 당해연도 최저임금에 준함)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 가입 의무와 12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된다.

근로자 근무관리는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에 맡고 급여 및 사업비는 광명시가 지원하는 형태이다.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28 2019-08-26 오전 10:48:18

• 일자리 효과: 15명이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2019년 5월 말 현재 총 223회 공연에 참가하며 음악 활동이 직업이 되고 있다.

2) 서초한우리오케스트라

• 운영주체: 서초한우리정보문화센터(위수경 관장)에서 2017년 3월 창단하였으며 음악에 특기가 있는 발달장애음악가들이 직업 연주자로 고용되어 연주 활동을 하고 있다.

• 운영방식: 2019년 1월 모 기업에서 직접 고용 형태로 중증발달장애인 단원 25명과 경증장애인 관리 인력 1명을 채용하여 직업 연주자로 근무하고 있다.

25명 단원의 악기구성은 플루트 5명, 클라리넷 5명, 트럼펫 2명, 색소폰 1명, 트롬본 1명, 첼로 7명, 피아노 4명, 타악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평일 13:00~17:00(4시간)로 개별악기 연습과 합주 연습을 하고 공연이 있을 때는 근로시간을 변경한다.

2019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책정된 급여가 매월 지급되고 주휴수당과 4대 보험 가입을 해준다. 2년 근로계약 후 무기근로계약으로 전환된다.

• 일자리 효과: 단원의 무기근로계약으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이 가능하다.

* 서초한우리정보문화센터에서는 장애직업 미술작가로서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시와 창작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발달장애미술가 아트상품 개발을 지원하여 저작권 계약을 통해 작가별 저작권료를 지급한다. 창작공간은 1년 계약이고 재계약도 가능하다.

3) 비바챔버앙상블

• 운영주체: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이수성 이사장)에서 실시한 음악 캠프 '뽀꼬아뽀꼬'를 통해 양성된 발달장애음악가들이 전문 연주자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 비바챔버앙상블을 2015년 5월에 창단하였으며,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고 있는데 지난 2월에 3기 단원이 새롭게 출범되었다.

• 운영방식: 바이올린 7명, 비올라 2명, 첼로 2명, 더블베이스, 플루트, 클라리넷, 피아노 각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단원은 한 달에 두 번씩 연습을 진행하고 심화연습과 마스터클래스를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29 2019-08-26 오전 10:48:18

통해 기량을 향상시키고 있다. 총 3회의 정기연주회와 국내외 다양한 초청공연을 하고 있다.
비바챔버앙상블 사업비는 삼성화재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단원에게 매월 훈련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 일자리 효과: 삼성화재는 단원을 고용한 형태가 아니고 비바챔버앙상블을 운영하고 있다.

4) 하트하트오케스트라

• 운영주체: 하트하트재단(오지철 이사장)에서 발달장애인의 음악적 재능을 발굴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하여 2006년 국내 최초의 발달장애인오케스트라를 창단하여 700여 회의 국내외 공연을 하였다.

• 운영방식: 재단은 발달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 등을 살려서 발달장애예술인이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 급여를 받으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트하트재단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올 6월 1일 발달장애인 연주자 10명을 세종병원에서 직접 고용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하고 4대보험 혜택도 주고 있다.

• 일자리 효과: 발달장애음악가를 고용한 것이니 일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5) 관현맹인전통예술단

• 운영주체: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전국 각지의 시각장애전통음악가를 발굴하여 2011년 3월 관현맹인전통예술단(최동익 단장)을 창단한 후 현재까지 관현맹인의 재현과 발전을 위해 국내외 공연 활동과 시각장애전통음악가 육성사업에 힘쓰고 있다.

• 운영방식: 정가, 단소, 타악, 거문고, 대금, 판소리에서 8명의 정단원이 국가보조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활동하고 있다.

• 일자리 효과: 1년에 100회 이상 공연을 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전통음악가들이 안정적으로 음악 활동을 하고 있다.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30 2019-08-26 오전 10:48:18

6) 중증장애인생산품 생활시설 효정(구 한빛예술단)

• 운영주체: 한빛재단(김양수 이사장)에서 2003년 한빛맹학교 학생들 가운데 음악에 재능이 있는 시각장애학생들로 구성된 한빛브라스앙상블을 확대 개편해서 2006년 한빛예술단을 창단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다가 2016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장애인근로사업장으로 업종은 공연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579개 가운데 예술 업종은 효정이 유일하다. 또한 2018년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서울시 문화예술과)되어 명실공히 전문예술인 집단으로 인정을 받았다.

• 운영방식: 한빛예술단은 한빛오케스트라, 한빛챔버오케스트라, 윈드오케스트라, 브라스앙상블, 타악앙상블, 현악앙상블, 채리티중창단, 모던팝밴드 블루오션의 8개의 연주단과 솔리스트로 피아니스트 이재혁, 바이올리니스트 김종훈, 바리톤 김정준, 트럼페터 윤석현, 가수 이아름이 소속되어 있다. 현재 38명의 단원이 국가보조금으로 월급과 4대 보험 혜택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음악 활동을 하고 있다.

• 일자리 효과: 1년에 100여 회 공연을 하고 있어서 음악 활동이 좋은 일자리가 되고 있다.

3. 분석 결과

1. 고용 기관 형태

기업	사회적 기업	산하 예술팀(단)
3	6	6

기업은 주식회사 2곳, 신문사 1곳이고 사회적 기업은 협동조합 3곳, 사회적기업 2곳, 장애인표준사업장 1곳이며, 산하 예술팀은 복지관 3곳, 단체 3곳으로 예전에는 장애인 관련 단체나 시설에서 장애인예술팀을 운영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들어 장애인예술을 업종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 고용 방식

기업	산하 예술팀(단)
3	6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31 2019-08-26 오전 10:48:18

장애예술인 개인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예술팀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소속 단원을 고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3. 지원금 출처

기업	정부
8	7

정부가 지원금 출처인 경우는 국고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사업비 그리고 사회적기업 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회적기업은 1년차에는 인건비의 70%, 2년차에는 인건비의 60%만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운영이 불안한 상태이다.

4. 고용 장르

음악	미술
12	3

음악에 대한 지원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문학 장르가 없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앞으로 무용, 연극, 마술 등 장르의 확대가 요구된다.

5. 근로자 장애 유형

발달장애	시각장애	모든 유형
9	3	3

발달장애가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발달장애인의 취업이 어려운데다가 기업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여전히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기에 발달장애인을 선택하고 있다.

6. 급여 규모

100만 원 미만	100만 원대	200만 원대
9	5	1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32 2019-08-26 오전 10:48:18

100만 원 미만의 급여가 60%인 것으로 장애예술인 일자리가 매우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고용 기간

1~2년 계약	무기계약
14	1

무기계약은 2년 계약 후 성과를 보고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현재로서는 모두 1~2년 단기계약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면 바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불안정한 고용 상태이다.

4. 결론 및 제언

1. 욕구

문화예술계 지원을 통한 사회공헌을 실천하기 위하여 1994년 사단법인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가 설립된 후 2013년 한국메세나협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232개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1기업이 1예술단체를 파트너십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예술인 개인을 후원하고 있는 것이 메세나 운동이다.

그런데 장애인예술은 메세나사업에서 배제되고 있어서 장애인예술이 더욱 열악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물론 기업에서 장애인예술단체의 사업을 후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기 지원이라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예술 일자리 사례를 탐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욕구가 드러났다.

–기업 지원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걱정이고 지원이 늘어야 예비단원까지 고용이 확대될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장애인 시립(구립)예술단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연예인 기획사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막대한 기본 자금이 필요하다.

–장애인예술 시장이 형성되어야 생산에 대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33 2019-08-26 오전 10:48:18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으면 지역 예술단 성격이 강해진다.
–출연료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N분의 1로 나누면 교통비도 나오지 않는다.

또한 장애예술인 개인은 팀에서 급여를 받으면 개인적인 공연 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받는 것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그리고 장애인예술 일자리 사례를 탐색하며 기업의 후원을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업 입장에서는 후원이 알려지면 갑자기 사업 계획서를 들고 찾아오는 장애인단체들이 많아서 비공개를 원한다고 하였다.

이밖에 장애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는 2018년 5월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서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가 양성되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이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위탁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장애예술인이 참여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서울 송파구에서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하트하트재단에서 운영하는 하트하트오케스트라의 발달장애연주자가들이 장애인식개선교육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보조강사로 2017년부터 7명이 참여하여 월 56시간(주 14시간) 근무로 급여를 받고 있다.
창원시에서도 장애인식개선교육 보조강사로 23명의 발달장애인연주자가 참여하고 있는 등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 제언

소속감을 갖게 된다는 것은 매슬로우(A. H. Maslow)의 욕구 5단계에서 3단계가 소속의 욕구이다. 사람은 학생일 때는 학교, 성인이 되면 직장에 소속되어 있어야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런 욕구를 해결하고 장애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하며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장애예술인후원고용제도를 제안한다.

장애예술인후원고용제도

기업은 장애인의무고용율을 지키지 못하면 고용부담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 고용부담금을 장애예술인의 창작지원금으로 후원을 할 경우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준다면 일자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34 2019-08-26 오전 10:48:18

리가 창출되는 것이다.

장애예술인은 출근을 각자 작업실로 하고, 자신의 창작을 근로로 환산하기 위하여 작품 활동을 증명하기 위한 북콘서트나 전시회 그리고 공연 등을 1년에 1~2회 실시하는 제도인데, 이는 기업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서 벌금을 낸다는 사회적 지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장애예술인은 창작 활동으로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장애예술인후원고용제도 실시 방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사업주의 책임) ①항에 '사업주는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사업체 업무 대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것을 장애인고용으로 간주한다.'를 추가한다.

장애예술인후원고용제도 기대 효과

첫째, 기업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서 벌금을 낸다는 사회적 지탄에서 벗어나 사회적 책임을 다 한다는 기업 호감도가 상승된다.

둘째, 장애예술인 취업 상태를 유지하여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다.

셋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장애 포용(inclusive)사회가 형성된다.

장애인예술 일자리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장애예술인후원고용제도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주)와이즈와이어즈의 '한마음 일자리'이다. 다만 장애예술인의 활동 장르가 미술 이외의 다양한 장르로 확대되고 계약 기간을 확장시켜서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예술인후원고용제도는 고용부담금을 활용하는 것인데 장애인의무고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있기 때문에 정부 부분의 모델은 근로자 근무관리는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에 맡고 급여 및 사업비는 광명시가 지원하는 형태인 다소니챔버오케스트라이다.

장애예술인후원고용제도는 사회적기업에서 예술적 특성을 강화시킨 문화적기업이나 연계고용제도로 자회사 형식의 장애인예술 전문 장애인표준사업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장애인예술기업의 성공 가능성도 엿보인다.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35 2019-08-26 오전 10:48:19

와이즈와이어즈

국민드림예술단

디스에이블드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

드림위드앙상블

얼쑤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스페셜아트

골프존파스텔합창단

다소니챔버오케스트라

서초한우리오케스트라

비바챔버앙상블

하트하트오케스트라

관현맹인전통예술단

한빛예술단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36 2019-08-26 오전 10:48:35

스페셜

장애인 전문 방송인

KBS 장웅 아나운서

KBS가 공영방송이라는 소임을 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전문 채널인 KBS3라디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KBS는 KBS3라디오를 시청료 인상을 요구하거나 국회 국정감사 자료로 사용할 뿐 KBS3라디오에 전문성이 있는 PD도 없고, 책임감을 갖고 있는 간부도 없는 상황에서 KBS3라디오는 개편 때마다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재방송으로 편성하는 방식으로 KBS3라디오를 축소시켜 가고 있다.

스페셜 동료 김희수 아나운서가 그려준 것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KBS3라디오를 지키고 있는 유일한 KBS맨은 바로 KBS3라디오 〈함께 하는 세상 만들기〉 MC 장웅 아나운서이다. 그는 2007년에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후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장애인프로그램 전문 사회자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며 장애인계의 친숙한 인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장웅 아나운서를 만나 본다.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37 2019-08-26 오전 10:48:35

KBS 공채 26기 아나운서로 입사를 했을 때의 꿈은 장애인프로그램 전문 사회자는 아니었을 텐데.

2000년에 KBS에 입사를 했는데 당시는 사회 초년생이라서 그저 내가 좋아하는 방송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기뻤을 뿐 거대한 꿈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아시다시피 프로그램 배정은 조직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프로그램을 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디오, TV 모두 경험하고 프로그램 장르도 뉴스, 교양, 연예 등 두루 경험하며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영역에서 자리를 잡는 것이 일반이라서 나도 그런 과정을 거쳤다.

그런데 입사한 지 7년 되었을 때인 2007년 KBS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오전 9~10시)에 프로그램 배정을 받았다. KBS3라디오는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단어에 조심해야 하고 주제가 무거워서 사회자로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막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 장애인프로그램이야말로 청취자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와 상식을 주는 내용이 많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1시간이 단 1초도 헛되지 않은 알찬 방송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그리고 출연자 한 분 한 분 너무나 열심히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부끄럽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초대석에서 만나게 되는 장애인의 삶은 내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인간의 고귀한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었다.

이런 매력 넘치는 프로그램이 바로 KBS3라디오 프로그램이기에 떠나지 못하고 12년을 함께하다 보니 장애인프로그램 전문 사회자라고 하시는데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아서 과분한 칭찬이다.

지금부터 장웅 아나운서를 왜 장애인 프로그램 전문 아나운서라고 하는지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2004년 아테네장애인올림픽부터 2018년 평창동계장애인올림픽까지 그 기간에 개최된 하계와 동계 올림픽 그리고 2013년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2014년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모든 국내외 장애인스포츠 개 · 폐회식과 주요 경기 중계방송을 도맡았다.

2004아테네장애인올림픽, 2008베이징장애인올림픽, 2012런던장애인올림픽, 2013평창동계 스페셜올림픽, 2014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2016리우장애인올림픽, 2018평창동계장애인올림픽 현장에 제가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개폐회식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스포츠 전문 캐스터로 주요 경기를 중계방송하며 장애인스포츠가 비장애인스포츠와 다르지 않고, 장애인스포츠의 재미가 무엇이라는 것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해설자에게 '저것이 바로 장애인스포츠의 묘미 아니겠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유도를 하기도 한다. 또 '저 규칙은 비장애인 종목과 똑같군요.' 라고 나도 모르게 설명을 하는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39 2019-08-26 오전 10:48:36

버릇이 생겼다.

장애인스포츠는 중계가 장애인올림픽 경기 정도만 잡히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종목이 많다. 캐스터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않는다면 그건 시청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중계방송을 통해 장애인스포츠를 제대로 소개해야 사람들이 장애인스포츠에 관심을 갖고 장애인스포츠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다는 생각에 경기 운영방식이나 선수들에 대한 프로필 자료를 찾아보지만, 찾아지지 않아서 협회나 코칭스태프들에게 일일이 전화나 메일을 통해 자료를 부탁해서 구했다. 정보가 넘치는 세상에 장애인스포츠에 대한 정보는 이토록 제한적인 것이 가장 안타깝다.

장웅 아나운서가 기여한 곳이 어디 체육 분야만이겠는가. 장애인예술 행사에서도 장웅 아나운서를 보면 '아, 이 행사는 성공이다. 안심해도 되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이다. 그런데 장애인예술 행사는 장애인체육 행사처럼 장애인올림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장애인체육대회처럼 규모가 크지 않은데도 기꺼이 사회를 맡아 주고, 주최 측이 미리 준비하지 못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실수를 재치있게 막아 주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장애인문화예술계에도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다. 초창기에는 한국장애인미술협회에서 한중일장애인미술대전, 장애인아트페어 등의 행사가 많았고,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가 설립된 이후에는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 미술대전, 스페셜K, 장애인축제 등 정말 행사가 많아졌다. 적은 예산으로 행사를 치루는만큼 그저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다. 문화예술 행사장에 가면 장애예술인들의 전시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어서 좋은 공연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서 좋다. 공연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행사장에 가며 나도 모르게 즐거워진다. 그래서 불러 주시면 달려가고 있다.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40 2019-08-26 오전 10:48:37

행사 주최 측에서 내빈 소개로 적어 준 분들 얼굴을 거의 알기 때문에 그분이 안 보이면 내가 알아서 '아직 도착을 못하신 듯하여 오시면 소개해 드리겠다.'고 멘트를 한다. 오래 하다 보니 생긴 노하우다.

방송에서 장애인 특집프로그램을 편성하면 MC 일순위가 장웅 아나운서이다.

2009년부터 장애이해교육 특집방송 〈대한민국 1교시〉의 2부 진행과 〈대한민국 1교시〉 방송 후기 진행을 맡은 이후 지금까지 단골 MC이다. 초등학생들의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여서 사명감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 특집뿐만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문화체험 '옆자리를 드립니다' 행사에 내가 진행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게스트들과 함께 참여하였는데 방송에서 느끼지 못했던 생동감이 현장에는 있어서 현장 진행을 한다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41 2019-08-26 오전 10:48:38

스페셜 시작 전

스페셜 시작

스페셜 온에어를 기다리며

고 하면 다른 스케줄을 잡지 않는다. 대학로 이음센터 야외무대에서 장애인 가수들이 인기 가수와 콜라보로 꾸민 무대는 정말 대단했다.

장웅 아나운서는 현재 KBS 1TV 〈사랑의 가족〉도 진행 중인데, 사람들이 저분은 다른 방송은 안 하나 싶을 것이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 경영정보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방송과는 거리가 먼 경영쪽 공부만 하였는데 주위에서 음성이 좋다는 칭찬을 많이 했다. 취업 준비를 하다가 1998년 BTN 아나운서로 합격을 한 것이 방송인의 첫발이다. 그 후 1999년 SBS골프채널을 거쳐 2000년 KBS에 입사하여 KBS뉴스, KBS 바둑왕전, 바른말 고운말, 굿모닝대한민국, 2TV아침 등 주로 뉴스와 교양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재미없는 방송만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나운서는 방송을 재미보다는 의미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내 소신이다.

〈사랑의 가족〉을 2018년도에 맡았는데 목요일 오후 1시에 방송되는 방송 사각지대에 편성된 비인기 프로그램이다. 외주 프로덕션에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제작 여건도 매우 열악하지만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장애인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잘못된 인식을 고착화시키지 않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42 2019-08-26 오전 10:48:39

을 텐데 싶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장애인 프로그램 외에 진행하는 것은 국제라디오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강좌이며 2TV 생생정보, 생활의 발견 더빙을 통해 시청자들과 목소리로 만나고 있다.

장웅 아나운서가 장애인들과 잘 소통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던데.

사촌 여동생이 지적장애인이다. 하지만 나를 비롯한 일가친척들은 장애,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가족으로만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 가족들처럼 장애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우리 사회가 장애인 당사자나 가족들을 편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그리고 7년 전에 갑상선암 0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0기는 가장 초기 단계여서 완치율이 90% 이상이라지만 막상 암이라는 진단을 받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건강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요즘 흔히 말하는 출세가 덧없다는 생각이 들자 내가 아닌 주위로 시선이 돌아갔다. 내가 돌봐야 할 가정이 있기에 경제활동은 해야 하지만 돈을 많이 벌기 위해 혹은 인기를 얻기 위한 삶이 아니라 소통이 필요한 분들과 함께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다.

장웅 아나운서가 꼭 하고 싶은 일은.

아나운서로서 무엇을 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모든 국민이 바른말 고운말을 사용하는데 기여할 수는 있겠구나 싶었다. KBS아나운서실 한국어연구팀장을 지내며 한국어에 대해 연구하고 교육한 경험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이 얼마나 품격이 있는지 새삼 깨달았다. 요즘 정치인들이 막말로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데 막말은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폭력이다.

그리고 틈틈이 장애인에게 상처가 되는 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다. 연구 수준은 아니지만 방송을 통해 그리고 현장에서 장애인 분들을 만나며 체득한 장애인에게 적용되는 바른말 고운말을 정리해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언어 운동을 펼치고 싶은 것이 작은 소망이다.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43 2019-08-26 오전 10:48:39

별에서 온 詩

낙엽

주치명

나무에서 가을이 진다
산은 말이 없다
앙상한 가지 사이로 달이 진다
고개를 저으며 하늘 한 번, 땅 한 번
달빛 젖은 얼굴로 먼 산을 바라본다
그래도 산은 말이 없다.

주치명

남, 1962년생, 시각장애, 구상솟대문학상 최우수상(2001), 시집 「당신은 모르시나요」, 「동백꽃」, 「노오란 호박꽃 어머이 어머니」. 군복무 중 장갑차 운전 당시 돌이 날아와 왼쪽 눈에 들어와 박힌 것이 훗날 포도막염으로 진행이 되어 실명, 왼쪽 눈이 잘 보이지 않아 오른쪽 눈이 혹사당하면서 오른쪽 눈마저 무리를 해서 실명이 됨, 경남 편의시설 설치요원으로 활동.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44 2019-08-26 오전 10:48:40

Fallen Leaves

Ju Chi-myeong

Autumn is falling from the trees.
The mountain says nothing.
The moon sinks down between bare branches.
Slowly nodding its head, once to the sky, once to the ground
face drenched in moonlight I gaze at the distant mountain.
Still the mountain says nothing.

Mr. Ju Chi-myeong

Born 1962. Visual impairment. Ku Sang Sosdae Literature Award – grand prizewinner (2001)
Poetry collections: Darling, Don't You Know?; Camellia
The poet also works installing amenities in Gyeongsang Province.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45 2019-08-26 오전 10:48:40

이미지 특종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46 2019-08-26 오전 10:48:40

로보캅 아빠 손잡고 신부 입장

딸의 손이 참 따뜻했다.
딸의 커다란 눈망울에서 조용히 흐르는 눈물
여기저기에서 축하객들도 울고 있었다.

딸이 열 살 때 산업현장에서 압사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후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은 장애의 짐을 함께 지게 되었다.
그동안 나는 정말 치열하게 살았다.
이 순간을 위해
예식장에서는 런웨이에 편의시설을 마련해 주었고
예식 전날 딸과 함께 현장에서 리허설까지 하였다.
그런 노력 덕분에 나는 보통 신부 아빠들처럼
딸의 손을 잡고 신부를 입장시킬 수 있었다.

딸아, 나의 사랑스러운 딸아
이제 아빠 염려는 하지 마라
건장한 남편이 너를 지켜줄 거다.

* 이 사진의 주인공은 휠로피아 김윤제 대표이다. 주위 장애인 동료들이 자녀를 결혼시킬 때마다 고민하는 것을 보고 세계에서 가장 기능이 좋은 기립형 휠체어로 자신이 먼저 신부 입장을 시키는 방법을 보여 주어서 다른 아빠들에게도 딸의 손을 잡고 당당히 신부 입장을 시켜서 가슴에 한을 남기지 말라는 조언을 해 주고 싶다고 하였다.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47 2019-08-26 오전 10:48:41

중계석

신간 NEW BOOK

공연 PERFORMING

전시 EXHIBIT

행사 EVENT

택시 의정부데스까

김종선/레슨/9,000원

입동의 강을 건너
겨울이
솜바지 입고
마을길을
느린 걸음으로
걸어 들어오네
어서 오시게 그대
첫눈
–본문 〈첫눈〉 전문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지냈고 모던포엠 신인상, 구상솟대문학상 최우수상 수상, 그 외 다수의 문학공모전에서 입상한 시인이 펴낸 첫 시집.

가뭄 속에서 거둔 씨앗으로 묵은 밭에 씨앗을 뿌린다. 씨앗을 뿌리는 일은 시인이지만 거두는 것은 세상 사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시인의 말

아침

이대우/서원 브라가언덕/15,000원

가시 많은 골짜기에도/ 가뿐히 앉는 하루의 시작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새들이 안다고 노래 부르네//

햇살 낳은 엄마 되어/ 뽀얀 기쁨의 살이 올라/ 어제 절망은 털어내고/ 오늘은 잘 살아야 한다고/ 일러 주는 아침

–본문 〈아침 3〉 중에서

웃는 시인이라 불리는 이대우 시인이 왼손 검지손가락 하나로 다섯 번째 시집을 내었다.

- 1부 아침을 주시니
- 2부 오늘 하루는 비에 젖고
- 3부 큰 기쁨을 주소서
- 4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 5부 사랑이란 꽃은
- 6부 이런 삶이 되게 하소서
- 7부 소망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49 2019-08-26 오전 10:48:47

그대에게 가는 의미

김율도/율도국/9,900원

내가 숲에 가는 것은/ 언제 튀어나올지 모를/ 야생동물을 다 감당한다는 의미//

내가 그대에게 가는 것은/ 언제 화낼지 모르는 그대를/ 감당한다는 의미//

내가 그대에게 가는 것은/ 그대의 허물을 받아들인다는 의미

–본문 〈그대에게 가는 의미〉 중에서

1988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등단, 1991년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 대상, 2014년 구상솟대문학상 대상을 받은 시인의 신작시집.

- 1부 그대에게 가는 의미
  –영원하고 보편적인 사랑을 통한 인생에 대한 통찰의 시
- 2부 꿈을 위한 몸부림
  –정신분석을 바탕으로 방황하는 이들에게 삶의 자세와 가치를 찾아 주는 시

삶을 나르는 시

강남국/등대지기/12,000원

어렵지 않고, 사람 삶 얹혀 있고, 마음 위로해 줘야 하는 시를 골랐습니다. 처음으로 그렇게 좋은 시를 만났다고, 시 읽는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됐다고도 하십니다. 너무 긴 장시, 처음에 읽었을 때 이해가 쉽지 않다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시를 읽지 않는 시대라지만 좋은 시는 영혼의 호흡이며 생명입니다.

–엮은이의 말 중에서

「나눔 속에 핀 꽃」, 「아버지의 손과 지게」의 저자가 펴낸 신작. 동서양을 대표하는 시인들의 작품과 함께 저자의 에세이를 함께 실었다.

- 제1부 수선화에게 채송화 꽃처럼
- 제2부 시래기가 된 시
- 제3부 네 영혼이 아름답다는 칭찬만은
- 제4부 잔디에게 덜 미안한 날
- 제5부 햇살에게 묻는 안부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50 2019-08-26 오전 10:48: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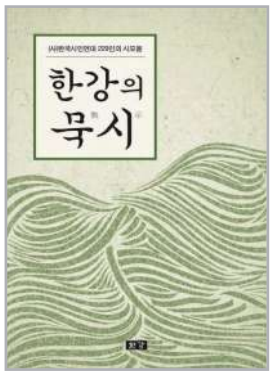
엄마의 눈

이계옥/천우/10,000원

우리 엄마/ 엄지 검지 중지로/ 노래하지요//
우리 엄마/ 손끝으로/ 노래하지요//
우리 엄마/ 따뜻한 손길/ 눈이 되어 주지요.
–표제작 〈엄마의 눈〉 전문

중도에 시각장애인이 된 어머니를 간병하며 시를 썼던 시인은 『문학세계』 등단, 『솟대문학』 추천완료, 세계문학상 동시 대상을 받았다. 세계문학상 수상 기념 동시집.

- 1부 엄마의 눈
- 2부 소경이 나를 인도했네
- 3부 할미의 퇴근길
- 4부 오동나무 지팡이
- 해설 신앙심 위에 세워진 삶의 편린



한강의 묵시

한국시인연대 229인/한강/38,000원

이 민족의 한/ 아리랑으로 노래합니다//
나라가 문을 연 후/ 구백 번 넘게/ 침략을 받았습니다//
북쪽 떼놈들이 몰려오면/ 남으로 도망다녔고/ 바다 건너 왜놈들이 쳐들어올 땐/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중략–

아리랑 아리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어려운 삶에/ 행여/ 님이/ 처자(妻子)를 버릴까 봐/ 아내들은/ 그렇게 불렀답니다.
–강봉환 작, 본문 〈한〉 중에서

한국시인연대 229인의 시 모음집.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51 2019-08-26 오전 10:48:48

유리구슬마다 꿈으로 서다

김민/문학세계사/8,000원

2001년『세계의 문학』에 '자벌레' 외 4편을 발표하며 등단한 시인은 자유와 저항정신의 대표적 참여시인 김수영(1921-1968) 시인의 시를 읽으며 시심을 키웠다. 시인의 시는 '내부에서 들끓는 다변(多辯)의 유혹을 물리친 지점에 섰을 때에야 발화 가능한 시적 형식'이라고 평가받는다. 짧지만 깊고 강한, 함축적인 일행시로 쓰여진 시인의 또 다른 시집에「길에서 만난 나무늘보」가 있다.

1. 창문에 매달린 저 먼지들도 한때는
2. 접시 바닥같이 얕은 슬픔
3. 다정도 병인 양하여

당신 내 아버지의 이름 곁으로

진형곤/한빛/값 13,000원

박토에 처박힌 채 헝클어져 울고 있습니다

뒤늦은 삶이지만
거칠고 무모한
가시풀
내 삶의 거기서 희망을 두르고 있습니다
–본문 〈가시풀〉 전문

『한국시』 신인상,『춘추수필』 신인상으로 등단한 저자가 뇌졸중 투병 가운데 펴낸 네 번째 시집.

내 삶을 닦아 낼 도구가 있다면 그렇듯 닦아 내고 싶은데 운명의 끈은 단단히 묶여 있어서 닦을 수 없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시로 엮게 되었다.
–서문 중에서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52 2019-08-26 오전 10:48:48

배범준
〈첼로 독주회〉

2019. 07. 06.
세라믹팔레스홀

드림위드앙상블
〈제4회 정기연주회〉

2019. 07. 19.
예술의 전당 IBK챔버홀

최 준
〈적벽가〉 발표회

2019. 07. 25.
서울남산국악당

(사)빛된소리글로벌예술협회
〈고요 속의 대화〉

2019. 06. 26.~06. 30.
이음센터 전시실

한국장애인서예협회
〈대한민국장애인서예대전〉

2019. 07. 22.
이음센터 전시실

제1회 오티즘엑스포

2019. 07. 12.~07. 13.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장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53 2019-08-26 오전 10:49:02

한국서예대전 대상 수상한 이봉화 작가

한국서예교류협회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주최한 제4회 한국서예대전에서 청각장애 서예가 이봉화 님이 대상을 수상하여 화제가 되었다. 올 공모전에는 174점이 출품되어 대상 1점, 우수상 1점, 특선 10점, 입선 31점 등 모두 43명의 입상자를 냈다.

대상으로 뽑힌 이봉화 작품은 한글 부문의 '독립의 물결'로 장법, 결구, 필획의 완성도 및 창의성과 정통성, 작품에 임하는 충실성이 돋보인 작품이란 평가를 받았다. 이봉화 작가는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 추천작가, 전라북도서예대전 초대작가, 대한민국현대서예문인화대전 초대작가, 한국청각장애인미술협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봉화 작가는 '늦은 나이에 시작했지만 23년 동안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예술을 통해 삶의 희로애락을 느끼면서 청각장애인인 내가 세상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소통의 통로이자 삶이었고 자존심이었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54 2019-08-26 오전 10:49:02

제4회 이음가요제 성료

척수장애인 김형회 씨가 지난 6월 26일 이음센터에서 열린 빛된소리글로벌예술협회 주최 제4회 이음가요제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다이빙사고로 척수장애인이 된 김형회 씨는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노래하는 방법을 착안해 피나는 연습으로 이번 가요제를 준비했다.

또한 국가대표 휠체어 댄서 김남제 씨가 금상을 수상했으며, '엄지공주'라는 이름으로 유명했던 윤선아 씨가 장려상을 받았다.

그 외에도 이번 이음가요제를 통해 입상한 6명 모두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의 정단원의 자격이 부여되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디지털 싱글 앨범의 기회가 부상으로 주어지게 된다.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55 2019-08-26 오전 10:49:03

미스 휠체어 USA 델프의 아름다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인 델프가 2017년 '미스 휠체어 USA' 왕관의 주인공이 된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미스 휠체어 USA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미인대회로 2005년 시작됐다. 외적 아름다움도 평가 요소이지만, 신체적 아름다움보다 역경을 딛고 얼마나 사회에 기여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델프는 미모는 물론 장애인 후원 비영리단체 설립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미스 휠체어 USA에 선정되었다.

델프는 2004년 2월 어머니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척수 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그녀는 그때 겨우 열 살이었다. 델프는 2017년에 외국어와 경영학사 학위를 취득하며 장애인 교육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사업을 펴고 있다. 델프는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든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번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며 장애인 교육용 비디오 제작에 대한 비전을 밝혔다.

델프는 올 연말 개최되는 미스 노스캐롤라이나 대회에 참가해 멋진 도전을 보여 줄 예정이다.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56 2019-08-26 오전 10:49:04

미국 토니상 여우조연상 휠체어뮤지컬 배우 알리 수상

휠체어 뮤지컬배우 알리 스트로커가 73회 토니상 뮤지컬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다. 여우조연상 수상자로 호명되어 무대 위에 오른 알리는 노란색 드레스 차림으로 단상에 올랐는데 그녀가 상을 받는 순간 참석자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토니상은 연극과 뮤지컬계의 아카데미상이라고 할 정도의 명망 있는 상인데 알리는 최근 〈오클라호마〉라는 작품에서 휠체어를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노래하는 강렬한 연기를 선보여 화제가 되었었다.

알리는 미국 뉴저지에서 출생했으며 2세 때 당한 교통사고로 휠체어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7세 때 가족들과 함께 우연히 뮤지컬을 보고 배우의 꿈을 꾸었다. 알리는 뉴욕대학에서 연기를 전공했지만 휠체어를 사용하는 배우가 브로드웨이 무대에 서는 것은 쉽지 않았다. 작은 역할이라도 쉬지 않고 활동하던 알리는 2015년 〈봄을 깨우다〉로 뮤지컬 무대에 오르면서 배우로서 조명을 받게 되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이것이 알리의 수상 소감인데 그녀가 장애예술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장애예술인들에게 얼마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57 2019-08-26 오전 10:49:05

단체 사진

축하객

여성장애인 만화가 이해경,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장 취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제9대 이사장 이해경 작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제9대 이사장으로 이해경 작가를 선임하였는데 최초 여성인데다 장애인 최초여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7월 15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임됐다. 임기는 2021년까지 2년간이다. 8월 2일 취임식에서 이 이사장은 "많은 만화계 선배, 후배, 동료들이 일궈 놓은 한국 만화계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더 값진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해경 이사장은 소아마비로 인한 지체장애로 휠체어를 사용하는데 14세에 만화를 시작하여 창작 활동은 물론 명지대학교 만화창작학과에서 강의를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2005년 한국만화가협회 오늘의 우리 만화상 수상, 다수 매체의 만화 연재, 만화집 「천로역정」, 에세이 「잠들지 못하는 여자」 등 다수의 작품이 있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대표는 '편견 없이 인물로 선임해 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회의 장애 감수성에 경의를 표한다.'고 하면서 '이번 이해경 이사장의 선임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예술인의 위상이 이토록 높아지고 있기에 장애예술인지원법률도 제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장애예술인계의 경사'라고 큰 의미를 두었다.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58 2019-08-26 오전 10:49:06

한국장애예술인협회(방귀희 회장)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신종철 원장) 업무협약식

장애예술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

한국장애예술인협회(방귀희 회장)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신종철 원장)은 상호간의 발전을 도모하고 만화영상진흥과 장애인예술 창작 활성화를 위하여 7월 23일 오전 11시 만화영상진흥원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형식적인 MOU가 아닌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협약식 전에 이미 2019 장애인예술 세미나로 '장애예술인 일자리 만들기'를 준비하여 오는 8월 17일(토) 오후 2시~4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5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기조발표는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회장이자 숭실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인 방귀희 박사가 장애예술인후원고용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주제발표에 최지현(화가, 휠체어), 김용우(무용가, 휠체어) 한국만화인협동조합 조재호 이사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기업혁신성장센터 김현종 센터장이 각각의 분야에 대한 실태와 방안을 제시하고, 발달장애화가 자녀를 둔 엄마인 김은정 씨 등이 토론에 참여하게 된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장애청년웹툰아카데미를 진행하며 웹툰이 장애인의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는 1만 장애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MOU로 큰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59 2019-08-26 오전 10:49:07

제2회 이원형어워드 수상자 물감화가 김재호

캐나다에 거주하는 조각가 이원형 씨가 고국 장애미술인의 창작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해 '이원형어워드'를 제정하여 올해 제2회를 맞이하였다.

이원형 작가는 한국에서 활동하다가 46년 전 고국을 떠나 미국을 거쳐 캐나다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세계적인 조각가로서 자리를 굳혔다.

이 작가는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한 장애를 갖고 있는데 조각가로 성공하여 캐나다 오케드대학 등 3곳과 멕시코대학 1곳에 이원형어워드를 시상하여 신진 작가들에게 큰 격려가 되고 있다.

이원형어워드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장애예술인협회는 올해부터 더 많은 작가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공모 형식으로 바꾸었는데 10여 명이 응모하여 최종심에 3명의 작가가 올라와 경합을 벌인 끝에 김재호 작가가 선정되었다.

김재호 작가는(40세) 유년기에 가족들과 헤어져 시설(주몽재활원)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미술에 대한 재능을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60 2019-08-26 오전 10:49:11

발견한 시설 생활 교사가 미술 선생님(화사랑)을 소개해 주어 전문적인 지도를 받았고, 한국재활복지대학(한국복지대학교) 애니메이션과를 졸업하였다. 2005년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에서 특선을 하며 데뷔하였고, 6년간 잠실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로 활발한 창작 활동을 하여 지금까지 개인전만 7회 개최하였다.

수상 소식을 전하자 김재호 작가는 '작년 이맘때 문승현 작가가 제1회 이원형어워드를 수상한 소식을 접하고 저도 그 상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소망으로 응모를 했지만 저에게 기회가 올까 싶었는데 막상 현실이 되니 화가로서 인정을 받은 것이 정말 뿌듯하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 '물감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물감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 6월 중국에서 개최한 국제아트심포지움에 참석했다가 잠시 고국에 들른 이원형 화백은 이원형어워드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한 해 한 해 재능있는 작가들이 발굴되어 전시회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성공한 선배 작가가 후배를 격려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원형어워드는 심사위원도 선배작가로 구성하고 시상식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눈길을 끈다. 상패와 상금 100만 원을 전달하였다.

- 심사위원: 고민숙(한국장애인미술협회 대표), 김영빈(서양화가), 문은주(서양화가)
- 최종심 후보: 김은지, 김재호, 한부열(가나다 순)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61 2019-08-26 오전 10:49:11

장관간담회

박양우 장관 '장애예술인 전용 공연장 2022년 건립 추진'

장애예술인 지원법 제정 추진…각종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박 장관은 지난 8월 2일 서울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열린 '장애인예술단체 간담회'에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은 문화국가를 실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장애예술인 전용 공연장 건립을 2022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장애예술인은 6천여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1천 500여 명이 예술인으로 등록됐다. 하지만 아직 장애예술인의 예술 창작을 위한 별도 시설이나 공간이 없어, 전용 공연장 건립은 장애예술인들의 숙원이다.

박 장관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장애예술인 지원법 제정에도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있어 가장 좋은 정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공연장, 전시공간 등 각종 문화시설을 장애인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장애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및 발표를 위한 공간 확충과 일자리 지원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62 2019-08-26 오전 10:49:12

2019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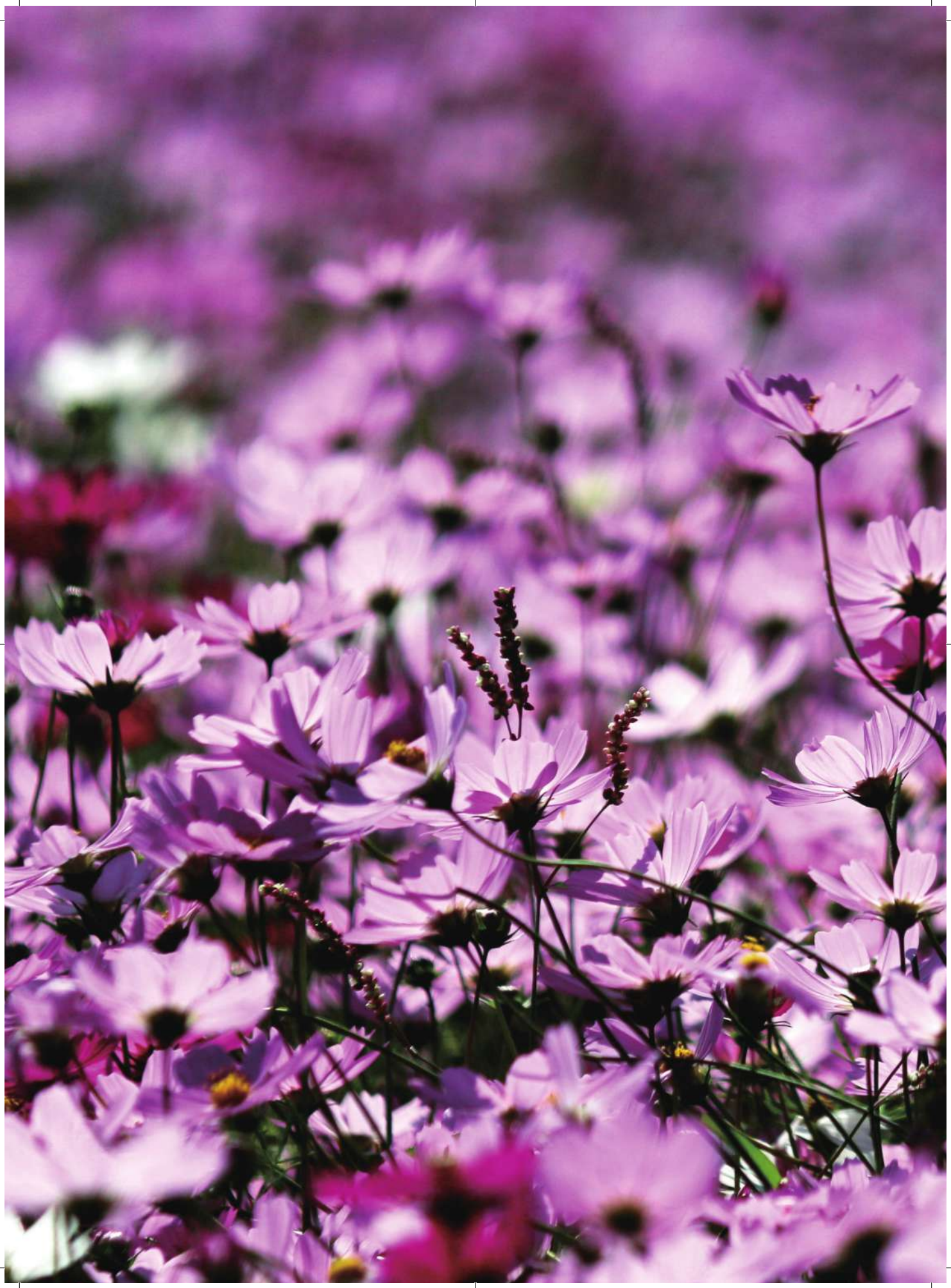
사단법인 빛소리친구들 주최로 8월 6일부터 11일까지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과 소극장에서 제4회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2019 4th Korea International Disabled Dance Festival:KIADA)가 열렸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팀 3팀과 기획작 4팀, 그리고 독일, 아르헨티나, 스페인, 일본, 쿠바 등 해외팀이 공연을 펼쳤다.

KIADA는 본 공연뿐만 아니라 오프닝 세레모니, 클로징 세레모니, 사진전을 진행하여 장애인무용 장르가 국제적으로 교류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KIADA를 통해 장애인무용의 가치를 공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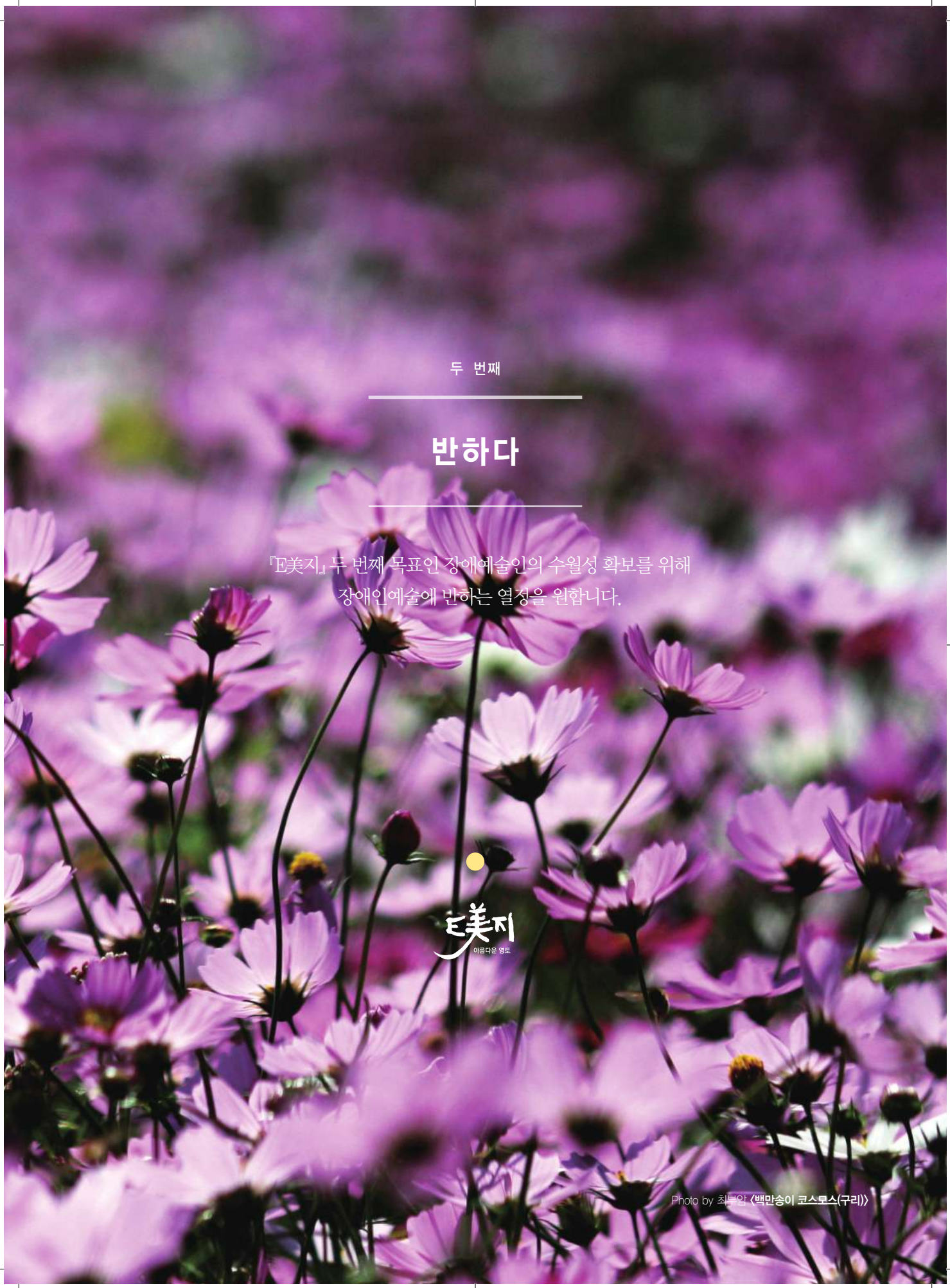
KIADA2019 개막작으로 오른 뇌병변장애 무용수 강성국의 작품 〈곧은 묵지〉는 큰 화제를 모았다.

안무가	강성국 1. 온몸컴퍼니 대표 2. 'Keep going', 'Oh! Baby', '눈이 가는 길' 연출 및 출연 3. 국내외 190여 회 공연
작품명	곧은 묵지
구분	현대무용
작품 참여	**강성국**(뇌병변 무용가) / **김완혁**(지체장애 무용가) / **양길호**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63 2019-08-26 오전 10:49:30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64 2019-08-26 오전 10:49:35



두 번째

반하다

『E美지』 두 번째 목표인 장애예술인의 수월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예술에 반하는 열정을 원합니다.

E美지
아름다운 영토

Photo by 최부안 〈백만송이 코스모스(구리)〉

문학

일행시로 긴 여운을 주는

김민 시인

 # 주요 경력

1968년 서울 출생
1991년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졸업
2001년 『세계의 문학』 통권 101호에 〈자벌레〉 외 4편 발표하며 등단
2007년 첫 시집 「길에서 만난 나무늘보」(민음사) 출간
2017년 두 번째 시집 「유리구슬마다 꿈으로 서다」(문학세계사) 출간
2017년 하반기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도서 「유리구슬마다 꿈으로 서다」 시 부문 선정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66 2019-08-26 오전 10:49:43

구상솟대문학상운영위원회(김초혜 위원장)는 심사위원 세 분(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이승하 교수, 안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맹문재 교수, 숭실사이버대학교 방송문예창작학과 허혜정 교수)의 만장일치로 김민 시인을 2019년 구상솟대문학상 수상자로 선정 발표하였다.

심사평을 쓴 이승하 교수는 '김민의 시는 촌철살인과 정문일침(頂門一鍼)을 주면서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들어오는 시로 확실한 메시지가 있고 선명한 이미지가 있다. 대상을 예리하게 관철하여 언어(시)로 포착하는 직관이 놀랍다. 상대적으로 긴 시 〈심부름하는 아이〉는 생명 탄생의 비극성을 극복하려는 피눈물 나는 노력이 엿보인다. 어머니와의 대화체로 진행이 됨으로서 우화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섬뜩한 충격과 뻐근한 감동을 준다.'며 그의 시가 범상치 않다고 감탄하였다.

김민 시인은 수상 소감을 다음과 같이 보내왔다.

– 그 흔한 개근상조차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상복이 이생에서는 없는 팔자라 생각했지요. 아니, 한 편 한 편 퇴고하게 되는 시들이 상이라 여기며 지내왔습니다. 모든 작가분이 그러시겠지만 짧든 길든 쉽게 쓰이는 시는 세상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구상 선생님 탄생 100주년을 맞아 '진짜' 상을 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생전의 인품과 뜻을 더욱 깊이 기리게 되는 해인 만큼 심사위원분들께서 저를 선정해 주신 데에는 구상 선생님의 굽어살핌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만하거나 우쭐대지 않고, 구도자의 길을 가셨던 선생님의 시적 자취를 부지런히 따라가겠습니다.

이 모든 감사함을 모아 쥐고 늦지 않게 왜관의 구상 선생님 문학관에 다녀올까 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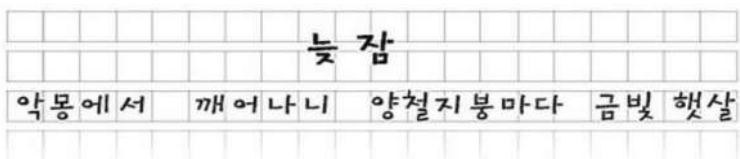
김민 시인이 33세에 문단에 데뷔했을 때 화제가 된 것은 일행시라는 독특한 시형(詩形)이 눈길을 끌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뇌성마비 장애를 갖고 문단의 높은 벽을 넘었다는 사실이 그 당시로서는 흔치 않아서였다. 게다가 1960년대 자유와 저항정신의 대표적인 참여시인 김수영(1921~1968) 시인의 조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그는 김수영 시인이 작고한 후 불과 4개월 후에 태어났으며,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68 2019-08-26 오전 10:49:45

실제로 큰아버지 김수영의 시를 읽으며 시심을 키워 왔다. 어릴 적 살던 도봉동 집 뒷산에 있던 큰아버지의 시 〈풀〉이 새겨진 시비(詩碑)에 자주 놀러가곤 했다. 첫 시집 「길에서 만난 나무늘보」의 시평을 써 준 문학평론가 김종회(경희대 교수)님은 김민의 시에 대해 '내부에서 들끓는 다변(多辯)의 유혹을 물리친 지점에 섰을 때에야 발화 가능한 시적 형식'이라고 평가하였고, 두 번째 시집 「유리구슬마다 꿈으로 서다」의 해설을 쓴 문학평론가 이경수 님은 '김민 시인이 그려내는 유년의 기억은 내가 잃어버린 한 시절을 불러와 그날의 안부를 묻곤하여 때늦은 답장이라도 해야 할 것만 같다.'고 고백하였다.

이렇듯 김민은 문단에서 주목하고 있는 시인임에 분명하다. 일부러 신비주의를 택한 것은 아니지만 뇌성마비로 언어장애도 있고, 2007년부터 소리를 잃어 김민 시인과의 인터뷰는 여동생과 소통하며 서면으로 이루어졌다.

일행시라는 새로운 시 형식을 구축하였다. 일행시가 탄생한 배경은.



'한줄시'라는 것이 형식으로만 본다면 저만의 독특한 시형은 아니죠.

일본 시가(詩歌) 하이쿠까지 가지 않더라도 많은 시인들의 시집 속에 간간이 있었고 고(故) 박희진 시인께서는 제목조차 없는 1행시집도 내셨었으니까요.

그런 만큼 처음부터 작정하고 한줄시를 써야겠다고 한 건 아니었어요.

대학 2학년 때 학과 내 '변성기'라는 시동인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미지 시를 좋아해서 주로 이미지에 천착한 습작을 썼었지요. 졸업 이후로는 일기 대신 일상시를 썼습니다.

1996년부터 PC통신 하이텔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동호회에 가입해서 활동했던 것이 손을 놓지 않고 습작 활동을 이어 갈 수 있는 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사랑 활동 시기에 1997년도인가, 1998년도에 『솟대문학』에 응모해 보라는 권유를 받고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69 2019-08-26 오전 10:49:46

는 했었는데 실력이 안 돼서 도전해 볼 용기를 내지 못했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러다 계기가 생겨서 1999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문학학교 최승호 시인반 수업을 수강하게 됐고, 이야기 시, 그로테스크 시, 동시풍 시 등 여러 시형을 시도하며 형식과 내용에 대한 저만의 시 세계관을 찾으려는 길에서 헤맬 때 '한줄시 써 보지 않을래?' 하시는 최승호 선생님의 권유를 마지막 수업 때 받았었어요. 그때 저에게 딱 맞는 옷을 찾아낸 느낌이었습니다.

일행시 시작(詩作) 과정은 어떨지 궁금하다.

한줄시 시작(詩作)은 대체로 세 가지 방법으로 씁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일반적인 시형으로 시를 쓴 뒤 늘어진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지워 나가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한줄시로 쓰는 경우인데 빈도수가 높지는 않지만, 퍼뜩 이미지가 떠오를 때 주로 쓰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메모나 습작으로 놔두었던 것들에서 부분 부분 따와서 짜맞추는 방법입니다, 레고 놀이하듯이요.

그렇지만 퇴고 작업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 세 가지 방법이 전부 동원됩니다.

데뷔는 2001년, 첫 시집은 2007년, 두 번째 시집 출간은 2017년 다소 느리다는 생각이 든다. 느림의 철학을 갖고 있는지.

느림의 철학이 아니라 진짜 느려요. 그래서 별명이 거북이였던 때도 있었지요. 나무늘보라고 저 자신을 생각하게 된 것도 그래서 나오게 된 거고요.

처음에는 초고 상태로 일단 계속 모아 둡니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일단 모아가다 보면 기간이 4~5년 걸립니다.

그러다 '이제 수정 작업 들어가야겠다.' 하고 느껴지는 때가 오면 수정 작업 들어가서 퇴고하는 기간이 또 1~2년, 길게는 3~4년 걸리고요.

어떤 때는 수정 작업 중에 전부 엎어 버리고 다시 새로 시작하다시피 할 때도 있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70 2019-08-26 오전 10:49:46

었고, 다른 시인의 시집에 실린 시들과 유사한 이미지나 내용인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도 빼버리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기간이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제 시작(詩作)의 기본자세는 '수정(修訂)만이 살길이다.'입니다. 시집 내고 싶다는 생각보다 조금이라도 더 완벽하게 퇴고하고 싶다는 생각이 앞서니까요.

시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된 계기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미대 가고 싶다는 생각만 했었어요.

일단 오른손을 못 쓰는 데다 왼손으로 쓰는 글씨조차도 너무 오래 걸려서 글 쓰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진학 문제가 눈앞에 닥치고 보니 현실적으로 국문과 말고는 지원할 곳이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곡절 끝에 국어교육과에 입학하고 나서도 딱히 시 창작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김수영이 큰아버지라는 것이 알려지고 나니 학과 내 시동인 '변성기'에서 시 써 보지 않겠느냐고 계속 권유해 왔고, 결국 2학년 올라갈 때 '변성기'에 합류하면서 시 창작을 시작하게 됐지요. 이때부터 시 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미대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림에도 소질이 많은 듯하다.

제가 처음 습작을 하기 시작하면서 빠져든 것이 이미지 시였어요.

화가는 포기했지만 그림 그리고 싶다는 욕망이 이미지 시 습작으로 나타난 듯합니다.

그러고 보니 '변성기'에선 매년 봄축제 때 시화전을 열었었는데 준비 기간에 그림 그리겠다고 나서는 동인들이 거의 없어서 제가 도맡아서 그리기도 했었습니다.

"시 쓰기는 내면의 캔버스에 낱말로 그리는 작업이다." 한국문학학교 수업 중에 최승호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던 말씀이었죠. 이 가르침을 받으면서 못 이룬 오랜 꿈과 저의 현실을 씨실 날실로 엮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적 정체성을 다시금 찾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합니다.

그림은 요즘도 가끔 낙서 삼아 그리는 정도로 즐깁니다.

대학에서 국어교육을 전공하였는데 사범대학을 택한 이유는 혹시 교사가 되려고.

제가 대학 들어갈 때의 대입 전형은 1지망, 2지망, 3지망 지원해서 1지망 탈락하면 2지망에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71 2019-08-26 오전 10:49:46

1969년 도봉동 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1978년 어느 낚시터

1982년 사촌동생과 함께

1987년 도봉동 집

1987년 신일고 졸업식

1987년 동국대 국교과 엠티

1998년 서재에서

2001년 등단 후 중국 서안

2007년 첫 시집 출간 후 김장호 시인 묘소

자동으로 지원되고 그랬죠. 전 1지망에 국문과를 지원했었습니다.

장애가 있어서 교사 되는 것이 어렵다는 건 알았지만 만약에 국문과에서 떨어지면 배우는 것도 비슷하고 국문과 수업도 전공으로 인정되는 국어교육과로 2지망을 정하게 된 거였어요. 결국, 국문과에서 떨어지고 국어교육과에 붙는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교사가 되기 위해 국어교육과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학 다니면서는 교육학은 최저 이수로만 수강하고 주로 국문과 수업을 수강했었어요.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72 2019-08-26 오전 10:49:58

대학생활은 어떠했는지. 당시는 장애인이 고등교육을 받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국교과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국문과 교수님들도 저를 많이 배려해 주셔서 학교생활에 그다지 큰 어려움은 느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배들과 동기들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으로 대해 줬어요.

'변성기' 가입 이후부터는 수업 이외의 시간은 매주 한 번 하던 합평회 준비하느라 습작하면서 시집 읽는 데에 보냈지요.

봄축제 기간엔 시화전 열고, 여름방학 중엔 동인시집 내는 준비하고, 가을엔 동인시집 내고, 겨울방학 땐 다음 학기 기성 시인들의 시집 합평회 일정 짜는 일에 참여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4학년 때까지 반복하다 졸업하게 됐죠.

교생실습 때에도 원래는 수업 참관만 하기로 돼 있었는데 반마다 1차시씩 시 수업 맡아서 해보라고 담당 담임께서 배정을 해 주셔서 김소월 시인의 〈엄마야 누나야〉를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데뷔 작품도 일행시였는가.

계간『세계의 문학』2001년도 가을호에 〈자벌레〉 외 4편, 총 다섯 편이 실리면서 등단했는데 모두 한줄시였습니다.

2000년 봄부터 한줄시 위주로 쓰기 시작했던 데다가 한줄시 말고는 대부분 습작 수준이어서 한줄시로 등단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인으로 산다는 것은?

소설가, 음악가, 화가 등등 예술하는 사람을 일컫는 낱말에는 대부분 '가(家)'라는 칭호가 붙는 데 비해서 시인에게는 '인(人)'이 붙어 있잖아요?

이것은 시인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도 될 수 있겠지만 세상이 시인을 바라보는 잣대가 되기도 하겠지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요. 즉 먼저 사람이 되라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 해답이 김수영의 산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이 없다는 것은 현대성보다도 사상보다도 백배나 더 중요한 일이다."

—「요동(搖動)하는 포즈들」 중에서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73 2019-08-26 오전 10:49:58

이것은 제 시 쓰기의 출발점이기도 해요.

잘 쓰고 못 쓰고, 유명하고 아니고, 시집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 이전에 정직하게 시를 쓰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시인의 의무라고 봅니다.

장애가 자신의 작품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가.

그거야 당연하지요. 그렇지만 장애에 따른 부자유, 비애 등을 많이 드러내어 표현하지는 않으려 했어요.

회화에 대한 초심자가 운보 김기창 화백의 작품을 처음 접했다고 가정해 본다면 '이거 장애인 화가가 그린 그림인 것이 느껴진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림에 대한 느낌이 좋아서 누구 작품인지 알아보게 된다면 김기창 화백의 그림임을 알게 될 것이고, 청각장애인이라는 것도 더불어 알게 되겠죠.

그러나 그 후에 다시금 김기창 화백의 또 다른 작품과 마주했다 하더라도 '이게 장애인 화가가 그려서 그림이 이렇구먼.' 하고 생각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물론, 장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로는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아픔의 흔적이 그림에서 보일지도 모를 일이지만, 그것은 김기창 화백의 작품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는 '또 하나의 새로 생긴 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겁니다.

저는 저의 시들도 김기창 화백의 작품처럼 존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요즘은 보청기를 사용한다고 들었다. 소리의 세계에서 멀어지고 나서 생긴 변화가 있다면.

어릴 때부터 청력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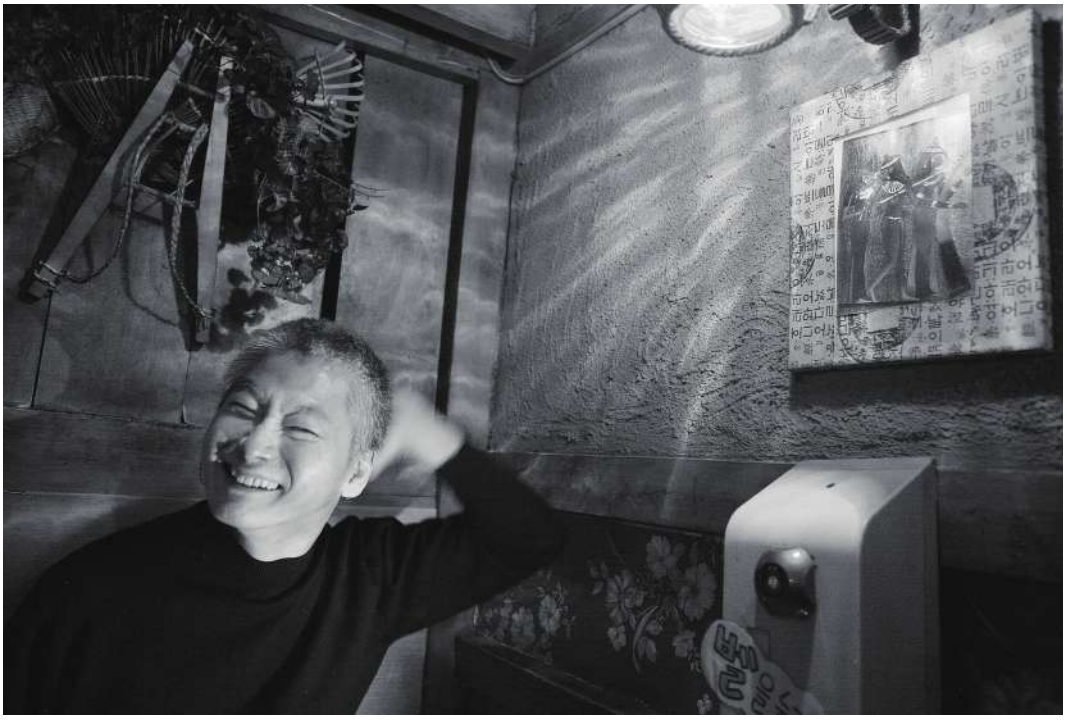
그나마도 등단하던 2001년에 왼쪽 귀가 전혀 안 들리더니 첫 시집 내던 2007년엔 오른쪽 귀까지 아예 안 들리게 되어서 청각장애 진단을 받아 2009년부터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었죠.

병원 진단으로는 고막에는 이상이 없다고 스트레스성 난청이라는데 이명이 끊이질 않아서 보청기를 착용하든 안 하든 늘 전철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무튼, 일상에서 전화 음성통화 대신 문자나 인터넷 메신저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 것과 사람 만나는 약속을 잘 안 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인 듯해요.

그래도 편해진 부분도 있어요. 주위가 시끄러운 곳에 있게 되거나 할 때 보청기를 빼고 있으면 이명 소리 말고는 조용해지거든요. 이거, 진짜 좋습니다.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74 2019-08-26 오전 10:49:58



2012년 의정부

앞으로의 계획은.

2017년에 두 번째 시집을 출간하고 나니 습작이나 메모로라도 남아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또다시 초고 만들어 가야죠, 또 언젠가 수정 작업 들어가야 하겠고요.

한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줄이면서도 평온하고 쉬운 시가 나와 줬으면 합니다.

시집 출간 욕심부려서 수준 미달의 시를 내보이려 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시를 쓰려고 합니다, 단 한 편만 남게 될지라도요. 변변찮은 재주조차 없는 저로서는 역시 수정만이 살길인가 봅니다. 그러다 보면 세 번째 시집이 어느 순간 나와 있지 않을까요?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75 2019-08-26 오전 10:50:01

김민 대표작

자화상 4

죽음을 주우러 다니는 넝마주이

흑백사진

그 속에선 내 오랜 철없음도 바래기를

전생

미풍에도 휘청거리는 걸 보니 아무래도
나는 허수아비였던 모양

마음의 감옥

갈비뼈가 철창으로 질러지는 소리 겨울
산까지 터엉터엉 울렸습니다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76 2019-08-26 오전 10:50:02

								바	다	거	북							
이		길	에	선		언	제	나		길		잃	은		아	이		냄	새
가		납	니	다															

								정	월	대	보	름						
등	이		굽	어	지	고		굽	어	지	다		둥	글	게		말	려	
버	린		노	파	여														

									과	꽃								
당	신		떠	난		다	음		해	에	야		비	로	소		슬	픔	이
대	문	가	에	서		손		흔	들	었	네								

				무	궁	화	꽃	이		피	었	습	니	다				
모	퉁	이		돌	아	보	면		앞	니		빠	진		유	년	들	도	
걸	려		있	을		것	만		같	습	니	다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77 2019-08-26 오전 10:50:02

						쌍	계	사		벚	꽃	길							
저	어	기		소	실	점		이	르	러		미	륵		안		계	신	들
어	떠	리																	

					살	구	나	무		있	는		마	당					
풍	금		위		흔	들	리	는		꽃	잎		그	림	자	를		노	을
이		다		질		때	까	지		눈	으	로		따	라	다	니	다	
뱀	처	럼		놓	인		길		저	만	치	서		걸	어	오	는		
적	막	에		퍼	뜩		놀	라		일	어	나	면		꽃	밭		사	이
두	더	지		굴	로		마	악		들	어	가	는		어	린		날	의
꼬	리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78 2019-08-26 오전 10:50:03

심부름하는 아이

1
텃밭 사이 지름길로 오다가 발을 빠뜨렸지 뭐예요
그래서 그냥 심어 놓고 왔어요

그래서 늦었구나, 얘야
솥뚜껑 좀 닫아 주지 않겠니?

예, 알겠어요
무엇이든 닫아 버리는 일은 제 몫이니까요
그런데 뚜껑은 어디 있어요?

곰쥐 떼가 몰려온다는구나

안에 들은 이건 대체 뭐죠?
처음 맡아 보는 냄새예요

너의 탯줄로 만든 순대란다
맛 좀 봐 주련?

칼을 가져오려무나

칼은 제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될까요?
웃자란 발가락을 솎아 내야 하거든요
참, 그것들도 같이 찌면 좋겠네요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79 2019-08-26 오전 10:50:03

이제부터는 네가 찜솥을 맡아도 되겠구나
뚜껑은 찾았니, 얘야

이제 뚜껑은 찾을 필요가 없어요
제 몸을 통째로 넣을 거니까요

곰쥐 떼가 몰려오고 있질 않니

곰쥐는 저처럼 질긴 상처는 먹지 않는대요
그러니 아무 걱정 마세요
어머니

2
날이 궂으니 솜틀집에 눈물샘 좀 맡기고 오려무나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80 2019-08-26 오전 10:50:06

미술

구 필 화 가

김영수 이야기

 # 개인전

1995 제1회 나무화랑(서울), 갤러리 그림시(수원)
1999 제2회 경인미술관(서울)
2004 제3회 인사갤러리(서울)
2006 제4회 정글북아트갤러리(일산)
2008 제5회 소울음갤러리(안양), 잠실창작공간갤러리(서울)

 # 단체전

구족화가 정기전
선사랑드로잉회 정기전
일어서는 사람들 정기전
국제누드드로잉전
한국크로키회 정기전
새로운 바람 정기전
제2회 광주비엔날레-여백의 한자리전
우수 드로잉작가 초대전
한국드로잉50년 초대전
우수 드로잉작가 초대전(오사카)
세계구족화가협회전(오스트리아 빈, 리스본, 포르투갈)
한·중·일 장애작가 초대전(후쿠오카, 일본)
Overcome Artists(L.A.한국문화원갤러리, 미국)
한중교류전 등 국내외전 200여 회

 # 현재

세계구족화가협회 회원
종로장애인복지관미술교육 강사
경기도장애인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 수상

2015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 대상 등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81 2019-08-26 오전 10:50:07

남해에서

1973년 대학 1년(왼쪽)

1975년 대학 3년(왼쪽)

서막

김영수는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재학 시절 검도 동아리 활동을 하였다. 검도는 냉철한 판단력과 재빠른 동작 그리고 대담한 정신력을 요구하면서도 예절을 지키는 아주 신사적인 경기여서 그는 대학 시절 소위 킹카로 통했다. 대학에 들어가서 몸이 약해졌는데 운동량이 부족한 탓인 것 같아 대학 2학년 때 검도를 시작하였다. 검도 승단 심사를 앞두고 합숙훈련을 했다. 그런데 감기에 걸린 것처럼 고열과 함께 편도선염을 심하게 앓았다. 얼마 후 기력은 돌아왔으나 빠진 근육은 회복되지 않았고, 차츰 다른 부위의 근육도 조금씩 마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르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1977년 2월, 대학 졸업 후 종합검진을 받았다. 검사 결과 진행성 근육이영양증(근육병)이란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치료 방법이 없다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절망적인 처방을 내려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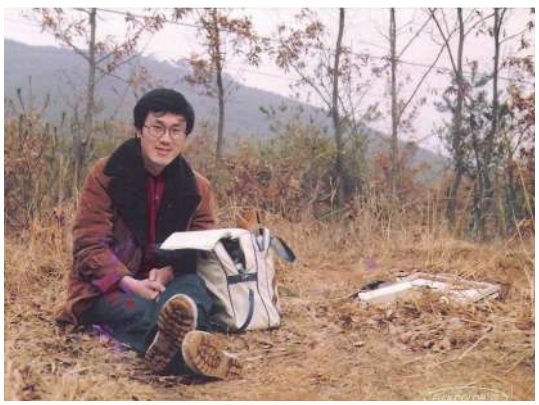
당시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다. 어떻게 걷지 못하게 된다는 건지, 어떻게 모든 기능이 마비되어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는 것인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의사가 치료를 못한다면 신앙으로 고쳐 보리라 생각하고 대학 1학년 때부터 봉사 활동을 하던 야학으로 거처를 옮겨 낮엔 기도 생활을 하고, 밤엔 야학 학생들을 가르치며 지냈다. 7개월 정도 지나자 그의 몸은 더욱 수척해졌다. 1년 전에 할 수 있었던 움직임을 1년 후에는 못하게 되는 식으로 몸에 이상이 생겼다. 그는 앞으로의 삶에 막연한 불안감은 있었지만 절망하거나 큰 슬픔에 빠지지는 않았다.

그는 병마와의 싸움이 장기전이 될 것 같아 취직부터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전공을 살려 건축설계회사에 입사했다. 그러나 직장생활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았고, 밤을 새우는 야근이 자주 있어서 과로를 하게 되었는데 조금만 피곤해도 후유증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83 2019-08-26 오전 10:50:08

이 여러 날 갔다.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지만 직장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무리였다.

새로운 선택



1979년 졸업 후 강화도 그림 스케치

그는 많은 생각 끝에 어려서부터 좋아하던 그림을 택하기로 했다. 직장에 사표를 내고 오전에는 그림을 배우고, 오후에는 남대문시장에 있는 누님의 옷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벌었다. 미래가 촉망되던 건축가의 암울한 현실이었다. 미국에 살고 있는 둘째 누나가 미국에 와서 치료를 받아 보라고 하여 미국행을 결심하였다. 왠지 미국에 가면 치료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치료받고 나으면 곧장 뉴욕으로 가서 미술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1982년 11월 말 남동생과 함께 미국으로 떠났다.

미국에 있는 유명한 병원 이곳저곳을 다녀 보았는데 근육병이 한국보다 훨씬 많았다. 그러나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기는 한국과 마찬가지였다. 그는 미국에서 3년 동안 이런저런 치료를 해 보다가 1985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옆에서 부축하고 겨우 걸을 수 있을 정도였다.

1990년에 들어서자 걷다가 힘없이 픽 쓰러져 안경이 깨지는 일이 다반사였다. 남동생이 휠체어를 타는 것이 좋겠다고 했지만 그는 휠체어를 거부했다. 휠체어에 타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이란 두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정말 두려운 것은 휠체어를 타면 그녀가 자신을 떠날 것 같았다는 이별의 예감이었다.

그런데 불길한 예감은 빗겨 가지 않았다. 10년 동안 사귀던 여자친구가 그만 헤어지자고 했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허탈했다. 어느 날 밤, 불도 켜지 않고 캄캄한 방에 혼자 누워서 허공을 응시하고 있다가 리모컨으로 TV를 켰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름다운 여성장애인이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었다. 그 장면이 상처 투성이로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하였다.

그는 자신도 한 번 해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연필을 입에 물고 주전자를 갖다 놓고 정물화를 그려 보았다. 힘들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수월했다. 붓을 드는 것이 힘들어서 그림마저 못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84 2019-08-26 오전 10:50:08

그리게 될 처지였지만 그렇게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구필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93년 세계구족화가협회에 가입하여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다시 찾아온 행복

3남 3녀의 다섯째인 그는 어렸을 때는 많은 형제들 속에서 살았지만 막상 휠체어 생활을 하며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어머니와 단 둘뿐이었다. 그의 주변에서 그를 돕는 사람들은 교인들이었다. 청년들이 집에 와서 성경공부를 하였는데 그 가운데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만났다.

간호사인 그녀는 김영수 장애에 대해 누구보다 이해가 깊었다. 그래서 그들의 사랑에 장애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들은 1991년 9월 결혼식을 올렸다. 현명한 부인 덕분에 김영수는 길고 긴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석창우 화백 등 초창기 미술협회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85 2019-08-26 오전 10:50:09

친구 부부와 부인

선사랑드로잉회 회원들

그는 작품 활동에 더 매진할 수 있었다. 1997년 인사동의 한 갤러리에서 공개크로키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호기심에 찾아갔다. 그곳에서 그는 화풍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한다. 마치 수술실의 의사처럼 진지하고 빠른 손놀림으로 새로운 형체를 만들어 가는 작가의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은 그는 누드크로키를 해 보자는 생각에 바로 문화센터에 다니기 시작하였는데 수강생 세 명으로 출발했지만 점차 줄어들더니 강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고민하던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86 2019-08-26 오전 10:50:15

그는 이참에 하나 만들자 싶어서 자신처럼 그림을 배우고 싶어하는 장애인들과 함께 국내 최초의 장애인 누드크로키 모임인 선사랑드로잉회를 만들게 되었다.

2000년 창립 당시 20여 명의 회원이 잠실 종합운동장 내의 서울장애인미술창작스튜디오에서 그림을 그리고 전시도 하며 모임을 가졌다. 선사랑드로잉회는 좋은 작가들이 모여 각자 개성 있는 작품 활동을 하며 화가로서 성장해 갔다.

화가로서

김영수는 1995년 첫 번째 전시회를 가졌다. 첫 전시회는 그림을 시작하며 그린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그 후에도 거의 1년에 한 차례씩 개인전을 개최하였으나 2008년 5회 개인전을 하고 나서는 개인전을 열지 못하였다.

개인전 준비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전시회 예산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모 사업에 지원을 해야 했는데 사업계획서를 쓰고 정산을 하는 일도 혼자서 해야 했고, 무엇보다 공모 사업 경쟁이 점점 높아져서 포기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전시회를 통해 작품이 소비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애인 작품이라고 하면 소장 가치가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품 판매가 저조하여 개인전을 열고 나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힘들었다.

그런 김영수가 제6회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10월 2일부터 8일까지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내게 남은 작은 어제와 오늘'이라는 타이틀로 열리는데 김영수 화백의 작품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그는 초창기에는 풍경화를 그리다가 추상화로 그리고 크로키를 시작한 후로는 크로키 작품이 많았고, 요즘은 구상풍의 작품을 그리고 있다. 작품 세계가 변화하며 성숙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작품 앞에서

화가로서 성장해 가면서 딸 유진이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 되었다. 아들에게 찾아온 근육병 때문에 마음고생을 가장 많이 하신 어머니는 99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아들을 보면 눈물을 훔치신다. 결혼 30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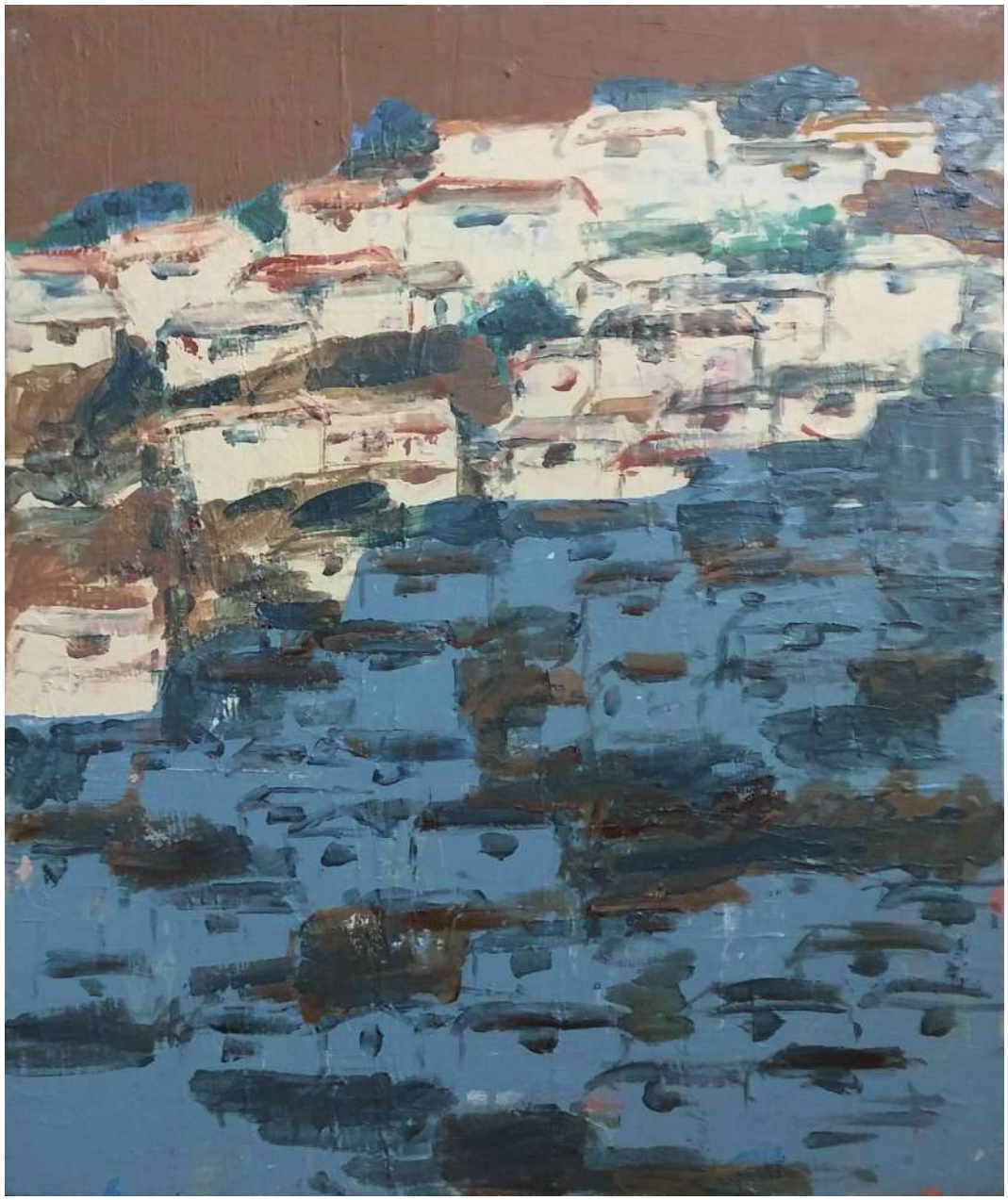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87 2019-08-26 오전 10:50:16

2018국제누드아트페어에서 선사랑 회원들과 함께

을 앞두고 있는 부인은 그동안 큰 병치레를 했지만 남편 돌보느라고 온몸의 관절이 정상이 아니다.

하지만 근육병을 진단해 준 의사가 생명이 길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과는 달리 김영수는 개인전을 준비할 정도로 의욕적인 창작 활동을 하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그는 이번 개인전에 산동네만의 미학을 화폭에 담은 '도시 이야기' 시리즈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여 그의 개인전에 기대를 갖게 한다.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88 2019-08-26 오전 10:50:17



도시 이야기 1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89 2019-08-26 오전 10:50:23

도시 이야기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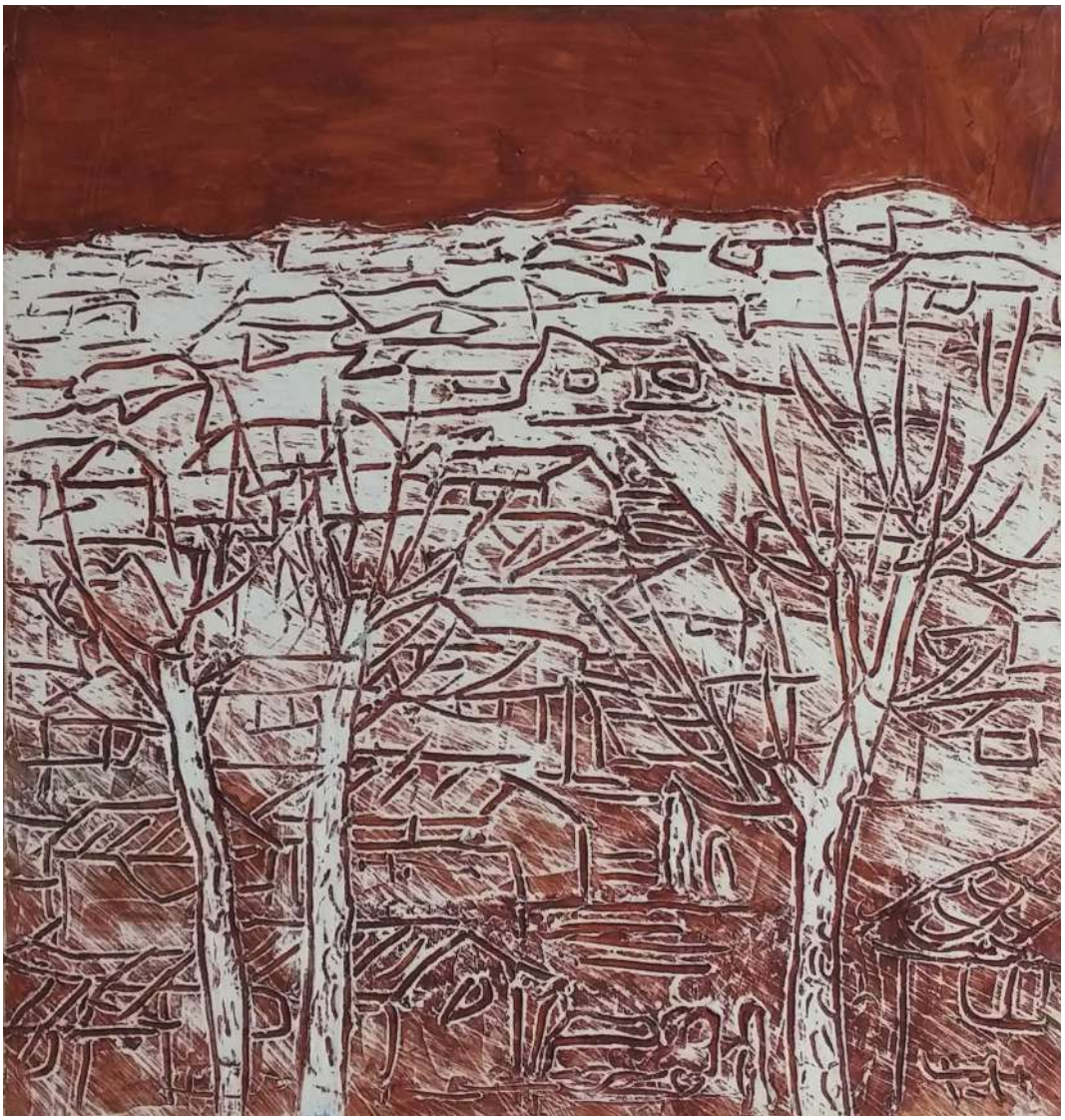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90 2019-08-26 오전 10:50:36

도시 이야기 3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91 2019-08-26 오전 10:50:42

도시 이야기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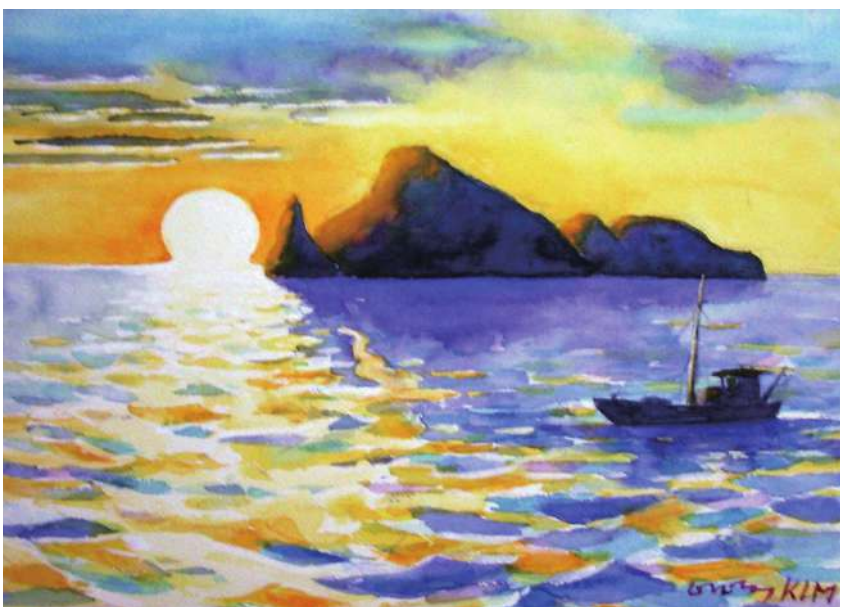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92 2019-08-26 오전 10:50:49



도시 이야기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93 2019-08-26 오전 10:50:51

안산습지(수채)



독도 일출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94 2019-08-26 오전 10:50:52

S.O.S.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95 2019-08-26 오전 10:50: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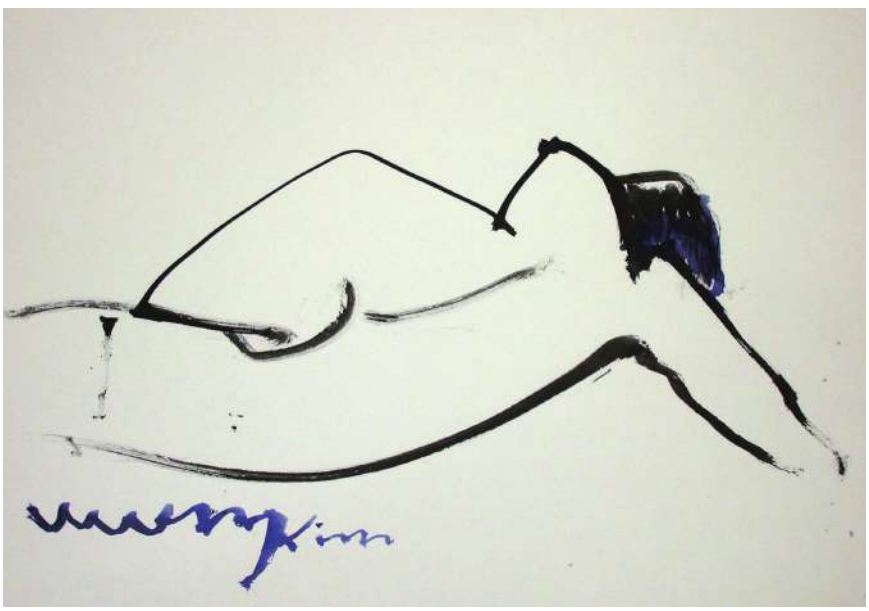
가평의 가을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96 2019-08-26 오전 10:50:55

늦가을 마을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97 2019-08-26 오전 10:50:57

누드드로잉 9



누드드로잉 10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98 2019-08-26 오전 10:51:04

음악

왼 손 피 아 니 스 트

이훈

 # 주요 경력

선화예술학교, 선화예고 졸업
독일 Hamburg 음악대학 음악교육과 수료
독일 Lübeck 음악대학 AKA Diplom 졸업
네덜란드 Utrecht 음악대학 Tweede Phase 졸업
미국 University of Cincinnati 박사 학위 졸업(DMA)
이탈리아 Le Muse 콩쿠르 Diplom
이탈리아 AMA Calabria 콩쿠르 Diplomat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99 2019-08-26 오전 10:51:05

2019년 3월 한성백제관 독주회

왼손 피아니스트 이훈의 피아노 리사이틀이 지난 6월 5일(수) 오후 8시 로로스페이스, 6월 12일(수) 오후 8시 JCC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렸다. '나의 왼손; 한 손으로 희망을 연주하다'라는 부제를 가진 이훈의 피아노 연주회를 감상하기 위하여 많은 관객들이 찾아 주었다.

치명적인 조건

피아니스트 이훈은 장래가 촉망받던 피아니스트였다. 선화예술고등학교 재학 중 독일로 향하여 독일 함부르크 국립음대 Diplom-Musiklehrer과정을 수료하였고, 뤼벡 국립음대 AKA Diplom과정 졸업 및 반주자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네덜란드 Utrecht 국립예술대학 Tweede Phase과정을 졸업하였다. 또한 이탈리아 Le muse 콩쿠르, Terme AMA Calabria 콩쿠르 Diploma 수상을 하며 연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혀 나갔다.

그런데 그는 2012년 미국 신시내티대학 박사과정에서 논문을 쓰던 중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논문을 쓰기 위해 신경을 많이 쓰면서 무리를 한 탓이었다. 혼수상태에서 간신히 깨어났지만 후유증으로 왼쪽 뇌의 60%가 손상되어 오른쪽 팔, 다리가 마비되고 언어장애까지 갖게 되었다. 피아니스트에게 오른쪽 팔다리를 쓰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치명적인 조건이다. 주요 멜로디 라인을 담당하는 오른손을 쓸 수 없으며, 왼발로 페달을 밟기 위해 몸의 균형이 무너지면 리듬을 타기 힘들기 때문이다.

뇌졸중 이전

절망적인 상황에서 피아노를 포기할 생각도 했지만 어느 날 은사인 전영혜 선생님께서 '왼손이라도 해 보지 않을래.'라는 말씀에 희망을 갖게 되었고 왼손 피아노 연주곡이 천 곡이 넘는다는 것을 알고 용기가 생겨 한 손으로 피아노를 다시 치기로 결심하였다. 결국 4년여의 힘겨운 재활치료를 받고 지난 2016년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된 피아노독주회에 왼손 피아니스트로서 대중 앞에 다시 섰다. 혼신을 다 하는 그의 연주에 관객들은 눈시울을 적셨다. 그의 연주를 통해 희망을 얻었다며 환자들이 아낌없는 응원을 보냈다.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01 2019-08-26 오전 10:51:05

다시 시작

박사 학위

이런 의지와 노력을 알게 된 신시내티 대학에서 그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였다. 이례적으로 그에게 미국에서 7번의 연주회를 마치면 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로 한 것이다. 포기했던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는 기쁨에 피아노 앞을 떠나지 않으며 연습에 몰두하였다. 연습을 하면 할수록 왼손 피아니스트가 자신의 운명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는 결국 조건을 달성하여 지난 2017년 박사 학위(DMA)를 받았다.

박사 학위 논문 때문에 찾아온 뇌졸중인데 박사 학위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었다. 그는 사회적기업 (주)툴뮤직의 소속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게 되었다. 정은현 대표의 알뜰한 보살핌으로 이제 그는 안정적으로 연주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는 이번 리사이틀에서 이례적으로 왼손만을 위한 독주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1차 세계대전에서 오른팔을 잃은 뛰어난 피아니스트이자 친구였던 비트켄슈타인을 위해 작곡한 고도프스키의 'Meditation and Elegy', 오른손 부상의 아픔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며 그 고통을 승화한 스크리아빈의 아름다운 작품 'Prelude and Nocturne Op.9', 마지막으로 오랜 연주 생활로 오른손이 마비된 클라라를 위해 브람스가 편곡한 작품 바흐-브람스의 'Chaconne BWV1004' 등 왼손만을 위한 피아노 독주곡들을 연주하여 뜨거운 갈채를 받았다.

이번 리사이틀에서 더욱 주목을 끈 것은 평소 피아니스트 이훈의 재기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피아니스트 김은희와 함께 모차르트의 'Fantasia K.397'와 번스타인의 세 손을 위한 'Bridal Suite in Two Parts'를 연주하였기 때문이다.

한손 연주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임하는지.

처음에는 한손으로 피아노를 치는 것을 상상도 못했으나, 지금은 두 가지 마음으로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피아노를 침으로써 뇌졸중에 있는 사람들, 나아가서 절망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이고, 둘째 실질적으로 피아노를 치면 칠수록 오른손이 나아진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를 못할 수도 있으니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왼손만 치게 될 경우와 오른손을 건반에 올리고 왼손으로 칠 경우는 확실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02 2019-08-26 오전 10:51:06

성모병원 연주

독주회 독주회를 마치고

히 다른 게, 오른팔 근육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상체가 확 펴집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건반에 두고 왼손으로 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페달을 밟는 것을 매일 연습하는데, 그럼으로써 오른발 근육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른발로 페달 밟는 것을 연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래 오른발로 페달을 밟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오른발로 페달 밟는 것은 일석이조가 되는 것입니다.

은사님의 도움으로 한 손으로 피아노를 다시 치기로 결심하였다고 하였는데 어떤 지지를 해 주셨는지.

전영혜 선생님께서 '양손으로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러나 왼손으로 피아노 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니 계속 피아노를 공부해라. 첫 번째 공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03 2019-08-26 오전 10:51:07

서래마을 로로스페이스에서

김은희 선배, 이훈, 정은현 대표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04 2019-08-26 오전 10:51:08

부는 내 제자들 연주회에서 모차르트 환상곡을 네가 왼손을 치고, 내가 오른손을 치는 걸로 하자.' 고 하시면서, 정말 끝도 없는 지지를 보내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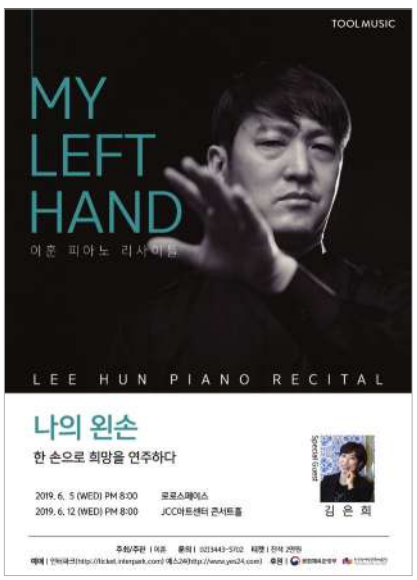
다시 피아노를 시작했을 때 가장 기뻐했던 사람은.

아무래도 아버지, 어머니 아니셨을까요? 어머니는 마비된 오른쪽 팔을 쓰다듬어 주시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왼손으로 연주하는 재기 연주회 때도 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한손 피아노 연주를 대하는 관객들의 수준은.

관객 수준은 그야말로 최고였습니다. 경청하는 태도, 그리고 연주가 끝난 다음 환호까지도…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한국의 음악성은 세계 최고가 아닐까 합니다.

일요일 정오에 한국 KBS와 일본 NHK에서 똑같이 노래자랑 프로그램을 방영하는데, 일본 노래자랑을 보다가 한국 노래자랑을 보면 다들 가수입니다. 반대로 한국 노래자랑을 보다가 일본 노래자랑을 보면 참 노래를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흥이 많습니다. 노래자랑에서 흥겨운 노래가 나오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들 춤을 춥니다. 그 정도로 유전자 속에 음악이 있습니다.



이훈 피아노 리사이틀 포스터

제2의 피아니스트 인생의 목표는.

한손 피아노 연주를 통해 관객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일 연습하고 있습니다.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05 2019-08-26 오전 10:51:10

대중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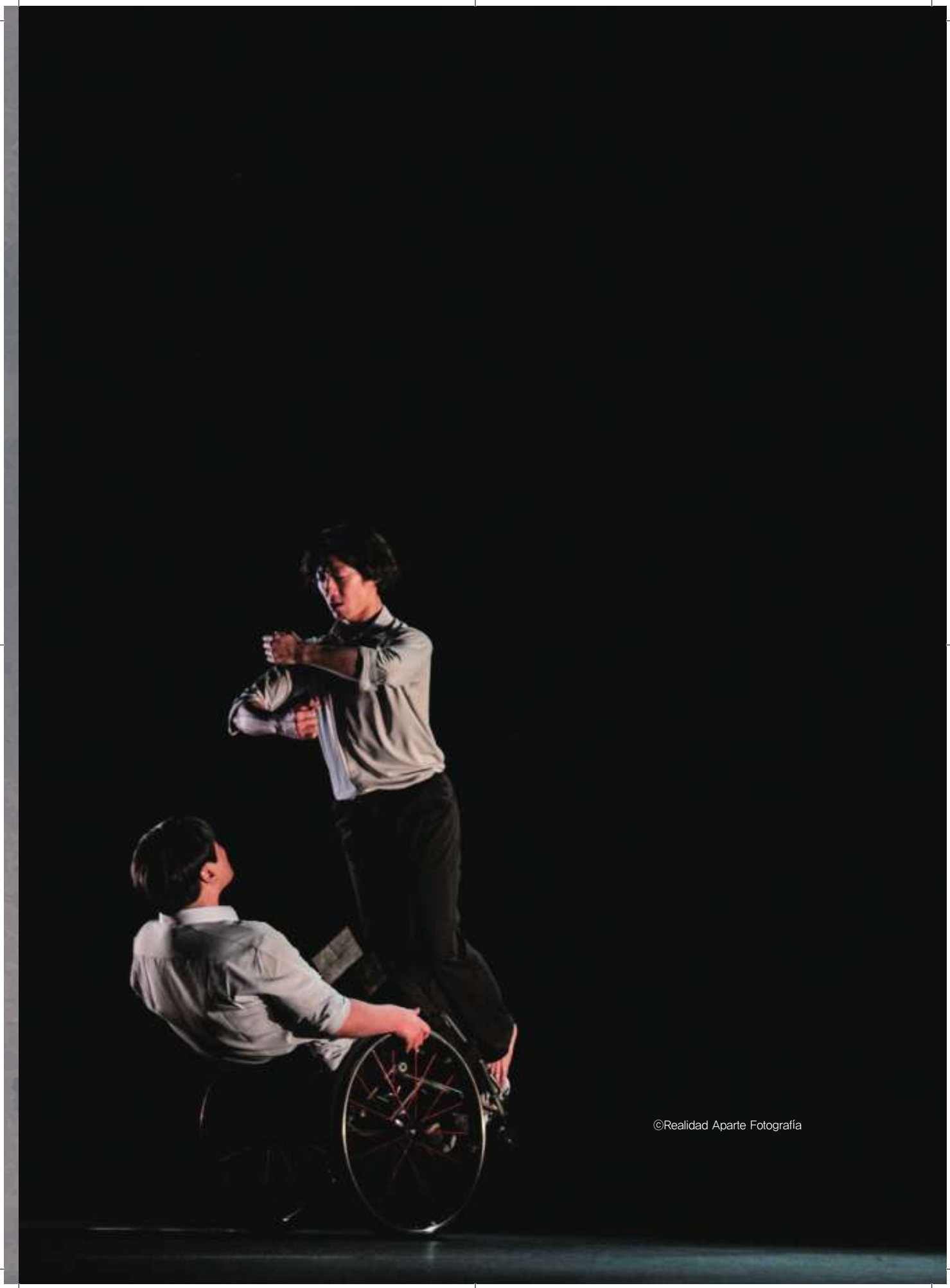
유 럽 을 놀 라 게 한

휠체어무용가 김정훈

 # 주요 경력

2019 III Certamen Coreográfico Escena Mobile '낡은 집' 출연, 1등 수상 (스페인, 세비야)
2019 2019 희망나눔 안산밀알콘서트 '꿈을 꾼다' 출연
2019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봄날의 멋진 동행 '꿈을 꾼다' 출연
2018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국내공식초청작 '좁은 골목' 출연
2018 춘천아트페스티벌 개막작 '좁은 골목' 출연
2018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개회식 문화공연 '공존' 출연
2017 2017 특수교육 이해를 위한 학교장 연수
2017 2107 전국 장애인 축제대회 초청공연
2017 서울문화재단 장애인예술창작활성화지원사업 '좁은 골목' 출연
2016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국내공식초청작 개막작 '공존' 출연
2016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해외초청작 '미스 커태스트로피' 출연
2016 경기여자고등학교 장애인 인식개선 예술공연행사 초청공연
2016 장애인의 날 기념 함께서울 누리축제 초청공연
2015 [한-핀 동서대륙을 잇다] 핀란드 템페레시 'ACCAC' 축제 초청공연
2015 2015 용인시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초청공연
2015 2015 장애인 인식개선 문화예술공연 '너나들이' 초청공연
2012~2018 장애인문화예술축제 무용공연 출연 계속
2009~2018 (사)빛소리친구들 정기공연 출연 및 출연 예정
2012 일본 오키나와 키지무나 페스타 초청공연 출연
2012 제8회 부산국제무용제 폐막축하공연 출연
2012 제6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전야제 초청공연
2011 제7회 부산국제무용제 폐막식 공연 출연
2011 SIDANCE(서울세계무용축제) 공연 출연
2011 홍은예술창작센터 개관 공연
2007~2011 전국장애인체천 휠체어댄스 스포츠 2관왕 외 다수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06 2019-08-26 오전 10:51:12


©Realidad Aparte Fotografía

지난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린 '2019 제3회 모빌 신 안무 경연대회'(2019 Ⅲ Choreographic Contest Mobile Scene)에서 작품 '낡은 집(An old house)'으로 빛소리친구들 소속 휠체어무용가 김정훈이 1위를 수상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아시아 최초로 경쟁부문에 진출하여 우승을 차지한 것인데 아시아 참가자는 한국이 유일하여 그 의미가 더 크다.

에세나 모빌 페스티벌(Ecsena Mobile Festival)은 2007년 시작돼 올해 13회째를 맞이한 유럽의 대표적인 장애인무용축제로 김정훈이 참가한 모빌 신 안무 경연대회(2019 Ⅲ Choreographic Contest Mobile Scene)는 2017년부터 시작한 경쟁부문으로 올해 12개 팀이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펼쳤다.

'낡은 집(An old house)'은 현대무용가와 안무가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고스트그룹의 류진욱 안무가와 빛소리친구들의 김정훈 휠체어무용가가 1년 이상 호흡을 맞춰 온 빛소리친구들

〈낡은 집〉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08 2019-08-26 오전 10:51:17

의 기획 작품이다.

휠체어로 표현할 수 있는 움직임의 섬세함과 기술성의 최고치를 보여 주어 심사위원단의 호평과 현지 관객에게 높은 호응을 얻어 내는데 성공하며 만장일치로 1위에 선정됐다.

빛소리친구들 최영묵 대표는 '장애인무용가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장애예술인들이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펼치기 위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도전한다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것이 꿈이 아닌 현실로 가능함을 확인해 나가고 있다.'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김정훈은 누구인가

김정훈은 29세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PC방을 운영해 보았고, 남대문에서 악세서리 장사도 해 보았고, 포토샵과 일러스트를 배워서 디자인 일도 하며 정말 많은 경험을 하며 살았다.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이었지만 훤칠한 외모 덕에 공학도였지만 연극 무대에 서게 되었는데 '계란이 왔어요'라는 간단한 대사조차 입밖으로 자신 있게 뱉어 내지 못했다.

졸업 후 의류회사에 다녔는데 일주일에 4시간밖에 못 잘 정도로(밤을 새우는 것은 일상) 치열하게 살았다. 움직이는 것을 좋아해서 인라인을 타고 출퇴근을 하고 겨울에는 스키장에서 살다시피 할 정도로 운동을 즐겼다.

2003년 교통사고는 그의 모든 활동을 정지시켰다. 그는 2년 6개월 동안 병원 생활을 하며 30번 이상 수술을 하였다. 온몸의 뼈가 성한 데가 없었다. 그런데 수술로 복원이 되고 있는 듯하였지만 골수에 염증이 생겨서 휠체어를 타게 되었다.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09 2019-08-26 오전 10:51:17

병원 생활을 마칠 무렵 운명처럼 우리나라 휠체어무용의 시조인 김용우를 만났다. 그가 휠체어 무용을 하자는 말에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예스라고 했고, 그가 권하는 대로 빛소리친구들에 들어가서 무용을 배우게 되었다.

왜 휠체어무용을 시작했는가.

휠체어스포츠댄스는 재활 훈련 과정에서 접했지만 무용에 입문을 한 것은 31세였다. 왜 선택했느냐고 하면 그저 좋아서라고밖에 할 말이 없지만 자신만의 독특한 움직임으로 이야기를 풀어내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서 무용이 좋았다.

늘 새로운 경험을 즐기는 성격이라서 도전을 주저하지 않기에 시작이 빨랐다. 휠체어무용을 시작하자마자 그 매력에 푹 빠져들었다. 데뷔 무대는 2011년 부산무용제 폐막 초청공연이었다. 공연 전 긴장감과 부담감이 컸지만 막상 공연을 시작하니 40분이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르게 연기를 마치고 그제야 객석을 바라보았다. 관객들이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렇게 큰 박수를 받고 나니 용기가 생겼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그날의 감동은 두고두고 힘이 되어 주었다.

김정훈이란 무용가에게 월계관을 씌워 준 무대

모빌 신 안무 경연대회 출전은 빛소리친구들 최영묵 대표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한번도 출전한 적이 없었고, 아시아도 경쟁부문에 출전한 기록이 없어서 신청을 해 놓고 반신반의하고 있었다. 게다가 그 시기에 발을 수술하게 되었다. 피부 괴사(썩어들어가는 것)가 심

2016 빛소리친구들 정기공연 〈공존〉

〈화랑, 검의 노래〉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10 2019-08-26 오전 10:51:18

해서 계속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이다. 병원에 있느라고 연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경쟁부문에 출전권을 얻어서 기쁘면서도 걱정이 앞섰다. 무용은 몸이 무기여서 컨디션이 안 좋으면 동작이나 연기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다.

다행히 회복 속도가 빨라서 연습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정말 지독히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다.

한국 대표로 출전을 한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 일이었는데 1등이라는 발표에 얼떨떨했다. 무용가로서 자부심이 느껴졌다. 사고 후 무용을 시작하기까지 고통스러웠던 날들이 떠올라서 눈물이 났다.

최영묵 대표님도 무척 자랑스러워하셨다. 이제 막 시작한 장애인예술에서도 무용 분야는 그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국제대회에서 한국의 장애인무용을 인정해 주니 얼마나 기뻤겠는가.

출품작 '낡은 집(An old house)'은 어떤 작품인가.

무용을 하면서 느낀 것은 휠체어무용을 보는 관객들의 시선이었다. 관객들은 무용수의 춤사위나 얼굴 표정 등의 연기를 보지 않고 휠체어를 먼저 보기 때문에 무용을 놓치게 되는 단점이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은 휠체어보다 무용수를 먼저 보게 만든 작품이다.

류진욱 안무가 작품의 현대무용(컨템포러리 댄스)으로 류진욱 안무가와 둘이서 공연을 한다. 작품 시놉시스는—한 사람의 숱한 인생을 바라보는 낡은 집엔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된 공간의 흔적이 담겨 있는 낡은 집처럼 사람도 변화의 시간이라는 과정을 겪는다.

변화된 모습과 변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으로 마주하는 두 남자, 그 안에서 닮아 있지만 다른, 다르지만 닮아 있는 서로를 통해 스스로 찾으려고 한다.—이다.

이 작품 '낡은 집(An old house)'은 오는 8월 대학로 아르코 극장에서 열리는 '제4회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의 폐막 공연으로 만나 볼 수 있다.

그동안도 많은 공연을 하였을 텐데.

2018평창동계장애인올림픽 개회식 공연도 나로서는 큰 무대였다. 빛소리친구들에서 주최하는 정기공연이 꾸준히 있을 뿐 공연 기회가 많지 않다.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11 2019-08-26 오전 10:51:18

2018 KIADA /©Sang Hoon Ok

©임효성

©임효성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12 2019-08-26 오전 10:51:38

수상 후 여유롭게 스페인 관광

공연 이외의 활동은.

빛소리친구들에서 주최하는 장애인무용전문교육 메이드에서 장애청소년들에게 무용을 가르치고 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거부했던 중증장애청년들이 무용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면서 긍정적으로 변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르치는 일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는.

관객들이 장애인무용 공연을 보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좋은 무대를 준비할 것이다. 예전에 비해 장애인무용 공연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약간의 관심만 가져도 공연 소식을 접하실 수 있는데 장애인무용 공연 관람을 선택해 주셨으면 한다. 안 보고 그럴 것이다 하고 평가하지 말고 단 한 번만이라도 공연장에 와서 봐주셨으면 한다.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13 2019-08-26 오전 10:51:39

스페인에서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대한민국이 세계장애인무용의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이 있다. 그리고 장애인무용수가 무용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꿈이다. 꾸준함이 탁월함을 만들어 낸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도전할 생각이다.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14 2019-08-26 오전 10:51:40

장애인문화
예술단체

11년 동안 삼성화재에서 지원하여

'뽀꼬아뽀꼬'에서 '비바챔버앙상블'로

뽀꼬아뽀꼬

장애인교육 바우처제도가 시작되면서 특수학교 장애학생들이 바우처를 이용해서 예능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장애학생들이 다른 분야에 비하여 예술에 관심을 보이자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진짜 예술에 소질이 있는지 궁금해하였다. 그래서 제대로 예능교육을 받고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원하였기 때문에 장애학생 가운데 가장 많은 지적, 자폐성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음악으로 재능캠프를 하는 사업을 (사)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에서 계획하게 되었다.

그래서 2009년 장애청소년음악회 뽀꼬아뽀꼬 사업을 시작하였다. '뽀꼬 아 뽀꼬'는 '조금씩, 조금씩'이라는 이탈리아 음악용어로서 장애청소년들이 음악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하여 사회와 교감하고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장애청소년은 학령기라서 국립특수교육원과 파트너십을 맺어 참가자를 모집하고 사업비는 삼성화재에서 후원하고 있다. 뽀꼬아뽀꼬는 음악캠프 형식이다.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서 2박 3일 동안 삼성화재글로벌캠퍼스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업 내용은 음악에 재능이 있는 장애청소년에게 음악대학 교수들이 전문적인 지도를 하여 음악적 역량을 훈련시킨 후 캠프 마지막 날 배운 것을 발표하는 음악회가 진행되었다.

장애청소년과 지도교수 그리고 자원 활동가 150여 명 규모의 소박한 음악회였다.

장애청소년은 거의 대부분 발달장애인인데 놀랍게도 연습을 할 때보다 무대 위에서 뛰어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15 2019-08-26 오전 10:51:40

제9회 뽀꼬아뽀꼬 음악회
Poco a Poco

제8회 뽀꼬 아 뽀꼬 음악회
Poco a Poco

난 기량을 보였다. 참가자 부모들이 일반 무대에서 공연하기를 원하였고, 지도교수들도 일반 관객들과 함께하는 무대가 더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주어 2010년부터 음악회가 가능한 공연장에서 1천여 명의 관객을 초대해서 형식을 갖춘 뽀꼬아뽀꼬 음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그동안 호암아트홀, KBS홀, 예술의 전당 등 큰 무대에서 공연을 하며 장애청소년의 음악성을 유감없이 보여 주었다.

올해로 10주년이 되는 뽀꼬아뽀꼬 음악회는 500여 명이 넘는 누적 참가자 수를 기록하여 장애청소년 예비 음악가의 산실이 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비바챔버앙상블

'뽀꼬아뽀꼬'를 통해 양성된 장애음악가들이 전문 연주자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 비바챔버앙상블을 2015년 5월 창단하였으며,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고 있는데 지난 2월에 3기 단원이 새롭게 출범되었다.

선발된 단원은 한 달에 두 번씩 연습을 진행하고 심화연습과 마스터클래스를 통해 기량을 향상시키고 있다. 총 3회의 정기연주회와 장애인의 날 식전 공연, 고용노동부 초청공연 등 다양한 무대 경험을 쌓고 있으며, 지난해 프랑스 뮤직칼타 페스티벌에 초청을 받아 유럽 콘서트 투어를 진행하는 등 글로벌한 앙상블이 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그동안 비바챔버앙상블 단원 중 한국예술종합학교에 3명,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교에 1명이 입학하여 많은 장애청소년들의 로망이 되고 있다. 올해부터 비바챔버앙상블의 전문성을 높이고 더 많은 공연 기회 제공을 위해 새로운 현악 4인조 유닛앙상블을 창단하여 장애인음악활동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비바챔버앙상블 연혁

일시	행사명
2015. 05.	비바챔버앙상블 창단
2015. 12. 08.	장애인먼저실천상 시상식 축하공연
2015. 12. 16.	제6회 '뽀꼬 아 뽀꼬' 음악회 연주
2016. 01. 23.	삼성화재 창립 64주년 기념 음악회
2016. 02. 15.	해설이 있는 미니음악회
2016. 03. 17.	국회 음악산책 연주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17 2019-08-26 오전 10:51:50

개인 지도

파트별 지도

전체 지도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18 2019-08-26 오전 10:51:58

일시	행사명
2016. 04. 04.	2016 삼성화재 초청공연
2016. 04. 20.	제36회 '장애인의 날' 식전 축하공연
2016. 04. 21.	제22회 연도상 시상식 축하공연
2016. 06. 16.	제2회 대한민국 어울림축전 개막식 공연
2016. 07. 15.	제23회 국제세미나 초청공연
2016. 09. 08.	"리날레 IN 부산" 축하연주
2016. 10. 19.	제7회 '뽀꼬 아 뽀꼬' 음악회 연주
2016. 11. 18.	제8회 장애인먼저실천상 시상식 초청연주(광주운동본부)
2016. 12. 01.	장애인먼저실천상 시상식 축하공연
2017. 02. 10.	제1회 비바챔버앙상블 정기연주회(세라믹팔레스 홀)
2017. 02. 27.	비바챔버앙상블 2기 단원 선발
2017. 04. 03.	2017 삼성화재 초청공연
2017. 04. 07.	청소년을 위한 교육드라마 '비바앙상블' 시사회 초청공연
2017. 09. 07.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제주 초청공연(제주 함덕고등학교)
2017. 09. 17.	플루티스트 마크 그로웰스와 함께하는 마스터클래스
2017. 09. 23.	세종솔로이스츠와 함께하는 마스터클래스
2017. 10. 12.	서울아르스플루트앙상블 특별연주회 초청공연(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2017. 10. 17.	삼성 안내견학교 홈커밍데이 축하공연
2017. 10. 27.	제24회 국제세미나 초청공연(국립특수교육원)
2017. 11. 20.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캠페인 초청공연(교육부 주최)
2018. 02. 06.	UN & 평창 지속가능성 공동 캠페인 토크콘서트 초청공연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UN기관, 외교부 공동개최)
2018. 02. 09.	제2회 비바챔버앙상블 정기연주회(흰물결아트센터 화이트홀)
2018. 02. 26.	제1회 대한민국 장애인식개선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초청공연
2018. 04. 25.	2018 장애학생 취업 지원 확대 워크숍 초청공연(국특원, 복지부, 고용노동부 주최)
2018. 06. 27.	고용노동부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초청공연(고용노동부 주최)
2018. 07. 11. ~ 07. 22.	비바챔버앙상블 유럽 콘서트 투어
2018. 08. 29.	2018 특수교육 정보화 컨퍼런스(국립특수교육원 주최)
2018. 10. 13.	제34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초청공연(장애인부모회 주최)
2018. 10. 24.	제25회 국제세미나 초청공연(국립특수교육원 주최)
2018. 12. 05.	2018 장애인먼저실천상 시상식 축하공연
2018. 12. 06.	제3회 비바챔버앙상블 정기연주회(세라믹팔레스 홀)
2019. 03. 01.	비바챔버앙상블 3기 단원 선발
2019. 04. 01.	비바챔버 현악앙상블 창단
2019. 04. 19.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지원 업무협약식 초청공연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19 2019-08-26 오전 10:51:58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21 2019-08-26 오전 10:52:05

장애인을 지원하게 된 계기와 지원 결정 이유

시각장애인 안내견 사업을 필두로 해서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었다. 장애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 통합 캠프를 매년 개최하고 있었는데 그런 통합 캠프를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기 시작해서 우리 사업을 종료하기로 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찾고 있었다.

그때 받은 제안서가 장애청소년음악캠프 '뽀꼬아뽀꼬'로 우리가 장애인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한 것은 2009년 '뽀꼬아뽀꼬'가 처음이다.

장애인예술 지원을 결정하는데 걸림돌이 된 것은

사실 그동안도 여러 장애인예술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보냈었는데 규모가 너무 컸다. 규모가 크면 아무래도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그런데 '뽀꼬아뽀꼬'는 그 규모가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장애인예술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규모 사업부터 한번 해 보자 하는 사내 분위기가 있었다. 그런 분위기가 없었다면 결정이 어려웠을 것이다.

장애인예술 지원에 대한 기업 내의 반응

'뽀꼬아뽀꼬'는 여러 단체가 함께 진행하였다.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참가할 장애학생들을 발굴했고, 장애학생들을 가르치는 음악대학 교수들이 재능 기부를 했다. 그리고 진행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에서 맡아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며 시너지 효과를 높였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만약 단독으로 진행을 했더라면 3년을 넘기지 못하였을 것이다. 대개 기업은 3년 주기로 자체 평가를 하는데 보통 3년 만에 사업이 종료된다. 우리 사업이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을 때 우리에게 확신을 준 것은 재능기부를 해 준 교수들이었다.

어떤 사업을 운영할 때 사내에서 계속 도전을 받게 된다. 만약 장애청소년재능캠프만 운영하였더라면 캠프를 진행하는 연수원 이용이 어려웠을 것이다. 사내 교육 프로그램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연수원 대관 일정을 잡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음악회를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캠프를 통해 연마한 실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 주고 싶고, 또 장애학생들에게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하여 음악회를 개최한 것인데 음악회가 임직원들에게 장애인예술의 가치를 깨닫게 해 주었다.

첫 음악회 때 사내 홍보를 열심히 하였다. 각 부서마다 몇 명씩 음악회에 참석하라고 할당을 하여 강제적으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일단 음악회를 보고 나면 생각이 바뀌었다.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22 2019-08-26 오전 10:52:05

그들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감동을 받은 것이다. 장애인시설에 가서 봉사 활동을 할 때와는 다른 전율이 느껴졌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술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임직원을 관객으로만 동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합창단을 만들어서 장애학생들의 공연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무대에 함께 올라가도록 하였고, 초창기 오케스트라에 부족한 단원으로 직원을 참여시켜서 함께 연습을 하고 함께 공연을 하면서 장애학생들이 연습을 하는 모습 그러니까 최선을 다 하는 노력에 더 큰 울림을 받았다.

이제 '뽀꼬아뽀꼬'는 시각장애인 안내견 사업에 이어 두 번째로 사내에서 많이 알려진 장애인 사업이다.

장애인예술 지원이 기업에 끼친 영향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는 생각이 가장 분명하게 드는 것이 장애인예술 지원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장애인 사업에 비해 감동이 배가 되니 말이다. 장애인예술 지원은 직원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사업보다는 많기 때문에 임직원들에게 자부심을 주는 효과가 크다.

예술인 하나를 지원해서 세계적 인쿠르에 나가 수상을 하고 그 명성으로 기업의 광고 효과를 높이는 것이 보통인데 그것은 그야말로 광고 효과이고, 장애인예술은 기업 이익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임직원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세상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기업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예술 지원을 계속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

항상 고민을 한다.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앙상블을 만들게 되었다.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지원에 대한 명분이 생긴다.

장애인예술 지원에 대해 어떤 평가를 받고 싶은가

어떤 평가를 위하여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는다. 우리의 지원으로 예술에 재능이 있는 장애학생들이 성장 발전하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 캠프에 참여했던 장애학생들이 속속 대학생이 된 것을 볼 때가 가장 보람이 크다.

우리는 그저 재능을 발굴해서 교육시키고 그래서 예술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학생들이 하나 둘씩 생기면 그것이 사업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자체 만족도 조사에서 '뽀꼬아뽀꼬' 사업이 2위를 차지한 것으로 우리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23 2019-08-26 오전 10:52:05

기업이 장애인예술 지원을 확대하려면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제도 때문에 사회공헌을 하지는 않는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장애인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기업에서 장애예술인을 지원하면 장애인을 고용한 것이 된다거나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장애인고용의무를 획일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는 장애인이 하고 싶어하고 또 잘할 수 있는 일을 통해 고용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면 사용자도 좋고 장애인도 좋을 것이다.

자원봉사도 마찬가지다. '뽀꼬아뽀꼬'처럼 대학생들이 자기 전공을 살려 장애인의 멘토가 되어 준다면, 그것이 경력이 된다면 대학생들이 서로 장애인의 멘토가 되고 싶어할 것이다.

이렇게 서로 윈윈하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기업이 장애인예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만들 것이다.

장애인예술은 전문가는 재능을 기부하고, 전공 대학생은 멘토가 되어 주고, 일반 사람들은 관객이 되고 그리고 기업은 경제적은 지원을 해 주면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장애청소년음악회 '뽀꼬아뽀꼬' 10주년을 기념해 국내 최고의 무대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오는 10월 23일에 음악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예년과 달리 지난 '뽀꼬아뽀꼬' 캠프 및 음악회에 참석하였던 장애청년들을 포함하여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피아노, 성악에 재능이 있는 전국 중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청소년 50여 명을 선발하여 '뽀꼬아뽀꼬' 오케스트라를 구성하여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무대에서 장엄한 하모니를 선보일 것이다.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24 2019-08-26 오전 10:52:05

갤러리

소울음 화가 故 최진섭

소울음아트센터 대표

경기문화재단 자문위원
세계장애인문화예술축제 자문위원
선사랑드로잉회 부회장

한국장애인미술대전 특선
제1회 경기도 장애극복상
2017년 제2회 융합국제장애인예술대전 최고창작상(중국 우한)

개인전 5회

단체전

일어서는사람들의기록전(1회~23회), 대한민국창작미술협회전, 선사랑 드로잉전, 더불어 사는 문화제
A-AF 장애인창작아트 페어, 세계장애인문화예술축제, 아름다운 등불재단 상설전
소울음전, 안양시민과의 만남전, 아시아 장애인미술가 "희망 빛"을 그리다. 한 · 중 · 일 국제교류전(중국, 일본)
안산국제드로잉전, 아주대학병원, 아산중앙병원, 신촌세브란스 초대전
강남대학교, 백석대학교 초대전, 광주 비엔날레 여백의한자리 기념전, 일어서는 사람들의 기록전,
장애인미술협회기념전(L.A한국문화원) 외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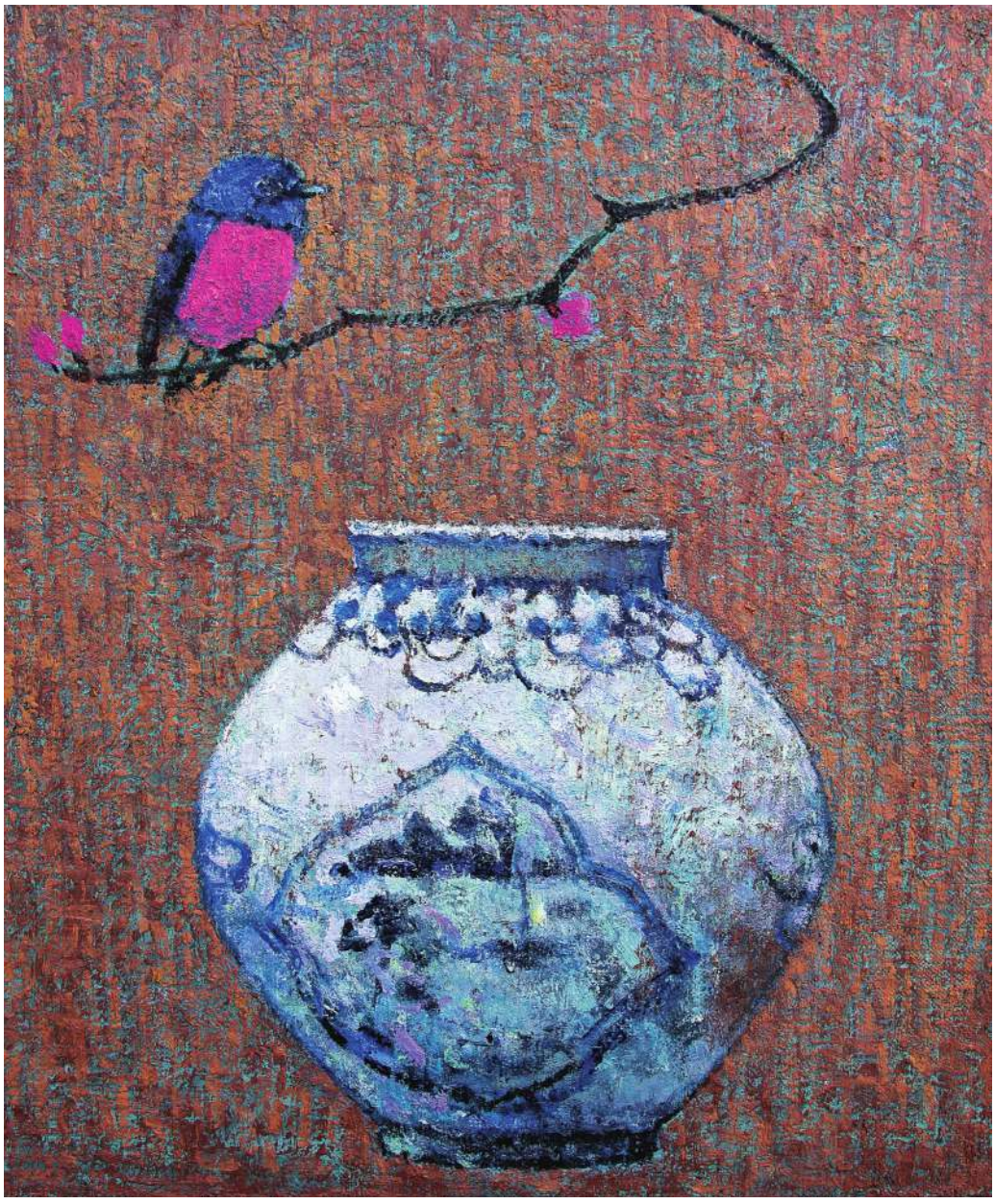
장애인예술 활동 경력

1992년 장애인그림공간 '소울음' 설립
1995년 '제1회 일어서는사람들의기록전' 개최(2018년 제23회)
2008년 소울음갤러리 개관
2010년 소울음아트페어
2011년 사단법인 소울음아트센터 설립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25 2019-08-26 오전 10:52:05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26 2019-08-26 오전 10:52:08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27 2019-08-26 오전 10:52:11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28 2019-08-26 오전 10:52:21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29 2019-08-26 오전 10:52:30

삶, 15F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30 2019-08-26 오전 10:52:35

삶, 15F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31 2019-08-26 오전 10:52:38

청계사의 봄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32 2019-08-26 오전 10:52:38

진달래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33 2019-08-26 오전 10:52:43

할아버지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34 2019-08-26 오전 10:52:44

할머니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35 2019-08-26 오전 10:52:47

사랑하는 봉권 씨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36 2019-08-26 오전 10:52:49

장애인미술의 터를 마련해 놓은 최진섭 화백을 보내며

최진섭은 혈기 왕성하던 18세 여름, 친구들과 동네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 머리가 바닥에 세게 부딪히는 사고로 경추 5, 6번이 골절되어 전신마비를 판정받았다.
10년 동안 침대 위에서 지냈지만 무의미한 시간은 아니었다. 그림을 시작하였다.

"예전부터 미술시간은 재밌었어요. 붓을 잡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욕창이 있어서 그림 그리는 것이 중노동이긴 하지만 화폭 위에 내가 원하는 형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행복했어요."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37 2019-08-26 오전 10:52:51

추운 겨울, 강화도의 한 시장을 찾아 스케치를 하면서 사람들의 모습에서 영감을 얻은 이후 인물화를 많이 그리게 되었다. 그의 인물화는 대상 자체보다 대상물이 지닌 이면의 의미들을 화폭에 담았다.

평소 사람을 좋아하는 그는 사람들과 특히 자신처럼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장애인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1992년에 구족화가인 임인석 화가와 당시 홍대 미대생이었던 금영보, 이렇게 세 명이 모여 모임을 만들었다. '깨달음'이라는 뜻의 순우리말 소울음으로 모임 이름을 짓고 안양 소해미술관에서 소울음 3인전을 개최하여 모임의 출발을 세상에 알렸다.

소울음은 장애인 그림 공간이어서 장소가 필요했다. 마침 운수업을 하셨던 아버지가 마련한 건물에 보금자리를 틀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2층까지 휠체어를 들고 오르내려야 했다. 화실을 열자마자 그림 공부에 목말라하던 장애인들이 모여들었다. 그는 그들의 작품 활동을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38 2019-08-26 오전 10:52:51

위해 매년 '일어서는 사람들의 기록전'을 열었는데 대성황을 이루었다.

그 후 20여 년 만인 2011년 경기도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장애인미술교육기관으로 성장시켰다. 그리고 안양시에서 옛 주민센터였던 곳을 무료로 임대해 주어 소울음아트센터라는 공간을 갖게 되었다. 이곳에서 4~50명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화가들이 미술 공부를 하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방에서 올라오는 장애미술인들이 많아서 작은 기숙사를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전업작가로 작품 활동을 하며 중증장애인들이 마음껏 예술적 끼를 펼칠 수 있는 예술학교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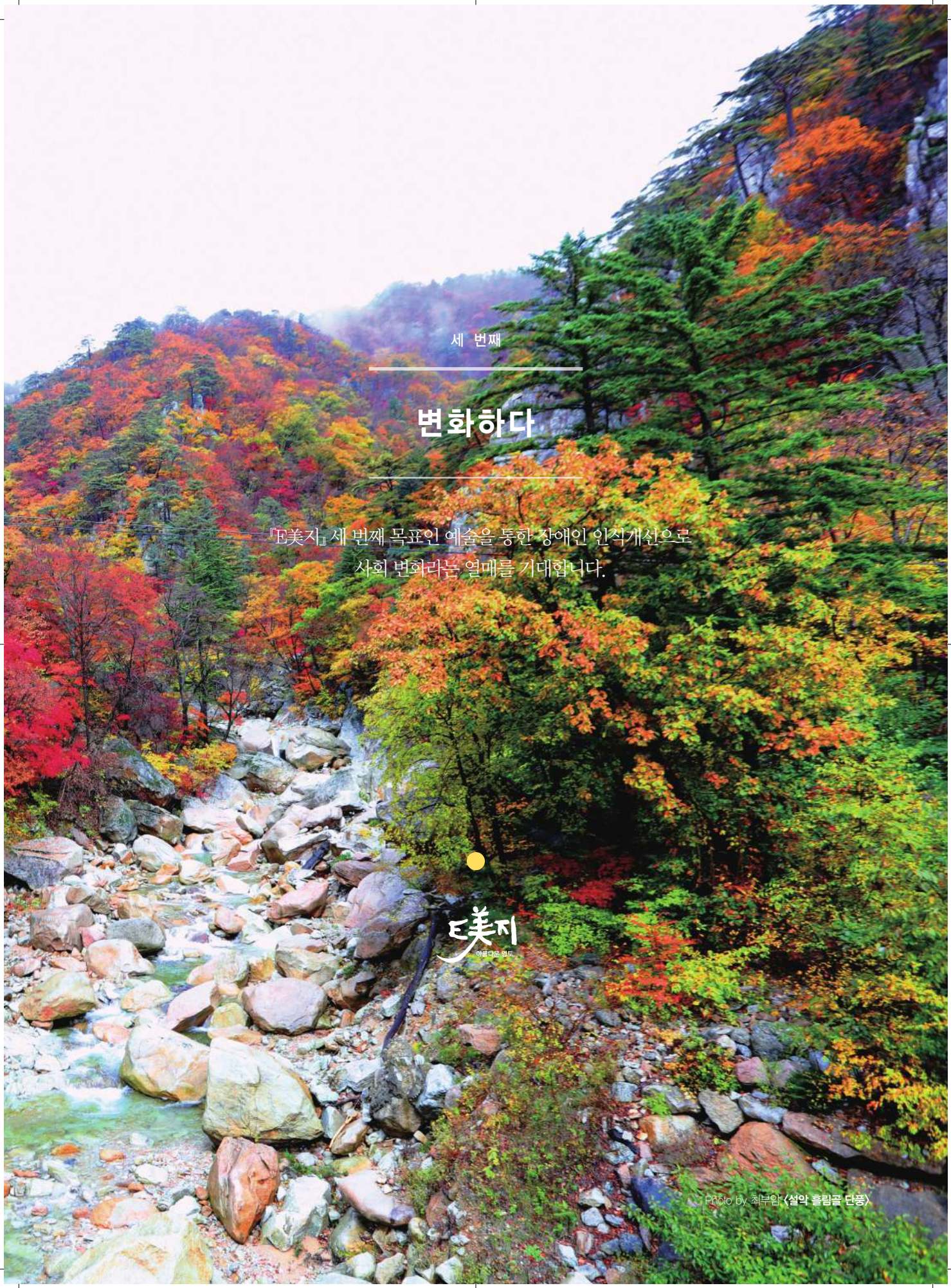
최진섭은 뒤로 뉘어져 있는 전동휠체어에서 화폭에 유화물감을 발라 하나하나 터치하며 그림을 그리는데 그 옆에서 두 명의 활동보조인이 작업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정부에서 공간을 주셨지만 아직 일반 공무원이 장애인예술을 담당하고 있어서 장애인예술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요. 전시회에 큰 돈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작가들이 작품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나 공간마련, 해외경험 등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야 해요. 전 정말 답답해요."

이렇게 장애인예술정책의 현실을 지적하며 장애인예술 발전을 위해 큰 그림을 그리던 최진섭 대표가 지난 6월 3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져 장애인미술계가 충격에 빠졌다. 암세포가 위장과 대장 등 모든 장기에 퍼졌지만 전신마비로 감각이 없어서 증상을 느끼지 못하여 발견이 늦어서 치료 시기를 놓치고 말았던 것이다. 그 흔한 건강검진도 받을 수 없는 중증장애인은 언제 질병의 희생자가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도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은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해내고 있다.

최진섭은 43년 동안 전신마비 속에서 화가로서, 장애인예술 지도자로 많은 영향을 주고 홀연히 떠났기에 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39 2019-08-26 오전 10:52:51



세 번째

변화하다

『E美지』 세 번째 목표인 예술을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으로
사회 변화라는 열매를 거대합니다.

E美지
아름다운 엠도

Photo by 최부암 **〈설악 흘림골 단풍〉**

아트 프렌즈

WHY? 왜? 스스로에게 묻다!

규재맘

미술에술이 시장경제 원리에 어울리는 항목일까요? 더욱이 발달장애미술가의 작품 활동이 무한경쟁의 원리인 자본주의 경제에 부합될까요?

그래서! 우리 '매니저님'들이 뭉쳤습니다!
발달장애미술가로 활동 중인 화가 7인의 '어머니들'이 의기투합, '결사체'를 도모하며 '발달장애미술가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고자 고투하는 이야기를 풀어 볼까 합니다.

발달장애미술가로 활동 중인 자녀의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어머니들은 꽤 많은 시간을 작업 시간이나 준비에 할애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어디 미술뿐이겠습니까? 음악을 하는 연주자의 어머니들과 여러 종목의 운동선수 어머니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자식이 장애가 있든지 없든지, 자식이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 것을 뒷바라지하는 엄마의 즐거움과 보람은 부모로서 느끼는 쏠쏠한 재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쏠쏠한 재미로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한다는 걸 요즘 실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실의 벽이란 부모의 경제능력과 가정경제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장소와 기회,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 그림으로 사회 속으로 들어가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 우리 발달장애미술가들의 '장소와 기회'는 낙타의 바늘 귀 통과만큼이나 어려운 현실입니다.

간혹 몇몇 미술 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발달장애미술가들의 그림 사업 실체는 실망스럽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42 2019-08-26 오전 10:53:02

기까지 합니다. 단체를 이끌기 위한 운영시스템이 이해되기도 하도, 비장애인이 대표로서 활동하려면 그 대표의 기본적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의 조직단위라는, 기업이라는 생산경제단위의 생리를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발달장애미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경제이론으로만 계산해서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우리 발달장애미술가들은 언제 자립을 하며, 언제 작가로서의 자긍심은 느껴 볼 것이며, 언제 작가 이름을 걸고 자신만의 화풍으로 창작하는 예술가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발달장애미술가로 활동 중인 아들이 있는 엄마로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계산법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까지 잃는 것은 아닐까, 아니, 뺏기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사회적 경제'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드러나는 문제(불평등,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를 해결하고 인간 생애와 관련된 영역에서 경쟁과 이윤을 넘어 상생과 나눔의 삶의 방식을 실현하는 '사회적 가치와 구조'를 재정립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사람 중심의 경제'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발달장애가 있는 미술가들이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수익배분과 자유롭게 작품을 할 수 있는 기회균등의 실현을 이 '사회적 경제'로 풀어 간다면 어떨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경제에 속하는 4개의 종류(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중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마 생활 속에서 자주 들어 본 단어라서 그런 듯, 이 협동조합으로 우리 발달장애미술가들의 작업 환경을 위한 '장소와 기회', 더 나아가서는 '미래'에 대한 설계도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결심이 섰습니다. 아마 엄마인 제가 점점 나이가 들어간다는 세월의 빠름과 부쩍 나빠진 건강이 굳은 결심을 하게 된 이유일 것입니다.

제 아들 규재가 전시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동료미술가들이 제법 많습니다. 발달장애미술가와 그 어머니들의 만남은 항상 웃음과 이야기보따리로 시끌벅적 유쾌하기만 하지만, 자녀들이 처해 있는 미술가로서의 미래가 연결된 부조리한 현실이 화제가 되면 조금 의기소침해지기도 합니다.

긴 대화 끝에 드디어 마음들이 뭉쳤습니다. 자기만의 화풍으로 이미 작가 반열에 올랐다고 인정받고 있는 발달장애미술가 7인과 그 어머니들이 서로 연대하며 신뢰와 협동으로 민주적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43 2019-08-26 오전 10:53:02

운영과 자율성을 중시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이루려는 의지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다래 작가의 어머니 문성자님, 정도운 작가의 어머니 고유경님, 김현우 작가의 어머니 김성원님, 김기정 작가의 어머니 정경숙님, 장현우 작가의 어머니 김원옥님, 금채민 작가의 어머니 송원숙님, 그리고 이규재 작가의 엄니 김은정, 이렇게 7인이 첫 출발을 도모합니다.

먼저 '발달장애미술가 사회적협동조합' 1호가 될 7인의 작가와 그 어머니들이 작성한 작가노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다래 작가

"다래 작가는 자연과의 교감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동물, 꽃, 나무 등과 대화하며 작가만의 감성으로 완성한 화려하고 예쁜 색감이 매력적이다. 정교한 사실화는 아니지만 독특한 채색으로 완성된 작품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 준다."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44 2019-08-26 오전 10:53:02

정도운 작가

"세상 이야기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정도운 작가. 작업의 기본은 필요한 정보를 끝없이 검색하고 수집하는 것이다. 그 정보를 자신만의 분류작업을 통해 자료로 삼아 이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를 작업에 담아낸다. 주변 인물, 유명인, 힙합 뮤지션과 그 가사를 통해 주제를 표현한다."

김현우 작가

"스스로 보람찬 하루 프로젝트라고 명명하여 새벽부터 밤까지 드로잉에 몰입한다. 자신의 경험과 상상의 모든 것을 픽셀의 형태로 조형화하는 작업을 한다. 매일 혼자 나서는 새벽 산책길의 영감을 휴대폰에 영상으로 담거나 시나 일기로 아카이빙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45 2019-08-26 오전 10:53:20

김기정 작가

"보석같이 빛나는 눈을 가진 김기정 작가. 그 눈 속에 섬세함과 다정스럽고 따스함이 스며 있는 듯, 완성된 그림 속에서도 느껴지는 포근한 감성의 표현은 김기정 작가만이 표현할 수 있는 매력적인 화풍이다."

장현우 작가

"컴퓨터 일러스트레이션 작가 장현우. 모니터를 한참 응시하고 손가락을 이리저리 재어 가며 작업 구도를 잡아 간다. 모든 작업을 마우스로 그리며 그라데이션 기법으로 완성한 빛의 변화와 원근의 표현은 그야말로 황홀함 그 자체이다. 다듬어지지 않은 삐죽삐죽 선들은 다소 거칠어 보이지만 작가의 우직한 성실함이 투영되어 있다."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46 2019-08-26 오전 10:53:21

금채민 작가

"금채민 작가는 동물과 꽃을 좋아하고 자연과 대화하며 자기만의 색채로 살아 있는 듯 표현한다. 서양화도 동양화도 작가만의 화풍으로 즐기며 누가 봐도 작가의 그림인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금채민 화풍을 완성해 가는, 미래가 기대되는 작가이다."

이규재 작가

"자연의 생명력에 작가만의 상상과 환상을 가미, 화려한 색채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회화적 실험을 시도하는 작가의 작품 속에서 우리들이 어릴 적 꿈꾸고 동경했던, 언제부터인가 잊어버린 세계를 다시 떠올릴 수 있는 예술적 속도감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작가만의 내공이 아닐까……."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47 2019-08-26 오전 10:53:28

여기! 7인의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한마디로 특징짓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시간이 더해 갈수록 깊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뜻을 모은 7인의 미술가와 그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면 알뜰하고 살뜰하게 살림을 갖추어 나갈까 고민하던 중, 마침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적진흥원이 주관하는 '2019 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이 공지되고 팀빌딩과 멘토링, 시장조사, 사업모델링 비용과 자원연계 등의 지원 내역에 힘을 받아, 7인의 미술가와 그 어머니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멘토링 코치를 맡아 줄 단체가 그 유명한 '진격의 임여사'가 이끄는 〈꿈고래놀이터부모협동조합〉이라는 정보에 한층 더 용기백배가 되었습니다.

임신화 대표의 추진력과 곧은 책임감은 이미 세평이 나 있고, 〈꿈고래놀이터부모협동조합〉은 발달장애 자녀 양육에 드는 여러 치료비의 문제와 학령기에 필요한 정보 교류 등을 통해 개인의 양육 부담을 공적 영역으로 확대해 20% 저렴한 치료비, 수익의 선순환, 지속적인 정보 공유와 부모교육으로 치료사와 비장애자녀 부모, 장애자녀 부모가 함께 조합원을 이룬, 모범적인 자녀양육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부모, 치료사, 당사자'가 함께 지역사회 속에서의 평생 설계를 천천히 이루는 협력의 성과를 〈꿈고래놀이터부모협동조합〉을 통해 가능성을 지켜 본 우리 7인의 미술가와 어머니들은 힘을 얻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튼실한 출발을 위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의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세상살이를 통해 체득한 지혜로운 어머니들입니다. 더불어 발달장애 자녀가 있는 모든 부모들은 아마 '협동조합'이라는 사회적 경제를 알고 싶어 할 것이라고 '함께하자'는 의견을 모아 강의를 제안한 것으로 봐도 우리 작가 7인의 어머니들은 이미 협동조합의 가치를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인재들임에 틀림없다고 자부합니다.

우리의 강의 개설 제안을 설명하기 위해 항상 양질의 유용한 부모교육을 지향하는 서초한우리정보문화센터(관장 위수경)의 가족지원팀을 찾았습니다.

역시 복지계의 베테랑 전문가, 가족지원팀의 강나윤 팀장이 흔쾌히 수락, 6회기의 강의 플랜을 순식간에 완성하고 홍보를 시작하니 50명의 수강 신청자가 모였습니다.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48 2019-08-26 오전 10:53:28

〈발달장애인 협동조합 아카데미〉

1강 협동조합의 기본이해
2강 협동조합의 역사와 역할
3강 협동조합 사례분석
4강 협동조합 설립절차
5강 협동조합 사업계획 세우기
6강 협동조합 설립 실전 점검

그리고 그다음 10회에 걸친 팀별, 개별 코칭 일정으로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강의 제목만 들어도 머릿속이 깜깜해졌습니다.
어려운 설명들을 이해할 수나 있을까? 지레 숨이 막혀 오기도 했습니다.

명강의로 소문난 강사진들이 포진되어 〈꿈고래놀이터부모협동조합〉의 신화를 만든 임신화 이사장, 〈수원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서정리 이사, 〈수원시협동조합협의회〉 김은선 상임대표를 청하여 모두들 뜨거운 만학의 열에 불탔습니다만 역시 50대가 새롭게 공부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49 2019-08-26 오전 11:13:46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 제정되어…청산유수 줄줄줄…(응…글쿤.)
국제협동조합연맹 ICA는…어쩌구저쩌구…(흠흠…국제연맹도 있군.)
소비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줄줄줄…(한국말인데 어렵.)
버거킹, 썬키스트 등의 사회적경제기업…좔좔좔…(앗! 명랑핫도그도?)
협동조합의 7원칙이…청산유수 뭐라 뭐라…(아궁, 자꾸 까먹네.)
협동조합의 효시 로치데일공정선구자조합은…(흠, 로치데일이 영국이군.)
조합 운동의 선구자 오웬…뭐라 뭐라 줄줄줄…(앗, 철학자 아니었어?)
스페인의 몬드라곤협동조합 방식…줄줄줄…(최대 노동자협동조합!)
MTM 몬드라곤팀아카데미…뭐라 뭐라…(이 공부가 그런거군.)

6회기의 강의가 끝난 현재, 내 머릿속의 지우개는 만학의 열정을 무시한 채 몽땅 지워 버린 듯, 기억해 낼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머리에, 마음에 꼭꼭 담고 가려고 합니다.

"자조, 자기책임, 민주주의, 평등, 공정, 연대를 기본 가치로 정직, 열린 마음, 사회적 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의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한다."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50 2019-08-26 오전 10:53:33

"공통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다."

그리고 어려움이나 문제의 벽에 부딪칠 때는 "WHY? 왜?" 이 일을 이루려는지 스스로에게 묻겠습니다.

'규재맘아, 왜? 이 일을 하려는지 다시 잘 생각해 봐.' 라구요.

'사회적 경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을 넘어 상생과 나눔의 방식을 통해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모든 경제활동.

규 재 맘

자폐청년화가 이규재의 어머니다. 이규재 화가는 판타지한 주제를 강하고 거친 남성적 터치로 표현하는 화풍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 오티즘미술대전 수상을 시작으로 다수의 입상 경력과 여러 국내외 전시에서 독특한 표현력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규재 어머니는 교육학자로 국제교육학회에서 활동 중이며, 그림으로 표현한 아들의 마음을 글로 써서 많은 사람들과 공감하며, 발달장애인의 예술세계를 알리고 있다.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51 2019-08-26 오전 10:53:33

A_CULTURE

봉준호 감독의 역동적인 약자에 대한 감수성은 왜

김 헌 식(대중문화평론가)

이 코너는 장애인에 대한 현상을 대중문화 차원에서 비평하는 난으로
A는 able로 가능성을 뜻하고 able에 Culture를 붙여 '가능성의 문화'로서
하나의 문화 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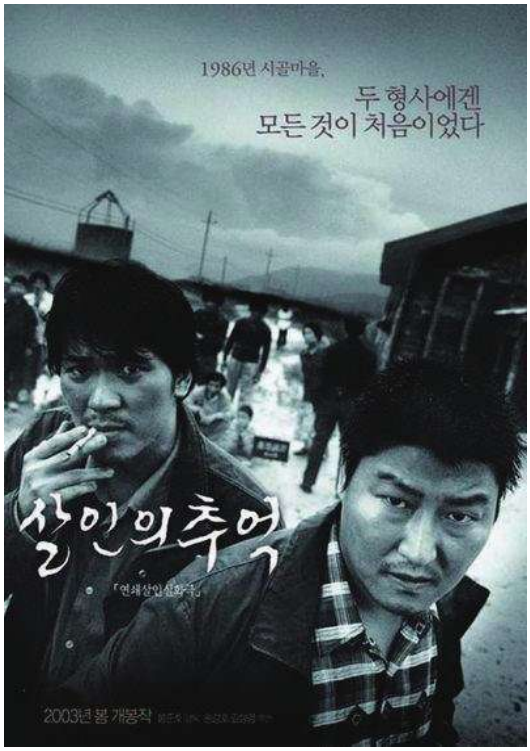
봉준호 감독이 학창 시절 대학교 신문에서 시사만화를 그렸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다. 그 같은 경험은 그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또한 약자에 대한 시선이 역동적인 이유다.

우선 그의 그림 실력은 그가 영화를 만들기 전 제작 콘티를 직접 그린 점에서 드러난다. 이런 그림 실력이 영화 제작에 중요한 이유는 자신이 상상한 세계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화적 상상력과 구도들은 영상화하는데도 용이할 수 있다. 그냥 단순히 제작 과정만이 아니라 그의 작품 세계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시사만화는 시사 현안을 다루기 때문에 사회적 주제의식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했다. 그런 가운데 만화라는 대중적인 장을 통해 그 주제의식을 녹여낸다. 단순히 재미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의미와 가치를 탐구하는 것은 수준 높은 예술 작품으로 만든다. 시사만화가 예술적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만화가 '제9의 예술'이라고 불릴만한 이유가 된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다양한 장르가 섞여 있는 것은 만화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액션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52 2019-08-26 오전 10:53:33

FESTIVAL DE CANNES
PALME D'OR
제72회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행복은 나눌수록 커지잖아요
송강호 이선균 조여정 최우식 박소담 장혜진
제공/배급 CJ엔터테인먼트 제작 (주)바른손이앤에이 15세 이상 관람가
2019 봉준호 감독 작품 | 5월 30일 대개봉
기생충



오락, SF판타지, 스릴러, 풍자/블랙코미디 등등의 장르적 혼종성은 2019년 프랑스 칸 국제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인 〈기생충〉에서도 여실히 증명이 되었다. 무엇보다 장르가 다르거나 혼종되어도 그의 작품들이 보여 준 세계관은 약자들의 삶과 생활이다.

봉 감독은 31세의 이른 나이에 〈플란다스의 개〉(2000)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반려견을 둘러싼 구성원간의 갈등을 다루면서 동물권은 물론 인간과 도시 속에서 관계성을 모색하기도 했다. 반려견에게 의존하는 약자, 홀로 연로한 독거 할머니와 소외된 상처의 여성이 등장하는가 하면 한쪽으로는 개가 짖는 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살해하는 인물이 등장하기도 한다. 물론 그렇게 극단적인 인물조차 불우한 처지 때문에 그러한 만행을 저지르게 되고 심신이 지친 아내의 개가 없어지는 것을 보고 반려동물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된다. 동물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고민은 넷플릭스 영화 〈옥자〉(2017)에서도 더 확장되어 탄생한다. 글로벌 기업이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수퍼 돼지를 대량 생산하려는 음모 속에서 미자는 돼지를 단지 식용의 대상이 아니라 가족으로 생각해서 옥자라는 이름을 붙이고 자매처럼 생활을 한다. 〈설국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54 2019-08-26 오전 10:53:35

열차〉의 마지막 장면처럼 강원도 산골에 사는 미자와 옥자의 마지막 장면은 대안 사회를 모색하는 감독의 의지를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고 하겠다.

봉준호 감독이 주안점에 두는 사회적 집단은 가족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플란다스의 개〉뿐만 아니라 〈괴물〉, 〈마더〉, 〈설국열차〉, 〈기생충〉에 이르기까지 가족이 등장하지 않은 영화는 거의 없다. 괴물에서는 한 가족을 통해서 괴수와 고군분투하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환경문제는 옥자와 같이 소시민의 삶을 파괴할 수 있음에 지나침이 없다. 괴수가 우리에게 익숙한 한강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은 더욱 이러한 일깨움을 강하게 할 수 있었다. 국가의 폭력성을 통해서 약한 개인들이 어떻게 자구책을 모색할 것인가를 가족주의 관점에서 반추하고 있는 괴물의 기조는 〈기생충〉에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가족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을 통해서 삶을 투사하고 있다는 점이 역동적으로 담겨진다. 영화 〈기생충〉에서는 서민 가정이 등장하며 감정이입을 이끌어 내지만, 그것이 욕망의 심화를 통해서 파멸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역동적이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55 2019-08-26 오전 10:53:36

고 상대적인 관점을 통해서 인식의 전복으로 사회적 주제의식과 함께 그의 영화를 예술의 반열에 올리는 이유가 된다. 이러한 분위기는 영화 〈마더〉(2009)는 모성의 이면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큰 반향을 불러모았다. 독특하게도 이 영화에서는 지적장애인 아들과 어머니를 등장시키며 장애인 가족을 전면에 부각했다. 한국 여성의 자식에 대한 집착적 사랑, 즉 모성의 과잉성을 드러내 주는 면에서 평가가 많이 이뤄지고는 했다. 하지만, 이 영화에는 장애인 가족이 겪게 되는 현실을 리얼하게 그린 면도 있다. 장애인은 무조건 동정과 배려의 존재도 아니지만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서 겪게 될 고통이 비정상적인 행태로 변이될 수 있음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그것이 다만 적절치 않은 방식으로 그에 대응하는 것 자체를 합리화할 수 있었다.

〈살인의 추억〉에서도 장애인의 현실을 다르게 볼 수 있었다. 살인 누명이 씌워진 장애인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 두 영화는 같이 쌍으로 움직여야 완결성을 갖는 이유가 되겠다. 살인의 추억은 자칫 장애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사회구조, 백광호(박노식)는 향숙이를 좋아했기에 향숙이를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아니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가 결정적으로 범인으로 몰리는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56 2019-08-26 오전 10:53:41

까닭이 된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범인으로 몰렸지만 역설적으로 백광호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용의자에서 제외된다. 바로 화상으로 손가락이 붙어 버려 범죄를 저지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영화 〈살인의 추억〉을 생각하고 영화 〈마더〉를 본다면, 원빈은 범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장애인 범죄자로 몰릴 수도 있지만 장애인의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단 장애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영화 〈기생충〉에서는 이분법적인 빈부격차와 양극화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기생충이 누군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기존의 물음을 전복시키기 때문에 불편감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 불편감 때문에 칸은 영화 〈기생충〉에게 황금종려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불편은 기존의 인식 체계를 뒤집을 때 발생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포함하여 약자와 소수자에 관한 시선은 끊임없이 전복되어야 한다. 그것이 예술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고 진보의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봉준호 감독의 시사 만화 경력을 말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사회학을 전공한 그에게 사회현상은 단일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시선과 관점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할 가치를 탐구할 대상이었다. 그 중심은 여전히 장애인과 같은 약자와 소수자가 차지하고 있었고 그들을 위한 진정한 해방을 위해 미물이라는 개와 돼지까지도 품어내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의 행보가 어떻게 이어질지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겠다.

김헌식

문화평론가, 문화정보콘텐츠학 박사, 박경리토지문화관 외래교수,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초빙교수, 카이스트미래세대행복위원회 위원, 제40회 방송대상 심사위원, 저서 「비욘드 블랙」, 「세종, 소통의 리더십」, 「영화와 예술로 보는 장애인 복지」 등.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57 2019-08-26 오전 10:53:41

장애인 먼저
생각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글/그림 강윤민(서울 청구초 교사)

장애인먼저
실천운동본부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58 2019-08-26 오전 10:53:51

인문학으로 보는 장애인 1

한국장애인사

등이 굽은 정승 허조

세종의 정치사에는 황희와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 있다. 그는 바로 조선 건국 이후 예악을 정비하고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큰 공을 세운 경암(敬菴) 허조(許稠, 1369~1439)이다. 그의 자는 중통(仲通)이며, 호는 경암(敬菴),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허조는 후에 좌의정에 오를 만큼 세종의 신임을 받는 신하였는데, 어려서부터 체격이 왜소하고 여위었으며 어깨와 등이 구부러진 척추장애인이었다. 그가 어찌하여 등이 굽은 척추장애인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공은 어려서부터 체격이 깎은 듯이 여위고 파리하며, 어깨와 등이 굽어 있었다.'[1]라는 기록을 보았을 때 칠십 평생 동안 불편한 몸을 이끌고 살아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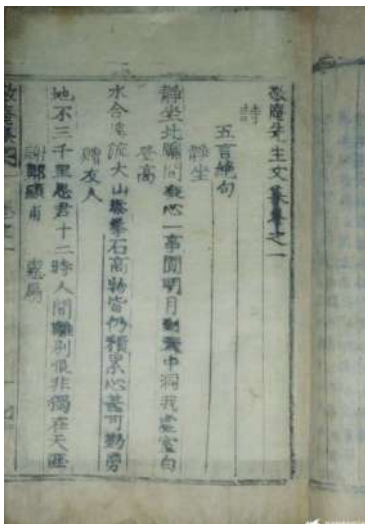
척추장애인 허조의 삶과 형제애

그는 비록 등이 굽었지만 마음은 대쪽같이 곧아 모든 일에 있어서 빈틈이 없는 사람이었다. 허조는 일상생활에서도 변함없이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 주었는데 언제나 새벽닭이 울 때 일어나 몸을 정갈히 하고, 머리를 빗어 관대를 바르게 한 후 하루 종일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허조의 이러한 모습은 국정을 논의할 때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어떤 일이든지 자신만의 소신과 원칙을 지키며 사람들의 말에 부화뇌동하지 않는 꼿꼿한 사람이었다.

허조는 집안에서 매우 엄하여 법도를 철저하게 지키기로 유명했는데 자식들이 잘못을 했을

1) 허봉, 『해동야언』, 민족문화추진회(1973), 『대동야승』Ⅱ, 민족문화추진회, 278면.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59 2019-08-26 오전 10:53:52



경암문집(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때에는 먼저 사당에 고한 후 따끔하게 벌을 주었으며, 노비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도 규율에 맞게 다스렸다. 자식들에게 일상생활에서도 소학의 예에 따라 살도록 엄히 가르쳤던 허조에게는 재미난 일화가 전해 온다.

허문경공은 조심하고 청려(淸厲)하여 집을 다스리는 데도 엄하여 법도가 있었다. 자제는 소학(小學)의 예(禮)로써 가르치되, 털끝만한 작은 행실이라도 모두 스스로 근신하게 하니, 어느 사람이 말하기를, "허공(許公)은 평생에 음양(陰陽)을 알지 못한다." 하였다. 공이 웃으며 말하기를, "만일 내가 음양을 모르면, 후(詡)와 눌(訥)은 어디에서 생겼을까." 하였다 한다.[2)]

허조에게는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의 직책을 맡고 있던 허주(許周)라는 형이 있었다. 두 사람의 우애는 깊고 두터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는데, 허조는 집안일에서부터 정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형과 함께 의논하였다. 이에 허조는 매일 새벽, 첫 닭이 울면 일어나 형의 집으로 문안인사를 드리러 갔다. 그때마다 허조는 집에서부터 타고 온 가마를 마을 입구에 세워두고 하인들도 물린 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직접 걸어서 형의 집까지 갔다. 그의 형 허주 또한 매일 새벽 의관을 정제하고 동생을 기다리며, 허조가 도착하면 작은 술상을 내오도록 하였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고 앉아 그날 있었던 사사로운 일들과 함께 국정에 관한 이야기를 서슴없이 나누었다. 대부분 동생 허조가 형인 허주에게 답을 구하는 식이었는데, 허주는 그때마다 모든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었다. 이에 허조는 항상 사람들에게 "옛말에 사람은 어진 부형이 있는 것이 즐겁다고 하더니, 나를 두고 이름이다."라며 형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드러냈다.

공의 형인 허주(許周)는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로 치사(致仕)하였는데, 공은 모든 정사를 그 형과 같이 앉아 의논하였다. 새벽 첫 닭이 울면 반드시 가서 인사하였는데, 형의 집에 갈 때는 반드시 하인들을 동구(洞口)에

2) 허봉, 『해동야언』, 민족문화추진회(1973), 같은 곳.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60 2019-08-26 오전 10:53:52

두고 수레에서 내려 걸어 들어갔고, 그 형인 판부사(判府事)도 공이 올 것을 알고 매일 밤 의관을 단정히 하며, 등불을 돋우고 자리를 마련해 놓고 몸을 상(床)에 기대고 공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가 오면 반드시 작은 술상을 내오는데, 공이 천천히 "오늘 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인데,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라고 물으면, 판부사는 "그 일은 사리로 볼 때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공이 기뻐하며 물러나와 말하기를, "옛말에 사람은 어진 부형이 있음을 즐거워한다고 하더니, 나를 두고 이름이다." 하였다.[3]

수응재상(瘦鷹宰相)

허조는 예조판서로 있으면서 조정 관리들의 상하복색을 정하는 일을 완성하였으며, 황희(黃喜: 1363~1452)와 함께 조정에 인재를 추천하는 일과 그 인물이 해당 직책에 적합한 자인지 가려내는 일을 맡았다. 뿐만 아니라 허조와 황희는 상소를 왕에게 올리기 전 이를 검토하여 일의 경중과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일을 하였다. 이에 허조에게 사사로이 청탁을 넣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의 강직한 성품으로 인해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단 한 번도 얻지 못했다.

허조의 이러한 성격은 국정을 논의할 때도 그대로 드러났다. 그는 태종이 즉위하고, 사헌부 잡단(司憲府雜端)으로 임명되었을 때 왕이 듣기를 꺼려하는 직언을 거리낌없이 하여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태종은 허조가 왕의 뜻을 거스른다 하여 그를 좌천시켰으나 곧 그가 진정으로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신하임을 깨닫고는 허조의 강직한 성품을 인정하게 되었다. 허조는 이후 나라에 문제가 생겨 법을 재정(再訂)하라는 세종의 요구에도 분란이 생겼다 하더라도 해당되는 법을 버리고 무조건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동시에 허조는 논란거리가 된 법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것은 고치고 좋은 점은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응당 음양이 존재하기에 허조는 최대한 그 그늘을 줄이고자 노력한 것이다. 이러한 허조의 깐깐하고도 올곧은 태도에 세종은 항상, "허조는 고집불통이다!"라고 불만 섞인 말을 내뱉었지만 그의 충심을 알기에 언제나 허조의 의견을 경청하며 그와 함께 국사를 논의했다.[4]

『대동야승』에서 허조는 사람들에게 '수응재상(瘦鷹宰相)'이라 불리었다고 전해진다. 수응재상에서 수응이란 '여윈 매'를 뜻하는데, 매는 몸집이 크고 살이 많은 것보다 몸이 여윌수록 더 많은 새를 잡아먹는다고 알려져 있다. 허조가 수응재상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것은 그가 등이

3) 허봉, 『해동야언』, 민족문화추진회(1973), 같은 책, 279면.
4) 박현모, 「대쪽 재상 허조의 공직관」, 『중앙일보』, 2005. 6. 26.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61 2019-08-26 오전 10:53:52

굽은 척추장애인으로 그 모습이 마치 '여윈 매'를 닮았기 때문이었다. 매는 사냥을 할 때 몸을 움츠린 채로 먹이를 잡아먹는다. 어려서부터 척추장애를 갖고 있었던 허조 또한 여윈 매처럼 몸을 움츠리고 있었기에 이러한 별명이 붙은 것이다. 또한 허조가 이러한 신체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나 조정에서 누구보다 먹이를 많이 잡는 여윈 매처럼 한결같이 부지런하고 유능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공은 어려서부터 체격이 깎은 듯이 여위고 파리하며, 어깨와 등이 굽어 있었다. 일찍이 예조판서로 있으면서 조정 관리들의 상하복색(上下服色)을 정하니, 의제(儀制)가 확실히 분별이 있었다. 시정의 경박한 자들이 가장 미워하여 수응재상(瘦鷹宰相)이라고 불렀는데, 뜻이 여윈 매라는 말로서, 대개 매는 살찌면 날아가 버리고, 여위면 새를 잡아먹을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다.[5)]

허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조선 초기 정치인이다. 그 이유는 이조판서, 우의정, 좌의정에 올라 태종과 세종조 정치사에 크나큰 업적을 남긴 것과 함께 그의 생애 그 어디에서도 허조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일반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허조는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오히려 보란 듯이 수많은 일을 해냈다. 아마도 이는 조선 초기에 사회적 분위기가 장애인들을 비장애인과 나누어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보통 사람들과 동등한 인격체로 대했기 때문일 것이다. 세종은 자신 스스로가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독 장애를 가진 이들의 처우개선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러한 이유로 허조와 같이 척추 장애를 가지고도 재상에 올라 나라를 바르게 이끈 인물들이 배출될 수 있었던 것이다. 오히려 오늘날 장애인 국무총리나 장관이 없다. 이는 현대인들이 겉모습으로 사람의 모든 것을 평가하는 외모지상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척추장애인으로 재상의 자리에 오른 허조의 이야기는 장애인을 다르다 하여 차별하는 현대사회에 경종을 울린다.

5) 허봉, 『해동야언』, 민족문화추진회(1973), 같은 책, 278면.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62 2019-08-26 오전 10:53:52

인문학으로
보는 장애인
2

세계장애인물사

언어장애를 가진 최고의 정치웅변가 데모스테네스

데모스테네스(Demosthenes:BC 384~322)는 아테네에서 출생하였는데 7세 때 아버지가 죽자 백부인 아포보스가 유산을 관리하였으나 그들에게 전 재산을 빼앗겼다. 이 억울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데모스테네스는 이사이오스에게 웅변술을 배워 결국 소송에는 이겼으나 이미 탕진한 상태라서 재산은 환수받지 못하였다. 그는 이 재판을 계기로 직업적인 법정 변호가가 되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재산까지 몰수당해 교육을 받지 못한데다 말을 몹시 더듬는 언어장애까지 있었던 그가 변호사가 되고 아테네 최고의 웅변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피나는 노력 덕분이었다. 그는 언덕을 뛰어오르며 발성 연습을 했고 독서를 통해 지식을 넓혀 갔다. 데모스는 화려한 언변을 무기로 정계에 진출할 수 있었다.

당시 그리스는 신흥 마케도니아에게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 그는 반(反)마케도니아운동의 선두에 서서 정열적인 의회 연설로 국민들이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하였다. 그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61편의 연설 중 특히 유명한 것은 〈필리포스 탄핵〉 3편을 비롯한 정치연설이다. 초기에는 소크라테스의 영향으로 조화롭고 세련된 문체를 사용하였으나 점차 중후하고 압도하는 문체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63 2019-08-26 오전 10:53:53

데모스테네스 동상(출처: 두산백과)

로 바뀌었다.

그의 연설이 설득력이 있었던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진정성 때문이었다. 그래서 데모스테네스의 말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것이다.

마케도니아의 필립왕이 이런 말을 할 정도였다.

'백만 명의 그리스 군사는 무섭지 않지만 데모스테네스의 세 치 혀는 무섭다.'고 말이다.

노력하는 성실과 변치 않는 진실을 가진 데모스테네스의 리더십이 그리운 오늘이다.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64 2019-08-26 오전 10:53:53

피플

척수장애인복지 선봉에 선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구근회 회장

사회가 발달할수록 중도에 장애를 갖게 되는 척수장애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척수장애인이 지체장애 범주에서 독립되어 새로운 장애 유형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요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척수장애의 특성에 따른 서비스가 필요하기에 지체장애 유형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유형 분류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지체장애는 기능 면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감각장애까지 있어서 일상생활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척수장애는 거의 모두 중증장애라고 활동보조사들의 기피대상이다. 욕창 때문에 특수 방석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런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척수장애인들은 비싼 방석만 사용한다고 사치스럽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의료 서비스나 보장구 등 여러 면에서 지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65 2019-08-26 오전 10:53:57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66 2019-08-26 오전 10:54:00

체장애와는 다른 욕구를 갖고 있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척수장애인이 늘어나고 있어서 반드시 유형 분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행정은 문서에 얽매여 있어서 한마디로 행정편의 우선이라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이 안타깝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가 설립된 것이 2004년(법인 2006년)이고 보면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척수장애인협회가 척수인들에게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가.

협회 설립은 13년 정도밖에 안 되었지만 척수장애인들(이하 척수인)의 활동은 장애인 복지와 함께했다. 척수인들은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갖게 되기 때문에 병원 생활을 오래하게 된다. 그래서 병원별로 소모임이 만들어져서 척수인으로 살아가는 방법과 정보를 교환하며 문제를 해결한다.

척수인들은 비장애인으로 살았던 적이 있어서 비장애인으로 누렸던 생활로 최대한 가깝게 돌아가는 것이 목표이다.

사고 후 사회 복귀 기간이 보통 3년이란 연구 결과가 있지만 선진국은 2개월, 중증인 경우는 6개월이 걸린다. 선진국 사람들이 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선진국은 재활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협회가 생긴 후 사회복귀 기간이 단축되고 있다. 그전에는 보통 10년 이상 집안에 갇혀 살았다.

지난 장애인의 날에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훈하셨는데 훈장이 주는 책임감이 무거우실 듯하다. 협회 회장으로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

훈장이야 장애인계에서 배분하는 차원에서… 그래도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보람이 컸지만 아직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책임감이 더 무겁다.

협회가 창립되기 전의 척수인들은 개개인이 혹독한 경험을 통해 체득한 척수장애인복지의 내용을 갖고 부산의 하나회, 대구의 영글회, 대전의 송죽회 등 전국에서 활동하던 모임들과 수도권에서 1980년대부터 활동을 하고 있던 한국척수장애인복지회 대표자들이 모여서 척수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창립 준비를 1999년에 하였다.

그때 발기인으로 참여를 했지만 회장이 된 것은 2013년이다. 1~2대 정하균 회장, 3~4대 김해섭 회장 그리고 내가 5~6대 회장이다. 이제 젊은 후배들이 척수장애인 인권을 위해 일할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67 2019-08-26 오전 10:54:00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척수인들의 목표는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으로 의료재활, 사회재활, 직업재활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는 아직 의료재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척수장애인 분들을 만나면 다치기 전과 후로 나누어서 자신의 생을 구분하는 경우가 많았다. 회장님은 어떠한가.

수원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서울로 유학 왔다.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며 학교에 다녔다.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농구를 하고 있었는데 농구골대가 쓰러지면서 나를 덮쳤다. 1967년 당시는 척수장애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나와 수원 집으로 가서 빨리 낫기만을 기다렸다. 그래야 학교에 갈 수 있으니 말이다.

철없던 시절 다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장애를 수용하는 단계도 없이 그저 방 안에서 시간을 보냈다. 낮에는 주로 책을 많이 읽었다. 동네 사람들이 책만 보면 나에게 가져다 줄 정도로 책에 빠져 있었다. 밤이 되어 인적이 뜸해지면 바깥 공기가 그리워 잠시 나가서 바람을 쐬는 정도로 은둔생활을 하였다.

이성근(1988)

10년 동안의 은둔을 깨게 한 것은 이성근이었다. 그는 1984년 연세대학교 아이스하키 선수였는데 연습 중 사고로 하반신마비 장애를 갖게 되었지만 바로 사회 활동을 하며 매스컴에 자주 소개되었다.

이성근이 입원해 있던 병원의 수간호사가 나의 형수였는데 형수가 이성근에게 내 얘기를 해서 그가 나를 찾아왔던 것이다.

형수가 나에게도 이성근 얘기를 많이 했다.

"그분은 다친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도 활동을 많이 하는데 도련님은 언제까지 이러고 계실 거예요."

그 말이 듣기 싫었다. 그런데 막상 개조한 오토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68 2019-08-26 오전 10:54:01

바이를 타고 온 이성근을 보자 생각이 달라졌다. 그 당당함이 참 멋있었다. 이성근과 얘기를 나누며 자기도 밖으로 나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사실 그동안 동네 아이들 숙제를 봐주다가 시작한 과외로 용돈을 벌고 있었는데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학력부터 갖춰 놓아야겠다는 생각에 검정고시를 치렀다. 고등학생까지 과외를 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과정 검정고시를 단숨에 합격하고 1988년 방송통신대학교 영문과에 입학하여 대학 공부를 하였다.

그러면서 이성근과 함께 사회 활동을 시작하였다. 서울장애인올림픽을 앞두고 장애인복지가 이슈가 되고 있어서 정말 해야 할 일이 많았다.

어떻게 보장구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서울올림픽 폐회식에 독일 휠체어마라톤 챔피언인 마크 선수가 참석하였는데 한 달 후에 개최되는 서울장애인올림픽에도 참가를 해야 해서 한 달 동안 한국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사람 가이드를 이성근과 함께하게 되었다. 나는 그때 처음 선진국과 우리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휠체어라는 사실을 알았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환자용 휠체어와 일상생활을 위한 활동용 휠체어가 따로 있었는데 우리는 병원에서 사용하던 휠체어를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타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리컴메디컬이라는 보장구, 정확히 휠체어 전문 회사를 1992년에 주식회사로 설립하여 활동용 휠체어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대표는 이성근이 맡아 세일즈를 하고 나는 실장으로 실무를 담당했다. 휠체어만 바뀌어도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였기에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보급하고 싶었다.

장애인스포츠 발전에도 많은 공헌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나는 선수로 경기를 직접 해 보지는 않았어도 농구, 럭비, 테니스 등 휠체어스포츠 종목을 확장시켜 나가는 역할을 했다.

이성근에게 두 가지 목표가 있었다. 첫째 휠체어아이스하키협회를 만들고 한국척수장애인협회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성근이가 1993년 혈액암 진단을 받았는데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자 마음이 급했다. 그래서 서둘러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를 창립하였다. 2000년 창립식을 마친 지 얼마되지 않아서 성근이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척수장애인협회 설립은 보지 못했다. 모든 일을 성근이와 함께했기 때문에 성근이가 떠난 후 한동안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다.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69 2019-08-26 오전 10:54:01

방송통신대 졸업식

가정생활은 어떻게 하였는지.

1990년 결혼을 하였다. 아내는 간호사였다. 병원을 방문하여 척수인들에게 재활 정보를 주며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간호사들와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나도 그때 연애하여 노총각 신세를 면했다.

장애인복지에 뛰어든 것에 대한 후회는 없는가.

후회는 없다. 내가 척수장애를 갖게 된 후 10년 동안 바깥 활동을 하지 못했던 것은 소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나오기 때문이었다. 비장애인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소대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세상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협회 사업 가운데 일상홈 운영에 애정이 많다. 사고를 당하면 바로 병원으로 가서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옮겨다니다가 집으로 가게 되는데 집이 첫 번째로 부딪히는 장벽이다.

집은 병원과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일상생활 복귀에 자신감을 잃게 된다. 그래서 일상홈을 마련해서 그곳에서 코치에게 일상생활 방식을 익히도록 하고 있다. 코치를 이용자보다 장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70 2019-08-26 오전 10:54:02

리컴메디칼 Sirex 전시회(1997)

애가 심한 사람으로 매칭시켜서 '당신은 나보다 장애가 경해서 나는 안 되고 당신은 되는 거야.'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있다.

1년에 8명이 훈련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30여 명이 교육을 받고 나갔는데 일상홈 교육 이수자들은 사회 복귀율 100%를 기록하고 있다.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일상홈이 확대되어야 한다.

척수장애인 가운데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인이 참 많다. 협회에서 장애인문화예술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조금 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우리 협회에서는 2010년 한국척수장애인문화예술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문화예술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장애인문화예술 사업비를 마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을 받아야 하는데 그 또한 매우 어렵다.

현재는 3인3색 공연과 우리 행사에 장애예술인이 출연하는 정도밖에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장애인문화예술사업 예산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늘 갖고 있다.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71 2019-08-26 오전 10:54:02

2019 장애인의 날

앞으로의 계획은.

우리 척수인들을 위해 이성근이 정말 많은 역할을 했다. 나보다 나이는 어렸지만 중도 장애인의 모범적인 복귀 사례를 보여 주었다. 이성근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것이 척수인의 역사가 될 것이다.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72 2019-08-26 오전 10:54:03

캐릭터로
말한다

광고 천재 이제석은 왜 장애인에게 관심을 가졌을까?

이제석 소장은 1982년 대구에서 태어나 계명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학벌을 쌓기 위한 유학이 아니라 그저 시야를 넓히고 싶어서 미국 뉴욕비쥬얼아트스쿨에서 공부를 하며 여러 국제광고 공모전에 응모하였는데 수차례 수상을 하며 광고디자이너로 입지를 굳혔다.

그의 디자인은 고정관념을 깨고 직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강렬함이 있으며 인간에 대한 사랑을 기본에 깔고 있는 휴머니즘 작품이다. 그는 현재 이제석광고연구소를 운영하며 그래픽, 빌보드(광고판), 설치미술형, 영상 등 다양한 분야의 광고 작품에서 큰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상업광고와 함께 공익광고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광고 천재 이제석의 공익광고 가운데 장애인과 관련된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73 2019-08-26 오전 10:54:03

For some, it's Mt. Everest

누군가에게는 이 계단이 에베레스트산 입니다(미국장애인협회)

This will be designed to print on the stairs in public area or the subway station to pursuit having mor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장애인 편의시설을 더 많이 확충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지하철 및 공공장소 계단에 설치되도록 디자인된 작품)

이 광고를 보는 순간 계단마다 이 광고를 설치한다면 사람들이 장애인의 불편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가 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특히 장애인이라는 단어 없이 누군가에게는 이 계단이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이 된다는 문구는 호소력이 매우 크다.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74 2019-08-26 오전 10:54:04

헬렌켈러가 만약 한국에서 살았더라면
(장애인 불평등 해소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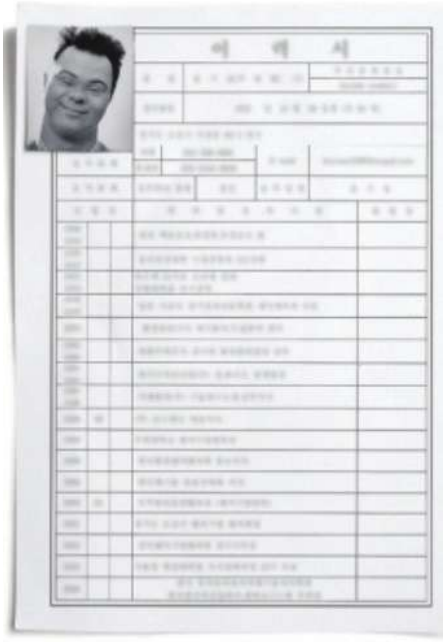
헬렌켈러를 간단히 소개하면 시각과 청각의 중복장애를 갖고 대학교육을 받은 작가이자 교육자 그리고 사회운동가이다. 그녀는 1880년에 태어나 1968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시기에 한국에서 살았더라면 지압원을 운영했을 것이라는 광고로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를 꼬집고 있다.

스티븐 호킹이 만약 한국에 태어났더라면
(장애인 불평등 해소 캠페인)

스티븐 호킹(1942~2018)은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천체 물리학자이다.

근육병으로 온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목소리조차 낼 수 없어서 기계음으로 의사 소통을 해야 하는 최중증의 장애 속에서도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영국이 호킹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런 호킹이 한국에 태어났더라면 그 천재성이 드러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면서 정부의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말해 준다.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75 2019-08-26 오전 10:54:04



편견의 눈으로는 재능을 볼 수 없습니다

(장애인 불평등 해소 캠페인)

이력서에 붙어 있는 사진은 벨기에의 다운증후군 배우 파스칼 뒤켄이다. 그는 1996년 〈제8요일〉 주인공으로 열연하여 그해 칸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수상하였다. 우리나라에도 장애인 배우들이 있지만 주인공으로 등장한 경우는 없고 비장애인 배우들이 장애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배우로 활동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장애인 배우가 없는 것은 바로 편견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어서 장애인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배우는 단적인 예이고 모든 직업군에서 편견을 갖고 있다면 개인이 갖고 있는 재능을 놓치게 된다고 주의를 주고 있다.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76 2019-08-26 오전 10:54:04

당신의 발걸음이 누군가를 걷게 합니다

발목지뢰 피해자들을 위한 걷기대회(서울 대한적십자사)

이 포스터는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서 개최한 발목지뢰 피해자들을 위한 걷기대회를 홍보하고 있는데 그림 한 장으로 어떤 행사인지 그 내용이 선명하게 다가온다. 전쟁 때 묻은 지뢰로 발목을 잃은 사람들은 장애를 갖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데 걷기대회에 참가하여 걷는 것으로 그분들에게 의족을 선물하게 된다는 사업 취지를 한눈에 알 수 있다.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77 2019-08-26 오전 10:54:05

노차돌의 사랑법

사랑이란

032

어떤 사람은
사랑을 모아서
행복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모아서
이별을 만든다.

031

만약 당신이
사랑을 안 믿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당신이 이 지구 존재를 안 믿거나
부정하는 것이다
사랑 때문에
이 지구가 아직 존재한다.

027

대형 상어 종류 중에 고래상어는
잠시라도 안 움직이면
숨을 못 쉬어서 금방 죽는다고 한다
우리들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못 산다
고래상어는 살기 위해서 움직이고
사람들은 살기 위해 끝없이 사랑을 찾고 있다.

026

사랑은
설국열차에 나오는 영양 양갱과 같다
모르고 먹으면 맛있지만
사실 그 속엔 바퀴벌레가 있다
사랑은
아무도 모르게 해야
마음과 영혼이 편하다.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78 2019-08-26 오전 10:54:05

025

사랑이 찾아오면
3번의 신호가 온다
첫 번째는 신체 한 군데서 신호가 오고
두 번째는 머리에서 오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에서 온다
우린 이 세 번의 신호 중에
마지막 신호에만 신경을 쓰고
나머진 그냥 넘어가도 된다
세 가지에 다 반응을 하면 몸과 시간만 낭비한다.

023

사랑은
때로는 사람을
아주 무서운 들짐승으로 만들고
때로는
아주 순한 양으로 만든다.

노 차 돌
"모두 사랑과 행복 가득하세요."
『솟대문학』 추천완료. 시집 「어느 화성인의 사랑 이야기」
https://blog.naver.com/rosebox72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79 2019-08-26 오전 10:54:06

삶을 나르는 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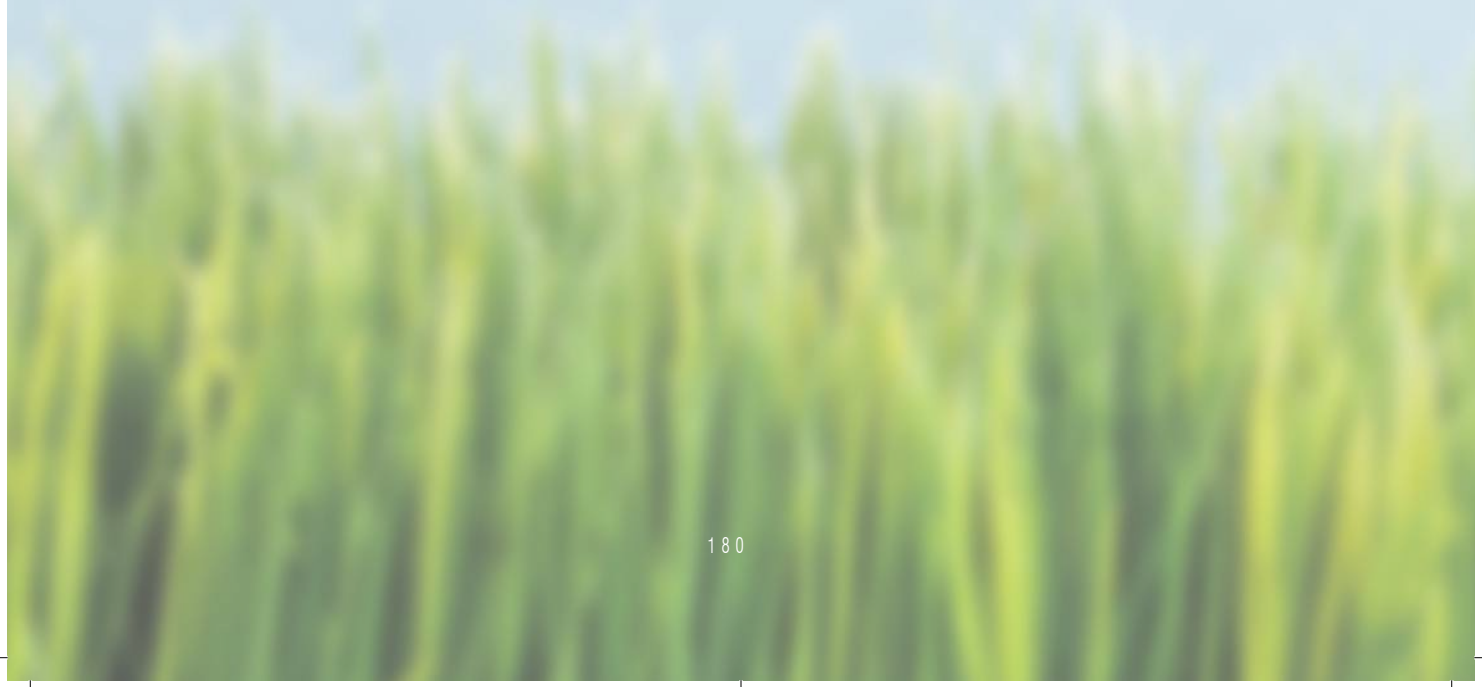
풀꽃

나태주(羅泰柱, 1945~)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80 2019-08-26 오전 10:54:08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 소중하고 예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의미한 것 또한 존재하지 않지요. 어찌 인간만이겠습니까. 흔하디흔한 들풀이나 미물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다 제각기 이 지상에 존재해야 할 몫 사명(使命)을 갖고 태어났고 공생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볼 때마다 예쁘단 생각을 늘 하지요. 오래 볼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더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슬픈 삶은 없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사랑치 못하는 사람처럼 안타까운 생이 또 어디 있으려구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함으로 누군가가 외롭게 보내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를 만나야 합니다. 만나서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야 합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장애를 가진 우리도 그렇습니다.

강남국

수필가, 칼럼니스트, 영어교육봉사자, 활짝웃는독서회 회장, 계간 『문학에스프리』 등단, 제27회 아산상 수상 등.
저서: 「나눔 속에 핀 꽃」, 「아버지의 손과 지게」, 「삶을 나르는 시」

계간 이미지(13호)2019가을-내지new.indd 181 2019-08-26 오전 10:54:11

콘텐츠 모집

『E美지』는 독자와 함께 만드는 매거진입니다!

/콘텐츠 모집/ 미술, 음악, 대중예술 등 『E美지』의 모든 콘텐츠에 들어갈 내용을 보내 주시면 『E美지』 1년 구독증을 보내 드립니다.

『E美지』 중계석은 장애인문화예술계 각종 소식을 홍보하는 코너입니다.
관련 보도자료 환영합니다.

/보낼 곳/ 원고: 홈페이지 www.emiji.net의 솟대문학 코너
인쇄자료: (08504)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지식산업센터 B동 2506-2호 『E美지』
콘텐츠 & 파일자료: 이메일 sdmh1991@naver.com/klah1990@daum.net

/기타/ 투고하신 원고는 반환하지 않으니 원본을 따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02-861-8848

아름다운 영토에 나무 한 그루 심어 주세요!

장애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널리 알리고 장애인예술의 수월성을 확보하며
장애인예술을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을 목표로 하는 국내 최초의 장애인예술 Magazine입니다.
『E美지』는 독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발간되는 독자 운영체입니다.
아름다운 영토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누구 시리즈

〈누구?!시리즈100〉 프로젝트

우리는 낯선 사람을 보면 '누구일까?' 하는 궁금증을 갖는다. 그 사람에 대해 알아 가면서 감동이 생긴다면 '아, 그렇구나!' 하는 감탄을 하게 된다. 이렇게 궁금증이 감탄으로 변하게 하는 이야기를 담은 작은 인문학 도서 〈누구 시리즈〉를 기획하게 되었다.

장애인예술은 장애예술인의 삶 속에서 녹아나온 창작이라서 장애예술인 이야기를 책으로 만드는 〈누구 시리즈〉는 꼭 필요한 작업이다. 이 책은 장애예술인의 활동을 알리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기에 〈누구 시리즈 100권〉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의문과 감탄을 동시에 나타내는 기호 인테러뱅(interrobang)이 〈누구 시리즈〉를 통해 새로운 감성으로 확산될 것으로 믿는다.

_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회장 방귀희

선정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2018년 한국도서번역사업 선정!"

김형희 作 『캔버스에서 춤추는 아름다운 여자 김형희』
김경민 作 『나눔 한류를 실천하는 피아니스트 김경민』

신국판 | 각권 값 9,000원~10,000원

2016 누구?시리즈

1. 황영택 노래하는 멋진 남자, 황영택
2. 김형희 캔버스에서 춤추는 아름다운 여자, 김형희
3. 장성빈 소리를 사랑하는 아리랑 소년, 장성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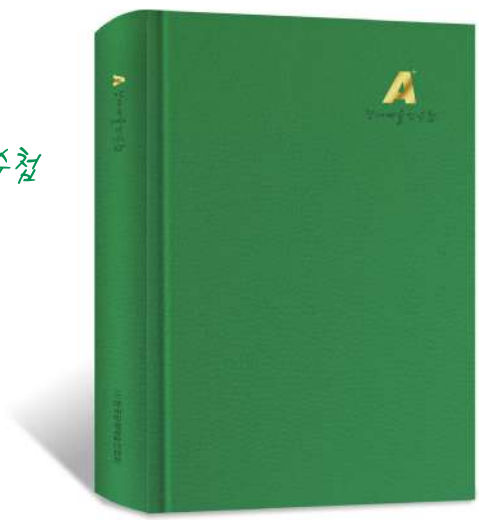
2017 누구?시리즈

4. 김환철 이야기 산업의 성공 신화를 쓴 김환철
5. 김예지 피아노 앞에서 아름다운 피아니스트 김예지
6. 탁용준 낭만화가 탁용준
7. 김용우 휠체어무용의 전설 김용우
8. 이은희 붓으로 세상을 잇는 캘리그래퍼 이은희
9. 정상일 음악을 조율하는 휠체어 지휘자 정상일
10. 손병걸 열 개의 눈동자를 가진 어둠의 감시자 손병걸
11. 김경민 나눔 한류를 실천하는 피아니스트 김경민
12. 강성국 강성국의 몸의 노래
13. 최 준 피아노병창 창시자 최준

발행 도서출판 솟대 제작 · 판매 연인M&B www.yeoninmb.co.kr | 02)455-3987

"장애예술인이 도대체 몇 명이냐?"
"장애예술인의 수준은?"
그래서 제작한 국내 최초 장애예술인 사전!

A+
장애예술인수첩



448p/비매품

3년의 준비 기간
2천여 통의 전화와 이메일
개인 343명
단체 82개
총 1,300여 명의 장애예술인 집대성

수첩 별칭: A+수첩의 A+는 able, access, ace Art를 의미.
수첩 활용: PD수첩처럼 장애예술인 섭외에 사용.

주최 · 주관 사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Korea Disability Arts & Culture Center

사단법인 **한국장애예술인협회** T. (02) 861-8848 F. (02) 861-8849 www.emiji.net